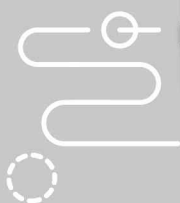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일시** 2019년 5월 3일(금) - 4일(토)

**장소**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BK21+ 다문화교육전문인력사업단  
 인하대 토대연구 다문화생활세계아카이브연구팀  
 건국대 인문학 국책사업프로젝트팀

**후원**

 한국연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





**PROGRAM**

1<sup>st</sup> day 2019. 5. 3. Fri.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2019. 5. 3(FRI)-4(SAT)

시 간	행 사 일 정	
13:30~14:00	<p style="text-align: right;">장소: 플라자 60 소강당</p> <p style="text-align: center;">등 록</p>	
14:00~14:2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이미정(인하대)</p> <p>■ 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영사 : 박민서(국립목포대학교 총장)</li> <li>▶ 개회사 : 오장근(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장)</li> <li>▶ 축 사 : 김영순(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장)</li> </ul>	
14:20~15:20	<p>■ 기조 강연 1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휴먼·포스트휴먼 김동윤 [건국대학교]</p>	
	<p>■ 기조 강연 2 :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와 문화정체성 - 정체성협상이론(INT)을 중심으로 김영순 [인하대학교]</p>	
15:20~15:30	휴 식	
	<p>【4차 산업혁명과 교육 분과】 장소: 다목적학습실(3층) 사회: 오영훈(인하대)</p>	<p>【문화교류 1분과】 장소: 수업행동분석실(4층) 사회: 이승권(조선대)</p>
15:30~15:50	<p>주제발표 1 고고학 기반의 컬포츠 문화인재양성과 MB(Mixed Reality) 활용 이현종(목포대)</p>	<p>주제발표 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윤 영(호남대)</p>
15:50~16:10	<p>'기술변혁과 인간'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이경택(서울대)</p>	<p>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교육방법 탐색 이순금(순천대)</p>
16:10~16:30	<p>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과학' 교육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정지훈(안동대)</p>	<p>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박미숙(인하대)</p>
16:30~16:50	휴 식	
16:50~17:10	<p>주제발표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송은주(건국대)</p>	<p>주제발표 2 독일문학, 할리우드와 만나다 이광복(목포대)</p>
17:10~17:30	<p>스마트토이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양시영(고려대)</p>	<p>주민참여 도시재생 전주『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례를 바탕으로 길미옥(조선대)</p>
17:30~17:50	<p>기술변혁과 교육혁신 오장근(목포대)</p>	<p>통일시대,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문화콘텐츠(공연예술)를 중심으로 최 철(조선대)</p>
17:50~18:10	【종합토론】	【종합토론】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PROGRAM**

2<sup>nd</sup> day 2019. 5. 4. Sat.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2019. 5. 3(FRI)-4(SAT)

시 간	행 사 일 정	
09:00~09:30	등 록	
	<b>【문화교육 분과】</b> 장소: 수업행동분석실(4층) 사회: 이영실(인천다문화교육연구소)	<b>【문화교류 2분과】</b> 장소: 다목적학습실(3층) 사회: 손영화(인하대)
09:30~10:00	마을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전라남도 무안군 복길리 이야기  오장근(목포대), 오영훈(인하대), 조준범(목포대), 이현수(목포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승은(인하대)
10:00~10:30	재정착 난민 카렌족의 생애담 탐색적 연구  박봉수(다아스포라연구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방현희(강원대)
10:30~11:00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 -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조영철(담방초등학교)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정지현(인하대)
11:00~11:30	<b>【종합토론】</b>	<b>【종합토론】</b>
	사회: 이미정(인하대)	
	폐회식	



## POSTER SESSION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2019. 5. 3(FRI)-4(SAT)

번호	이름	소속	논문 제목
1	아지조바 피루자	인하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2	어경준	인하대학교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에 관한 연구
3	남혜경	인하대학교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4	장연연	인하대학교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5	채은희	인하대학교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 속담 탐색
6	이춘양	인하대학교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7	윙티 탄프엉	인하대학교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8	최유성	인하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9	이명엽	인하대학교	Development plan a Korean(KSL) reading textbook
10	김수민	인하대학교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11	김은희	인하대학교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방법 연구
12	주용	인하대학교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3	이현주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14	김도형 서유림 이세련	목포대학교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전략



**I 기조강연**

- 기조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휴먼·포스트휴먼 ..... 3  
김동윤 [건국대학교]
- 기조 2.**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와 문화정체성 - 정체성협상이론(INT)을 중심으로 ..... 21  
김영순 [인하대학교]

**I 4차 산업혁명과 교육 분과**

- 주제 1** 고고학기반의 컬포츠 문화인재양성과 MR(Mixed Reality) 활용 ..... 31  
이헌종(목포대)
- 1-1. '기술변혁과 인간'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 41  
이경택(서울대)
- 1-2.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과학' 교육에 관한 예비적 고찰 ..... 47  
정지훈(한국국학진흥원)
- 주제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 59  
송은주(건국대)
- 2-1. 스마트토이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키보(KIBO)로봇을 중심으로 ..... 69  
양시영(고려대)
- 2-2. 기술변혁과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제안 ..... 77  
오장근(목포대)



**I 문화교류 1분과**

**주제 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 87  
윤영(호남대)
- 1-1.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교육방법 탐색 ..... 95  
이순금(순천대)
- 1-2.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 107  
박미숙(인하대)

**주제 2** 독일문학, 할리우드와 만나다 ..... 117  
이광복(목포대)

- 2-1. 주민참여 도시재생 전주『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례를 바탕으로 ..... 123  
길미옥(조선대)
- 2-2.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문화콘텐츠(공연예술)를 중심으로 ..... 129  
최철(조선대)



**I 문화교류 분과**

- 발표 1.** 마을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전라남도 무안군 복길리 이야기 ..... 137  
오장근(목포대), 오영훈(인하대), 조준범(목포대), 이헌수(목포대)
- 발표 2.** 재정착 난민 카렌족의 생애담 탐색적 연구 ..... 147  
박봉수(다아스포라연구소)
- 발표 3.**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  
-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 153  
조영철(담방초등학교)

**I 문화교류 2분과**

- 발표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 163  
최승은(인하대)
- 발표 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 173  
방현희(강원대)
- 발표 3.**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181  
정지현(인하대)





1.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 189 아지조바 피루자(인하대)	189
2.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에 관한 연구 ..... 190 어경준(인하대)	190
3.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 191 남혜경(인하대)	191
4.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 192 장연연(인하대)	192
5.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 속담 탐색 ..... 193 채은희(인하대)	193
6.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 194 이춘양(인하대)	194
7.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 195 윙티 탄프영(인하대)	195
8.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96 최유성(인하대)	196
9. Development plan a Korean(KSL) reading textbook ..... 197 이명엽(인하대)	197
10.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198 김수민(인하대)	198
11.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방법 연구 ..... 199 김은희(인하대)	199
12.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200 주용(인하대)	200
1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 201 이현주(인하대)	201
14.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전략 ..... 202 김도형, 서유림, 이세련(목포대)	202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1일차**  
5.3. Fri.

**I 기초강연**

기초강연 0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휴먼 · 포스트휴먼

김동윤 [건국대학교]

기초강연 02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와 문화정체성  
- 정체성협상이론(INT)을 중심으로

김영순 [인하대학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 휴먼 · 포스트휴먼

김동윤<sup>1)</sup>(건국대학교)

### 핵심개념

-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NBIC기술, 정보 (Information), 항상성(Homeostasis), 뉴론 인간, 텔레그라피, 패턴(Pattern), 탈물질성 (Immateriality of Human Body). 복잡성 (Complexity, John von Neumann) 포스트 휴먼, 삶의 조건(한나 아렌트)과 삶의 세계 (LebensWelt).

1)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콘텐츠.

## 사이버네틱스, NBIC, AI, Posthuman

NBIC 기술의 융합현상으로 인간(휴먼)의 위상과 인류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이버네틱스의 역설, 복합성과, 예측불가능성.

이머전스(Emergence)

이른바 '4차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NBIC 기술융합과 GAFA라는 약칭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이론적 기반인 사이버네틱스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전통적인 인간(휴먼)개념에 영향

## Cognitive Science(Cybernetics)의 선구자

Nobert Wiener

John von Neumann

Warren McCulloch

Walter Pitts.

Claude Shannon

Ross Ashby(사이버네틱스 제 2 세대 창시자)

Cybernetics & No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John von Neuman



## Claude Shannon



###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포스트휴먼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이버네틱스 기술과 개념이 노버트 위너의 연구로부터 발원
- 사이버네틱스 개념과 본질, 부상의 배경과 맥락.
- 기존 휴머니즘의 인간 위상의 변화.
- 사이버네틱스가 인공지능 등 기술과 융합 (The Converging of NBIC)하여 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 넘어가는 맥락을 제공.



## Cybernetics and Negative Entropy

- 위너는 2차 세계대전 후 각종 선전 홍보 언어로 가득 찬 사회적 상황을 정보의 엔트로피(entropy)로 규정
- 인간을 (2차 세계대전 당시 경험했던 끔찍한) 각종 폭력, 제노사이드, 선전 선동, 이데올로기 등 즉, 엔트로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 개념을 재정의.
- 전통적인 인간과 휴머니즘이 전쟁 갈등 폭력 등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
- 사이버네틱스 정보체계가 구축하려는 '근대적 인간 다음'의 인간'은 이러한 부정적인 국면과 폐해를 제거 방지하는 새로운 인간.
- '근대적 인간-다음'의 인간 개념은 휴머니즘에 기반한 형이상학적·윤리적·인식론을 뒤흔드는 계기 마련..

##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

- 노버트 위너가 정립한 사이버네틱스는 피드백 효과에 의해 구축된 자율적이고 안정된 정보시스템. 모든 것이 디지털 코드화 하여 모든 것과 연결되는 현상으로서의 사이버네틱스는 인공지능 아키텍처 핵심 개념.
- 북미에서 형성된 사이버네틱스 정보 시스템 중심의 분위기가 차후 인지과학과 뇌신경과학, 더 구체적으로 말해 뇌의 기능을 컴퓨터와 연결시키려는 연구에 커다란 영향..

## 'kubernētēs' = 'steerman

- 사이버네틱스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kubernētēs' 즉 'steerman'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Information, Codes, Feedback..
- 기존 Physics(Thermo, Matters)와의 단절..

## Cybernetics: Control, Mastery, Governance by Feedback, Information,

- MIT 수학자 N. 위너는 인간 정신기능의 일반 법칙을 확립 시도.. 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이론은 기본적으로 피드백(feedback)개념에 기대어 있다.
- 고전생물학에서 피드백(되돌아오는 반응, rétroaction)이란, 온도조절(Thermastasis)의 기능을 통해, 몸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너는 엔지니어링과 생물학 사이에서 정보(information)라는 결정적인 터치를 추가하면서 피드백 개념을 정립하였다(...)

## 사이버네틱스 이성과 새로운 인간 탄생

- 위너, '커뮤니케이션 유토피아': "'새롭고 새로운 인간'(nouvel homme nouveau)이란 '타인'의 피드백에 반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운용하는 것에 불과한 존재, 즉 새로운 집단주의에 극단적으로 민감하고 단순한 개인적 안테나가 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정보 네트워크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필연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타자의 피드백에 반응하고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운용하는 합리성은 수학적으로 기획된 기계적 이성에 더 가깝다.

### 키플링(Kipling)의 소설,정신의 원격전송, 사이버네틱스, '패턴'(pattern)

- 위너는 키플링(Kipling)의 소설을 인용하면서 인간 정신의 원격전송(a most remarkable telegraph)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이버네틱스에서 인간 정신은 '패턴'(pattern)으로 변환하여 전송 가능성.
- 정보를 전송하듯이 정신과 함께 인간 몸의 전송 가능성. 인간 몸의 물질성을 제거하고 물질성이 제거된 몸과 정신을 정보로 변환하여 그것을 원격전송(telegraph)하는 개념이다.
- 일부 신경과학자들, 인간의 뇌 기능을 부호화, 네트워크에 업로딩함으로써 가능함.

## Moor의 법칙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인간의 지능은 '네트워크 지능'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지능'을 지닌 인간의 탄생 가능성이 마련된다. NBIC의 융합 기술과 G. 무어의 법칙 이른바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의 기하급수적 확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 대한 오해와 비판은 G. 베리(G. Berry)의 저술, 인텔의 공동 창시자 고든 무어는 "표면의 단위 당 트랜지스터의 수는, 확정지을 수 없는 시간 동안, 2년마다 두배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 G. 베리에 따르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처리능력의 무한한 증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기술적 경제적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 무어의 법칙은 느려질 것으로 보았다. 파워와 속도를 향한 무한한 질주보다도 기술의 진보가 지연되고 미래에는 장애물이 축적될 것.

## 사이버네틱스와 포스트휴먼

- 사이버네틱스와 뇌신경과학,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적 결합으로 인해 트랜스/포스트휴먼의 논의가 가능해짐.
- 포스트휴먼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집힌 캐서린 헤일즈(K. N. Hayles)는 주저 [How We became Posthuman]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 제시.

## 사이버네틱스와 포스트휴먼

- 인간의 정신과 몸, 뇌와 신체를 과학 기능주의적, 컴퓨터 공학적으로 환원주의
- 대표적인 경우: 한스 모라벡, 레이 커즈웨일, 로랑 알렉상드르, N. K. 헤일즈, 도나 헤러웨이 등.
- 급진적 트랜스/포스트휴머니스틱인 레이 커즈웨일은 '싱글레리티' 개념을 통해 인간 정신과 의식이 생물학적 몸의 육화(Embodiment)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 캐서린 N. 헤일즈는 포스트휴먼 개념을 통해 인간 몸의 육화(Embodiment)와 사이버네틱스 지성(Cybernetic Intelligenece)의 자연스런 결합을 주장.
- 도나 헤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 What is posthuman?

- What is posthuman? (...) First, the posthuman view privileges informational pattern over material instantiation, so that embodiment in a biological substrate is seen as an accident of history rather than an inevitability of life,
- Second, the posthuman view considers consciousness, regarded as the seat of human identity in the Western tradition long before Descartes thought he was a mind thinking, as an epiphenomenon, as an evolutionary upstart trying to claim that it is the whole show when in actuality it is only a minor sideshow.

## What is posthuman?

- Third, the posthuman view thinks of the body as the original prosthesis we all learn to manipulate, so that extending or replacing the body with other prosthesis becomes a continuation of a process that began before we were born.
- Fourth, and most important, by these and other means, the posthuman view configures human being so that it can be seamlessly articulated with intelligent machines.

## What is posthuman?

- In the posthuman, there are no essential differences or absolute demarcations between bodily existence and computer simulation, cybernetic mechanism and biological organism, robot teleology and human goals.

## 포스트휴먼, 휴먼과의 결별? 휴먼이란 무엇인가?

- 위너의 '인간존재의 인간적 사용'의 함의가 갖는 패러독스이고, 동시에 '휴먼'에 관한 그의 재정의가 이른바 '포스트-휴먼'으로 넘어가는 맥락과 지평을 구성.
- 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는 인간 정신의 정보화와 부호화한 인간 정신의 전송 가능성에서 발견된다.
- 인간(휴먼)이란 무엇인가?
- 인문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숙성된 인간, 즉 내면을 지닌 인간과 크게 관계없는 새로운 인간, 예컨대 수학적 기계적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 출현을 예고.

## 사비버네틱스 분석적 비판: Paul Weiss

- N. 위너 등 정보 환원주의 비판. Hixon Conference..
- *Dynamics of Development: Experiments and Inferences*, Academic Press, NY, 1968.
- Frequently cited by Isabelle Stinger & Ilya Prigogine (Noble Price Laureate of Chemistry).

## 정신(과 마음)의 기계화

### The Mechanization of the Mind

- NBIC 기술 융합으로 정신의 기계화 새로운 이슈로 부상.
- 1940년 인지과학 정립 당시 생물학, 현상학, 인간 과학, 사회과학과의 소통과 대화 결여. 결국 기계의 인간화(Antropo-morphization)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기계화(Mechanization)의 길을 선택하다.
- 오늘날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은 인지과학을 단지 사이보그, 사이버컬쳐에 매몰시키고 있다. 사이버네틱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인지과학은 지적 철학적 인문학적 차원을 상실한다.

## 사이버네틱스 기계-인간 비판

- 장 피에르 뒤피(Jean-Pierre Dupuy)는 이런 현상을 '정신의 기계화'(The Mechanization of the Mind)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고 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가 기계를 닮아갈 위험을 경고.
-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정신의 기계화("The aim of cognitive science always was – and still is today – the mechanization of the mind not the humanization of the machine." 프랑스 인지과학의 구루 J. P. 뒤피)



## 인간 정신의 기계화와 데카르트

- “인공지능이란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계의 인간화(l’anthropomorphisation), 기계의 인간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간 자체가 기계가 되는 현상.”
- 인공지능의 구극적 지점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고안하는 일이다. 인간을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보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 제 6장(Notions générale concernant la physique)에서 논변하는 바이다.

## NBIC 기술 융합과 인간 완벽가능성

- NBIC 기술 융합은 인간 ‘처럼’이 아니라 실제로(really) 인간이 기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계몽주의자 콩도르세가 꿈꾸었던 인간 완벽가능성을 구현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 인간의 완벽가능성이란 지칠 줄 모르는 신체적 역능, 무한대의 기억능력, 병들지 않는 몸을 구현 가능성.
- 인간의 유한성, 진화의 오류, 삶의 우연성을 배제.
-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몸에 ‘거주’(habiter le corps)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대체.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수준은 인간-기계의 혼용, 혼종화의 단계에 와있지 않다.)

## 우연성, 정보의 의미생성조건 Gilbert Simondon

- 정보의 의미는 우연성이 있어야 가능
-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MEOT) 1969, p. 189-190.

- 우리는 어느 수준의 '문지방'(Threshold)를 넘어가면 그 이후는 알 수 없다.
- Complexity in Mathematics,  
John von Neuman  
(From J.-P. Dupuy, MIT Press)

# Complexity

## John von Neuman

(From J.-P. Dupuy, MIT Press)

- It was in the course of his work on automata theory that von Neuman was to refine this notion of complexity. Treating complexity as a magnitude of a thermodynamical type, von Neuman conjectured that below a certain threshold it is degenerative, meaning that the degree of organization can only decrease, but that above this threshold an **increase in complexity** becomes possible. Now this threshold of complexity, he supposed, is also the point at which the structure of an object becomes simpler than the descriptions of its properties. (...) The autonomy of the model was bound to follow from the modeling of autonomous systems. (...)

Man would finally lose himself in the mirror (John von Neuman, From J.-P. Dupuy, MIT Press)

- At the same time, however, it was full of danger, carrying with it the risk that Man would finally lose himself in the mirror held up be a being created in his own image.

## 사이버네틱스-인공지능-휴먼

- 사이버네틱스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휴먼), 몸-살과 삶(la vie, life)은 소외 배제.
- '삶으로서의 세계' (Lebenswelt)가 부재하는 수학적 기계적 공학적인 공간에서 인간은 과연 더 이상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나.

## Body-consciousness in Neuroscience and Philosophy

- 뇌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 (Antonio Damasio)는 Homeostasis이론을 통해 몸과 정신, 의식의 분리 불가능성 주장.
-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the Perception, Eye and Mind,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

##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과 형이상학, 인간 실존

- 사이버네틱스 개념에서 배태된 인간지능의 탈물질화 과정과 이것이 함의하는 형이상학적 실존적 국면을 인문학적 기반의 학제적인 접근 필요성.
- '삶으로서의 세계' (Lebenswelt)가 부재하는 수학적 기계적 공학적인 공간에서 인간은 과연 더 이상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을까.
- 휴머니즘의 형이상학과 실존을 지우고 축출하려는 사이버네틱스 기계 인공지능 기술이 궁극적으로 - 역설적이게도 -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와 문화정체성 - 정체성협상이론(INT)을 중심으로

김영순(인하대)

###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아는 바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무엇이고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시민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드물 것이다.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서론의 영역에서 전 국민의 몇 퍼센티지가 다문화 인구이고, 이들의 증가 추이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이런 인구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다문화사회의 ‘윤리’라 할 수 있는 ‘타자 이해’, ‘다양성 존중’ 등 시민 윤리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타자 이해나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이란 이름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을 위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을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문화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다문화교육의 성과는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마다 시행되며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국제적 기준에 속하는 범주를 중심으로 조사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전인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성인은 52.81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4점이 하락해 세대 간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접촉을 경험한 이들이나 다문화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성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현시점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다문화 한국사회로의 유연한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지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다문화수용성의 결과는 다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교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타자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 필요성과 문화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을 최근 이주민 연구와 다문화사회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정체성 협상 이론(INT)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교류를 문화적응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협상에 관한 논의들을 기술할 것이다.

## 2. 다문화사회와 문화교류

문화교류는 실제 인류학적 개념으로는 문화접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일단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접변의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문화체계의 접촉으로 문화요소가 전파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말한다. 문화는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 소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문화가 접촉하여 서로의 유사성이 증가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른 문화권간의 접촉은 식민통치·전쟁·군사지배와 점령·이주·선교 활동·외교·학술 및 문화교류·방문·초청·비즈니스·여행·대중미디어 등 다원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이주학 연구 영역에서는 사회적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하위 유형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동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이동은 인적 이동은 물론 문화적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화로 인한 해당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변화는 당연한 이치이다. 문화변동은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유형과 강제적인 유형으로 구별한다. 자발적인 문화접변은 군사적·정치적 지배 관계에 있지 않은 두 문화가 상호교류를 지속할 때 문화요소들의 자유로운 차용과 수정이 일어난다. 새로운 문화요소들이 통합과정을 거쳐 현존하는 문화체계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백인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바호 인디언들의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나바호족은 18세기 에스파냐 식민주의자들과의 빈번하고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의복과 금속세공술 같은 에스파냐문화의 여러 요소를 받아들여 그들 고유의 문화 속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였다.

강제적인 문화접변의 경우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군사적·정치적으로 지배할 때 일어나는 규제된 문화변동이다. 이 유형의 성공사례는 1820년 하와이에 선교사가 들어와 원주민들에게 양복과 원피스를 누구에게나 맞는 넉넉한 크기로 만들어 입혔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와이의 ‘무무’라는 옷의 기원이 되었다. 하와이는 기후가 덥기 때문에 옷이 오히려 시원하게 해주어 현재 그 옷은 유명한 옷이 되었다. 이에 반해 실패사례는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의 자파테크족에게 이곳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 신부들이 강제로 옷을 입힌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이 지역의 기후 때문에 원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렸으며,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문신도 몸에 표시할 수가 없어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질서의 문란을 가져왔다. 이밖에 지중해 지역과 서부 유럽에 대한 로마의 정복,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백인의 정복,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지배 등 수많은 정치적 팽창과정에서 규제된 문화변동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접변은 문화변동 과정에서 야기되며, 이주학 분야에서는 문화적응으로 통용된다. 물론 깊이 따지자면 문화접변과 문화적응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와 문화 참여자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문화접변이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어느 한쪽 혹은 양쪽 집단 모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패턴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Redfield, Linton, & Kerskovits, 1936: 149). 즉,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과정을 개인적 문화적응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집단문화적응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집단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자들은 문화적응에 관한 관심을 개인보다 집단에 중점을 두었다. Linton(1940)은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개인보다 집단이라 하였다. Herskovits(1937)는 문화적 집단으로서 문화적응은 문화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고, Devereux & Loeb(1943)은 문화변화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요소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 요소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에 관심을 두었다(Simirenko, 1966; Teske & Nelson, 1974: 351). 반면에 Dohrenwend & Smith(1962)는 개인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 문화적응을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도 독창적인 개인의 현상일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Spiro(1955)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적응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Teske & Nelson(1974)는 문화적응을 개인적인 변화로 보는 것도 자명하지만, 개인 현상이나 집단 현상이냐는 학자가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접촉 상황이다. 이 상황은 최소한 두 개의 문화집단 혹은 개인이 지속해서 직접 접촉해야 성립한다. 두 개의 문화집단이 지속적인 접촉 때문에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문화변화 현상을 Graves(1967)는 집단적 현상으로서의 문화적응과 심리적 문화적응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문화적 변화는 집단의 문화화를 말하며, 후자의 경우 문화적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변화를 가리킨다. 실제로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응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화적응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상호 전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여 볼 때, 문화적응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집단현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변화는 주류사회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관습에 따라 생활이 변화되고 결국 사회적 행동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 현상으로써 심리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체성에 변화와 사회적 행동에도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Berry(1990; 1997)에 있어서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문화변용은 집단 중 하나에서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화가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관심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동화과정을 놓고 Teske & Nelson(1974)는 동화현상이 집단 또는 개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집단 현상보다는 개인의 동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집단이 문화적응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인이 공동체 변화에 참여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Berry, 1970; Furnham & Bochner, 1986; Berry, 1997: 7).

우리는 Berry(1997)의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유형을 범주화하여 문화적 변이현상의 주요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문화적응 전략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No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No	분리 (SEPA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유형의 범주를 보면, 첫째, 이주한 집단이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통합,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주류사회문화를 추구하면 동화, 주류사회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만 유지하게 되면 분리, 주류사회 문화를 유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주변화로 보았다(Berry, 1997: 10). 이와 같은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은 최근까지 이주학 연구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초국적 이주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국경과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주의 형태가 크게 이민자, 난민으로 나누어졌으며 빈부국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문화적응으로 보았다면 변화를 주도하는 현상은 개인과 집단의 현상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행동 변화는 사회적 환경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현상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정체성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 간 경계를 허물면서 협상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역사, 기원, 전통, 언어, 종교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이라고도 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지만, 그 또한 문화에 의해서 결정

이 된다(Loicq, 2012: 51). 이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민족, 언어, 역사, 사회계층, 젠더, 성적지향, 그 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험을 만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Nieto(2009)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는 역사적, 지역적, 언어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 한 집단의 사람들이 창조하고 함께 공유하며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가치와 전통, 사회·정치적 관계, 그리고 세계관이다.”(Nieto, 2009; 김영순 외 역, 2016: 185). 이처럼 문화는 사회적 공간에서 공유하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사회적 공간에서 만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문화 간 접촉으로 일어나는 문화변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문화정체성은 개인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여 주류 문화에 동화가 될 때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와 가치에 따라 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출신 문화 정체성은 새롭게 획득한 문화정체성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에 자신의 고유한 출신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선택하고 두 문화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제3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것을 TCI(Third culture individuals)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런 문화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혹은 다중문화를 서로 융합하여 자신만이 지니는 또 다른 제3의 문화를 가리킨다. TCI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적응력, 문화적 인식, 유창한 다국어, 개방성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소속감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문화는 개인의 ‘삶에 동화’가 될 수 있지만, 소속감은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이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정체성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화는 보편화와 특수화, 통합과 분리, 동일성과 차이, 병렬과 융합이 동시에 일으키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체성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잡적이며, 상호 중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 본질은 의식이며 이 또한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지속적인 동적 과정으로서 사회적 공간 변화와 함께 진화한다. 이처럼 사회적 공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은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나 정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 3. 다문화사회와 정체성 협상<sup>2)</sup>

강연자가 정체성 협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으로서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갖게된 이후이다. 강화도 현지 조사를 하면서 그곳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출신국가에서의 문화와 새로이 접한 한국문화 간의 접촉에 있어서 동화적 측면의 문화적응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주체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즉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 접한 문화에 대한 일종의 협상 과정을 겪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이주여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의 시집 식구는 물론 친지나 지역 공동체의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는 어떤 사회 집단에서 이주한 이주자는 물론 정주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함의할 수 있다.

정체성 협상은 정체성 협상 이론(Identity Negotiation Theory)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이 이론의 등장은 1980년대이지만, 정체성이 협상된다는 생각은 Goffman(1959, 1961)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Goffman의 연구는 인간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상호관계의 역할에서

2) 이 부분의 정체성 협상에 관한 논의는 김영순, 임지혜(2014), 조진경(2016), 최희(2018)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인용하였음.

실무적 합의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연구를 토대로 Weinstein & Deutschberger(1964), Mccall & Simmons(1966)는 정체성과 상호작용에서 전개되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구축하였다. 개인 대 개인의 대인관계는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규범적 상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이론의 잔여 범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협상’ 과정으로 보고 있다(Weinstein & Deutschberger, 1964: 451). 이후 정체성 협상 개념은 심리학 분야로 확대되어 Schlenker(1985)의 정체성과 자기 동일시 개념에 의해 더 구체화 되었지만, 실제로 Swann(1987)이 정체성 협상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Swann은 사회사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역학을 추적하여 정체성 협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Swann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인 Cooley(1902)와 Mead(1934)에 이론에 기대고 있다. Mead는 사회란 다양한 상징들을 조작하는 인간행위의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며,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상징적인 의미협상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Goffman(1959, 1961)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접근법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정체성 관계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Swann이 정체성 협상 용어를 도입해 INT(Identity Negotiation Theory)이론을 구체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Swann은 INT가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정체성 협상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인식이나 자아인식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Swann, 1987: 1047). 이후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는 30여 년간 이어졌고,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학자도 그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정체성 협상에서 ‘협상’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그룹이나 고유한 개인이 정체성 이미지를 동일하게 유지 혹은 향상하거나, 두 명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Ting Toomey, 2015: 1). 즉,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개인과 사회에서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상호작용할 때 개인이 지닌 정체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인종, 민족, 문화, 사회, 지역,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정체성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때 상호적인 행동변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기개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사람들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성공적인 협상과정이 진행되면 상호작용하는 동안 개인은 정체성을 정의하게 된다.

정체성 협상 개념은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위해 자각 대상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상의 인식과 자신의 자가 인식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Swann, 1987: 1038). 즉, 정체성협상 과정에서 ‘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자기 인식과 대상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타협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체성 협상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확인 및 자아검증(Self-verification) 사이에서 강조되어왔다.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자아검증을 하게 되는데, 자아검증은 자아개념을 검증할 동기부여가 되고 이 동기는 정체성 협상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자아개념 확인과정은 대체로 자아개념을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변화를 촉진하는데 실제로 사용된다(Swann, 1987: 1048). 사람들의 자아개념은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유지되어왔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개념은 견고하면서 안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아개념이 놀랍게도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wann & Hill, 1982: 59).

반면에 이후에 Ting Toomey의 INT는 1999년에 출간한 자신의『문화 간 의사소통(Communicating Across Cultures)』을 통해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Ting Toomey(2015)는 정체성 협상에서 상호문화 의사소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이문화 간의 의사소통이다. 그것은 개인주의 사회문화와 집단주의 사회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된다. 개인주의적인 문화는 자율성, 개인의 자유, 개인적 통제를 수용하며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널리 간주한다. 그

와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들의 소속감과 타인과의 관계는 그들의 정체성확인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Frenk, 2011: 19). 이 때문에 타문화 및 대인관계 의사소통 환경에서 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즉, 정체성의 형성과 정체성 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집단주의 사회문화와 개인주의 사회문화 간의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ing Toomey의 INT는 1986년에 등장한 Gudykunst(1986)의 『집단 간 의사소통(Intergroup communication)』에서 집단 간 대인관계의 논의에 기초를 두고 출발하였다. 그는 1999년에 『문화 간 의사소통(Communicating Across Cultures)』을 통해 정체성 협상 이론(INT)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문화 의사소통 과정과 마인드 프레스(mind press)의 중요한 역할이 정체성 협상의 현상으로 강조되었다. 그 후 2005년도 INT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호문화 지식, 사고력 및 상호작용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은 문화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응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민족, 종교 사회계층, 문화적 계층 등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사회에서 문화적응은 정체성 협상과 재협상이 점차적으로 사회 통합이나 분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체성 충돌은 어떤 때에 발생하게 되는가? 이주로 인해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서로가 느끼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인종, 언어, 종교 등과 같이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 환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협상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삶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협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Swann(1987)은 INT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행동 패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자아검증 모델이다. 이 모델의 기초는 개인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아 인식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자기 범주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고 상호 연결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관점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행해 행동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아를 성취하게 된다(McCall & Simmons, 1978: 52).

이러한 정체성 협상을 위한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우리는 Swann(1987)과 Ting-Toomey(2015)의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 Swann(1987)의 경우 상호작용이 개인별 특성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나 개인이 추구하는 아젠다(agenda) 그리고 삶의 과정을 담고 있는 개인의 생애사를 포함한 개인별 특성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구조요인으로서 개인이 지녔던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이 상호작용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나 상황의 특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복잡한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Ting Toomey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에서 나타나는 10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Ting-Toomey, 2015: 4). ① 상징적 대화이다. 집단정체성(민족과 문화집단)과 개인정체성(개인의 특성)의 핵심 역할은 다른 사람들과 상징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② 정체성 협상 변증법이다. 모든 문화 또는 인종 집단의 개인은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 모두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서적 안정은 민족중심주의로 나아갈 것이며, 반대로 정서적 취약성은 아웃 그룹이나 낮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 협상 변증법에는 최적의 범위가 존재한다. ③ 개인의 정체감이다. 개인은 문화적으로 친숙한 환경에서 정체성의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문화적으로 생소한 환경에서 정체성의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정체감이다. 개인은 그들이 속하

기를 원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지지받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반면, 그들이 선호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지탄받을 때에는 지탄받고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자신을)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⑤ 상호작용 예측성이다. 문화적으로 친숙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상호작용 예측 가능성을 경험하지만,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상호작용 예측 가능성은 추가 신뢰 또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호작용 예측 불가능성은 불신 또는 긍정적인 기대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⑥ 친밀한 대인관계이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며, 의미 있는 이문화 간 대인관계는 문화적 이방인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새로 만들 수 있다. ⑦ 정체성 변화 경험이다. 익숙한 문화 환경과 반복되는 문화적 일상에서 정체성의 일관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 환경에서 정체성 변화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⑧ 상황의 변동 규모이다. 문화적, 민족적, 개인적 상황의 변동 규모는 이러한 정체성 관련 주제의 의미, 해석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⑨ 정체성 협상 과정이다. 정체성 협상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상호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식이나 사고력 및 상호작용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⑩ 정체성의 협상 결과이다. 정체성의 협상 결과에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인 평가의 가치를 포함한다. ⑨와 ⑩의 과정에서 정체성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다. 이 과정은 마치 상호문화역량의 함양 과정과 흡사하며,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INT 논의에서 Swann은 정체성 협상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틀을 제공하는 반면, Ting Toomey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협상에 기술적인 측면인 의사소통 역량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 두 학자는 연구 목적과 접근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정체성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상호적 행동변화’이다. 실제로 협상은 경제적인 교환이론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이주 시대를 맞으면서 정체성 이론과 결합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있다. 즉,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이 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교류 필요성과 문화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을 정체성 협상 이론(INT)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특히 문화교류를 문화적응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협상에 관한 논의들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해당 구성원들의 문화감수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문화감수성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발생하여 이는 사회적 혐오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구성원의 정체성은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논의를 정체성 협상 이론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체성 협상 이론(INT) 논의에서 Swann과 Ting Toomey라는 학자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정체성 협상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틀을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협상에 기술적인 측면인 의사소통 역량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논의는 차이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정체성 협상에서 나타나는 ‘상호적 행동 변화’라는 점이다. 이들의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체성 협상을 통해 상호 행동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상호 행동 변화에 관해서는 상호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 등 실증적이고 현장적인 연구는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영순, 임지혜 외(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36~96.
- 조진경(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희(2018). 북한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1일차**

5.3. Fri.

**I 4차 산업혁명과 교육 분과**

주제발표 01

**고학기반의 컬포츠 문화인재양성과 MR(Mixed Reality) 활용**

이헌종(목포대)

1-1.

**'기술변혁과 인간'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이경택(서울대)

1-2.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과학' 교육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정지훈(안동대)

주제발표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송은주(건국대)

1-1.

**스마트토이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키보(KIBO)로봇을 중심으로**

양시영(고려대)

1-2.

**기술변혁과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제안**

오장근(목포대)





## 주제발표 01

고고학기반의 컬포츠 문화인재양성과 MR(Mixed Reality) 활용<sup>1)</sup>

이헌종(목포대)

## I. 머리말

고고유산 기반의 컬포츠에 대한 토론과 연구<sup>2)</sup>를 시작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가 1997년부터 이러한 고고유산을 기반으로 수행한 다양한 선사체험프로그램(PEP, Prehistoric Experience Program)과 지역의 선사체험 운영자 양성교육의 한계와 새로운 관점의 컬포츠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 콘텐츠로서의 선사문화체험은 실제적인 실험고고학의 연구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선사시대의 아이템(PI, Prehistoric Item) 중 하나인 사냥에 관한 실험 결과를 체험프로그램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치밀한 고고학적 관찰과 체계적인 실험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박물관과 발굴전담기관들은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각 프로그램들마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집약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컬포츠(culports)'이다. 컬포츠는 각 지역별 유산(properties)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요구 충족과 더불어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를 포괄하여 지역의 문화인재들을 일찍 교육하여 지역문화 기획 전문가로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컬포츠는 앞으로 레포츠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발표는 그 동안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주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컬포츠의 주제들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MR을 활용할 가능성에 관해 간단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 1) 본 발표문은 이헌종, 2017.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제주문화유산에의 적용가능성」, 『제주 역사문화 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8-45쪽 내용의 일부를 전재하였다. 이 논문에는 고고학기반의 컬포츠에 대한 개념과 문화인재양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 2) 이헌종·김선영·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학과 역사문화자원 활용』,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역사문화학회 공동학술회의.
- 이헌종, 김선영, 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 II. 컬포츠의 의미와 고고학의 주제들

### 1. 고고학 기반의 컬포츠

컬포츠(culports)는 culture와 sports를 융합한 단어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leisure와 sports를 융합하여 레저스포츠 혹은 레포츠라고 쓰는 것과 유사하다. 컬포츠는 그 용어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방대한 컬포츠 중 물질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여러 스포츠적 요소를 융합하여 기존의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컬포츠는 고고학을 대중화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한 형태이다.

선사고고학을 컬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그 유형은 계속 개발되고 더 나아가 세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와 연결하여 개발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 스포츠는 육상, 체조, 수영, 구기, 투기 등 다양한데 각 종목의 태동을 검토하면 전쟁, 종교, 문화, 예술 등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부분의 스포츠사회학자들은 스포츠는 공식적이고 조직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여러 형태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말한다. Coakley는 스포츠를 '잘 확립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통제된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며, 그 참가자들은 내적, 외적 보상의 의해 동기화된다'고 정의하였다<sup>3)</sup>.

고고학기반의 컬포츠는 다양한 고고문화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선사시대 사람들의 일상 생활문화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복원하고 이를 교육으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sup>4)</sup>.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과거 PEP에서 축제식 체험 위주에서 교육적 체계를 기반한 체험을 지향한다. 본질적으로 PEP는 신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경쟁적인 신체활동과 지적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스포츠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게 내적, 외적 보상을 추구하여 인류문화에 점철된 문화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이를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할 수 있다. 사실 선사시대의 삶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복원된 고고학 문화의 대부분이 '놀이'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스포츠의 오락적 기능과 맞닿아 있다. 컬포츠는 선사시대의 신비함과 그 신비한 활동을 통해 이런 오락적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운영체계의 깊이에 따라 스포츠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선사시대 문화의 대부분은 사실 대중문화를 많이 포괄하고 있다. 스포츠 역시 대중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고 대중문화에서 겪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세대, 계급, 성별, 지역 등에 부딪히면서 갈등과 대립, 혹은 공생하는 것처럼 스포츠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산물인 것이다<sup>5)</sup>. 그런 면에서 선사시대 문화와 스포츠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컬포츠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선사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다차원의 학문 분야와 연계된 수많은 유형으로 융복합하여 개발될 것이며, 개발된 유형들은 점차 스포츠의 기능을 포함한 엄밀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규칙을 통해 교육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문학의 통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선사 체험 프로그램에서 다를 수 없었던 합리성과 체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임수원 2010, 「스포츠문화의 사회학적 이해」, 『스포츠 문화의 이해』, 경북대학교출판부.

4) 현재 국내에서는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을 위한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고학과 매우 밀접한 친연관계에 있는 박물관은 유물자료를 통한 대중교육과 자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곽권희 2003, 김동진 2008, 김미애 2009, 김재경 2008, 송현정 2010, 여중철 2006, 이영신 2009, 한상우 2004).

5) 이혁기 2010,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 문화의 이해』, 경북대학교출판부.

## 2. 키포츠의 주제들

PEP(선사체험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체험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구축했기 때문에 생활체험, 사냥체험, 제작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고학체험은 이 체험형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사적으로 보면 유형을 구분할 때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하고 고고학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고학에서의 다양한 키포츠 유형 중 크게 1) 사냥유형 2) 어로유형 3) 주거생활유형 등 세 가지 유형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의 기반은 모두 고고학적 문화복원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대중고고학과 실험고고학분야의 접목을 통한 교육, 놀이,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창출하여 키포츠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EP와의 접목을 통해 문화, 스포츠, 교육, 역사, 학습, 체험, 힐링, 나아가 관광과 축제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주에서 다양한 새로운 주제들을 찾을 수 있는데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냥유형, 어로유형, 주거유형 등과 같은 범주에서 도구제작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고고학 실험과 활용이라는 메커니즘 외에도 그 유형의 여러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키포츠 연구를 위해 2016년 하반기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생들과 새로운 주제를 찾아보았다. 그 주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키포츠를 통한 구석기시대 접합석기 퍼즐의 교육적 활용

접합석기 퍼즐은 접합석기와 퍼즐의 합성어이다. 접합석기 퍼즐에 있어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기법은 직·간접 타격을 통한 제작이 석기제작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마제석기와는 달리 타제석기의 경우 타격이 되는 모체 즉 원석에서 떨어진 격지 및 조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주변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석기제작을 통해 흩어진 유물들이 유적 내에서 서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석기를 접합석기라 한다. 이처럼 접합석기의 연구는 몸돌의 떼기가 베풀어진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석기제작 기술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이 유추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접합석기의 연구를 통해 일련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인류의 다양한 사고의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재생과정 및 인지체계의 전환과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접합석기가 확인되는 석기제작소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인류의 특성을 밝혀주는 인자들을 담고 있는 유전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퍼즐(Puzzle)<sup>7)</sup>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는 학문적인 것보다 놀이로 풀어보는 ‘수수께끼’ 전반을 가리킨다. 종류로는 숫자퍼즐, 도형퍼즐, 계측퍼즐, 퍼즐게임등이 있다. 퍼즐의 교육적 효과 중 가장 큰 것은 인지발달효과<sup>8)</sup>이다.

실험고고학을 통해 직접 접합석기 재현하고, 이를 퍼즐로 제작(그림 2)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작된 접합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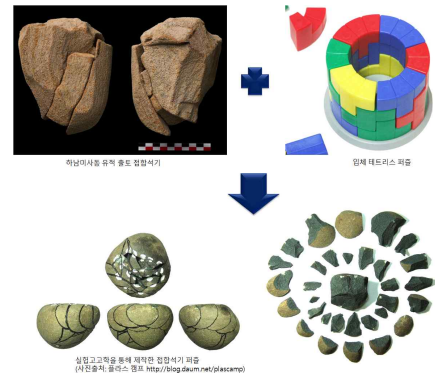


그림 1 접합석기 퍼즐의 제작단계

6) 이현중·장대훈, 2010,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현생인류의 석기제작 복합인지체계 연구-정장리유적 접합석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67, 한국상고사학회.

7) 퍼즐(Puzzle)은 스포츠-레저-게임 및 오락으로 분류된다(두산백과).

8) 김윤화, 2005,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한 조각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아동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최지은, 2014,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퍼즐활용 교육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정보영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퍼즐<sup>9)</sup>을 이용하여 컬포츠 프로그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할 경우 난이도에 따라 짝개 퍼즐, 주먹도끼 퍼즐, 돌날몸돌 퍼즐로 구성할 수 있다. 연령별 난이도별로 나누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2) 컬포츠를 활용한 청동기인의 장례3종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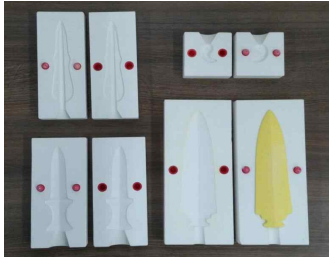


그림 2 거꾸집을 이용한 꺼문 거리 제작



그림 3 제례의식 행사



그림 4 모형틀을 이용한 고인돌의 축조

청동기시대 장례문화를 바탕으로 철인3종경기의 경기방식을 접목하여 컬포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철인 3종 경기는 한사람이 하루 동안 수영·사이클·마라톤 세 종목을 잇달아서 하는 경기이다. 아주 강한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경기이다. 올림픽 코스(표준 코스)는 1.5km의 수영, 40km의 사이클, 10km의 마라톤 순서로 진행된다. 철인3종경기가 각기 다른 수준의 코스로 나누어지듯이, 장례 3종경기의 활용대상도 성인부터 영아까지 다양한 수준의 그룹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장례문화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지석묘를 이용하여 장례 3종경기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동기인 장례3종 경기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꺼문거리 제작, 두 번째 고인돌 축조, 세 번째 제례의식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꺼문거리 제작에는 무덤인 고인돌의 축조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며, 무기류, 토기류, 장신구류 등을 제작하여 부장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인돌의 구성요소는 덮개돌과 받침돌, 무덤방의 3요소가 기본축을 이룬다. 고인돌의 형식으로는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0)</sup>. 축조 경기에는 다양한 형태와 형식에 맞추어 난이도와 점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크기에 따라 체험연령도 설정할 수 있다. 이후 제례의식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게 된다.

(3) 기와를 통한 컬포츠 활용 연구 -기와지붕 만들기

기와는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서 눈과 빗물의 누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의 결구하고 있는 목재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sup>11)</sup>.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기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와들은 그 종류가 20여종이 넘는다. 이러한 기와를 이용한 즉 고고학자료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화는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Jr.FLL·FLL·FTC)<sup>12)</sup>의 규칙을 적용하여 컬포츠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문화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유산을 창조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활

9) 다음과 같은 체험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1)대중성(유물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2)전문성(유물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할 포함), 3)자율성(학습자가 유물에 스스로 몰입하여 흥미를 가지고 유물을 관찰, 탐구하게 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0)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11) 황의수 1989, 『조선 기와』, 대원사

12) 7세~18세 사이의 아이와 청소년이 1) 움직이는 부품과 간단한 기계장치를 이용한 모형만들기, 2) 팀의 연구결과, 팀(팀원) 및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포스터 만들기로 구성된다.(<http://www.fest.or.kr/>. 창의공학교육협회)

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는 기와의 특징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지붕만들기를 통하여 단계별 설정이 가능하다. 1단계 맞배 지붕만들기에서는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맞배지붕을 평기와와 막새만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기와의 규격 중에서 대와크기로 제작한다.

2단계 우진각지붕만들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사용되는 기와의 종류는 평기와, 막새, 서까래 기와를 사용하며, 기와의 규격은 실사용 중와크기로 제작한다.

3단계 팔작지붕만들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사용되는 기와의 종류는 평기와, 막새, 서까래 기와, 마루기와 등으로 기와의 다양한 종류가 모두 사용된다. 기와의 규격은 실사용 소와크기로 제작하고자 한다. 팔작지붕은 용마루, 추녀마루, 내림마루를 모두 제작하며, 하부구조도 총 4단계를 거쳐 100이상으로 제공되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옥을 짓도록 한다.

#### (4) ‘마한馬韓’콘텐츠를 통한 컬포트 활용 연구 - 보드게임 소재를 중심으로

‘마한’에 대한 역사적·고고학적 콘텐츠는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역사콘텐츠가 갖는 교육적 의의가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무대의 스케일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 보드게임<sup>14)</sup>(board game, 말판놀이)이라 생각된다. 보드게임과 접목시킨다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마한’의 역사를 접하게 될 것이다. 다만 보드게임에도 종류와 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한과 관련한 역사적 콘텐츠를 보드게임 종류인 블루마블에 접목하여 ‘마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보드게임의 필수요소인, 스토리뱅크의 구성, 고고 콘텐츠구성, 보조 콘텐츠 구성등을 통하여 보드게임의 구성요소의 기본조건을 갖춘다<sup>15)</sup>. 이와같은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1) 보드게임이 가진 오락성에 교육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단순한 규칙을 통해 게임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한’과 관련되는 각종 콘텐츠들은 스토리텔링이 용이함과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보드게임 뿐 만 아니라 다른 컬포트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한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은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시켜 검토한다면 대중성 역시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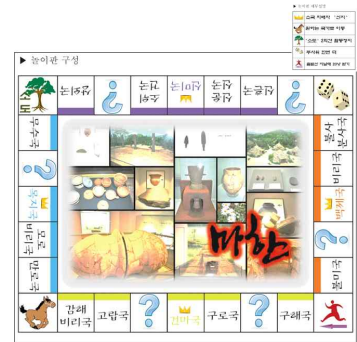


그림 5 마한 보드게임 기본안

#### (5) 주거지 축조를 통한 컬포트 활용 -제주도 송국리 문화단계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청동기시대 물질문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이다. 그리고 한반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역 단위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주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제약하는 장애로 작용한다<sup>16)</sup>. 이러한 제주도의 환경 요인들은 고고자료의 변화양상과 지속성이 한반도와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sup>17)</sup>. 송국리식 주거지 축조를 콘텐츠

13) 신경숙 2014, 『고고학자료를 활용한 교육콘텐츠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보드게임은 놀이판 및 간단한 물리적인 도구로 진행되는 놀이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게임에 비교해서 오프라인 게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놀이판 및 종이 등으로 구성된 놀이 딱지(흔히 카드)와 연필, 놀이패(토큰(token)), 주사위 등으로 구성된 게임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카드게임 등을 포함한다.

15) 임수진 외, 2005, 「교육용 보드게임 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어린이 미디어연구』제 4권.

16)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7) 이청규, 2009, 「제주도 상고사회의 한반도와와의 해상교류」,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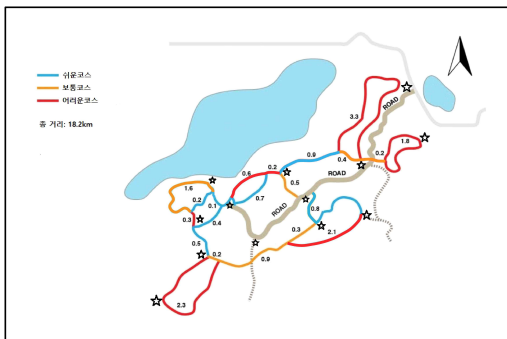
화하여 제주도 선사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컬포츠의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축조에 포함된 목재 가공 기술, 기둥, 보, 도리의 설치 및 결구 방법, 지붕을 이영으로 포장하는 건축적 기술은 실험고고학과 전통가옥을 건축 기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지 축조에 따른 컬포츠는 스포츠와 같이 운동 경기와 같은 육체적인 경쟁이 아닌 기능 올림픽과 같은 기술적인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현재 박물관이나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서 주거지를 축조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나무를 잘라 대충의 형태를 만들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체험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연령별 수준별로 맞추어 팀별 경기로 규정하고 조립이 가능하도록 주거지 축조를 위한 재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보자들의 경우 발굴과 연계하여 이미 형태를 모두 갖춘 주거지를 찾게 하고, 수혈과 기둥구멍에 이미 준비된 나무를 끼워 집을 완성하게 하는 단순 한 경기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복잡 한 수준의 경우는 선사시대 주거지의 설계도를 제시하고 직접 협업을 통해 주거지를 축조하는 단계까지 고고학 지식의 수준을 높여 이를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 축조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성에는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수행과제 및 평가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초·중·고급으로 난이도와 단계에 따른 평가기준이 정해진다. 컬포츠를 실시하기 위한 요인과도 동일하다고 한다면 1)자원과 2)학생(참여자)은 이미 갖추어졌으며 참여자의 연령별, 수준별 단계를 주거지의 축조과정에 맞게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3)경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6) 선사체험 하이킹을 통한 컬포츠의 문화교육적 활용<sup>18)</sup>**



선사체험 하이킹 이동루트의 예시(☆: 문제해결에 따른 단계 이동 선택 장소)

선사시대의 하루의 일상을 일정한 경유지를 만들어 그 과정에서 팀별로 경쟁하며 선사시대의 삶을 배우는 컬포츠 프로그램이다. 우선 각 경유지에 석기를 비롯한 도구를 제작하는 단계, 사냥하는 단계, 베이스 캠프에서 생활하는 단계, 풍요를 기원하며 암각화를 그리는 단계, 식사와 축제를 하는 단계 등을 설치하고 여러 단계의 경유지를 출발지와 목적지로 선택적으로 정하여 쉬운 코스부터 어려운 코스까지 적절히 안내하여 그 루트를 완주하는 형태의 컬포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정된 코스를 완주하면서 각각의 목표(소기의 목적)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체크하고 각 코스별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등 선사시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따른 생존전략 등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는 수렵채집민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선사시대에 살았던 선사인이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생활양식의 전반적인 이해를 몸소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 하이킹이 기존의 PEP와 다른 점은 컬포츠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일련의 주어진 목적을 참여자 스스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체득적 행위는 결국 사고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사체험과 하이킹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PEP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고고학적 문화 지식 및 인문학적 소양을 매우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최석진, 김인호, 남효창, 박선미, 심현민, 이소영, 2001,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환경교육학회.  
 Kelly, R.L., 1983, Hunter-Gatherer Mobility Strategie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9.  
 Kuhn, S.L., 1995, Mousterian Lithic Technolog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rry, W.J. and Kelly, R.L., 1987, Expedient core technology and sedentism, In The Organization of Core Technology,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앞으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각 지역별 고고유산의 특성에 따라 시대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주제들은 고고문화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Ⅲ. 컬포츠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인재양성 교육과 인재의 지속가능성

고고학을 통한 컬포츠의 궁극적인 목적은 놀이를 넘어 스포츠의 엄밀성이 포함된 경기의 수준으로 까지 끌어 올려 체험자들에게 고고학의 신비함과 인문학적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문화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사냥유형, 어로유형, 주거생활유형과 여러 주제 등 여러 유형 및 주제 학습을 통해 실제로 자연에서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과거의 원시성을 경험하는 자연친화적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실제로 고고학에는 이런 유형 이외에 각 시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와 연령별 혹은 수준별 교육을 수행하는데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PEP의 목적이 선사주제를 가지고 체험을 통한 놀이와 학습의 조화였다면 컬포츠는 문화인재양성교육과 문화유산 지속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컬포츠의 활성화는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체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의 경관과 자원을 컬포츠의 통해 문화적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하는 문화유산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PEP는 축제의 성격<sup>19)</sup>이 강하여 짧은 시간에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그 동안 PEP가 고고학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화와 교육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고고유산 기반의 컬포츠를 통한 문화교육은 각 지역의 문화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PEP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지향하기 때문에 연령별, 수준별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들을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컬포츠는 학교 방과 후 과정, 동아리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원, 발굴전문기관, 대학 박물관, 지역박물관 등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을 갖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컬포츠는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가 이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화생태교육을 지향한다. 생태교육의 한계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다양한 문화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인류는 늘 접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 생존력을 높였고 그 생존과정에서 남겨놓은 것의 총체가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며 생존할 것인지 환경의 다양성과 규칙성 등 보편성 뿐 아니라 특수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문화환경(cultural environment)으로 대별되며, 이 두 환경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 문화생태교육인 것이다. 고고학의 다양한 물질문화는 문화생태적 행동 양식의 산물이다.

둘째, 컬포츠는 반편견사회를 지향하며,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난 모든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기초로 세대 간, 계층 간, 장애 여부에 대한 경계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현된 토착지식을 기반한 문화생태교육을 체계화하고, 그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역민들과 함께 컬포츠를 수행할 때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9)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사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사축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는 연천 전곡리구석기 문화축제, 서울 강동(암사동)선사문화축제, 공주 석장리구석기문화축제, 인천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등이 있다.

사실 고고학 현장에서 만나는 물질문화 역시 선사시대인들의 적응과정의 산물이며, 곧 그것이 토착지식이다. 따라서 각 시대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지 연구를 통한 관찰과 현장에서 발굴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생성된 것들이 주된 교육자료이다.

그러므로 컬포츠 교육의 주요 대상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특히 지역문화를 이끌 다음 세대의 문화인재는 1차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될 것이다.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는 이러한 경관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고고학자가 관찰하는 것 보다 더 세밀한 문화적 특질들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지역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조사를 통한 새로운 관찰과 내용은 지역의 고고학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보다 풍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IV. 컬포츠에서의 MR활용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MR(Mixed Reality)<sup>20)</sup>는 현실 세계(re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가 혼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혼합 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혼합 현실은 완전 가상 세계(가상 현실, Virtual Reality)가 아닌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풍부한 체험을 제공한다. 일기 예보나 뉴스 전달을 위한 방송국 가상 스튜디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안경(스마트글래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지도 정보, 항공기 가상 훈련,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거울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영상<sup>21)</sup>은 별도의 안경도, 장비도 없이 증강현실(AR)의 현실감 + 가상현실(VR)의 몰입도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현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증강현실(AR)의 장점과, 장비를 통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몰입감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현실(MR)은 우리 일상의 대표적인 기기인 핸드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립가공, 검사, 의료, 자동차 및 로봇 산업 부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MR 기술을 활용해 해안가 지역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지진이 일어날 경우 건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 이를 실제 학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들어 혼합 현실 기반 이러닝 시스템(Mixed Reality Based e-learning System)의 개발이 한창이다. 이는 혼합 현실(Mixed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혼합 현실은 실제 세계에 컴퓨터 그래픽스(CG)로 구성된 가상 세계를 결합하여 보여 줌으로써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술로, 학습 교재를 사용하는 교실의 학습 환경을 실제 세계로 보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가상 현실로 제공하여 실제감과 몰입감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고고학 기반의 체험 학습들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컬포츠 교육을 수행하고 또한 다양한 MR 컬포츠 게임을 구축하여 엄밀한 준거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IT기술은 5G기술과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 시간대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 MR 컬포츠게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속의 의미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이 MR 컬포츠게임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 그 시설을 구축할 수 있으며, 컬포츠 문화인재양성교육 특성화학교를 지정하거나 컬포츠를 수행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이 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된 후에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1년에 1회 컬포츠올림픽대회를 개최하여

20) TTA정보통신용어사전 참조

21)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xlovekjb&logNo=221430814705>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작성자 남산과동산



문화인재양성교육의 경연장으로 하는 것과 연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이 대회를 위한 온라인기반의 지역대회도 구축할 수 있다<sup>22)</sup>.

## V. 맺음말

앞으로 레저스포츠는 급격하게 컬처스포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컬포츠가 단순한 체험 위주의 스포츠로부터 인류 본연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컬포츠는 새로운 유형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sup>23)</sup>형 프로젝트이다. 그 이념은 문화생태교육과 반편견사회를 지향하며 단순한 육체적인 유희를 벗어나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창조적 발상, 협업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한다. 컬포츠 프로젝트는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고 서열화를 지양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의 품위를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문화인재양성교육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고고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학과 공학, 예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대가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네트워크된 체계를 활용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이 구조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시 관광자원으로 재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글로벌문화인재양성교육으로 확대되어 로컬을 글로벌화 하는 기회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실내에서 MR체험공간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화인재양성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MR체험공간은 다음 세대의 문화를 이끌고 갈 문화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 학교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닐 대중들을 위해 국립박물관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어렵게만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교육을 현대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의 우리나라와 세계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견인할 문화인재로 양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2)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담론이 자율과 자치이며, 서열화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실혁명’이 제안되고 있다. 당연히 교실혁명은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입식교육으로 일관된 한국 교육의 대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도의 교육체계를 기반한 점진적인 세대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컬포츠는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체현하는 교육도구이며, 교실혁명을 주도하는 공교육의 한 방법론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갖추어야 할 비판적 사고(critical skill), 창조적 발상(creative thinking), 협업능력(interpersonal skill)을 고도화 하는 연습이 컬포츠의 수준별 연령별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3) 호이징아 지음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 발표 1-1

## ‘기술변혁과 인간’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

이경택(서울대)

## I. 이끄는 말

2016년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선포’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각 학문분야에서도 핵심과제가 된 듯하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교육개혁의 패러다임’, ‘교육과정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육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변화’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한 방향으로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개편에 있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실에 대한 논의 가운데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무엇이 인재가 가져야 하는 핵심역량인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가올 변화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교육 분야가 직면한 핵심적인 과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기존 교과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과 능력을 넘어서 전혀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며, 이는 지식차원의 교육내용 수준을 넘어 미래사회의 인재상이 추구하는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계획의 수립으로 대변된다(WEF, 2016: 20; 신현석, 정용주, 2017: 138).

교육과정은 흔히 “가르침과 배움이 행해지는 기본 틀”(Westphalen 1985: 7)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통로로 이해된다. 즉, 교육과정은 국가가 채택한 이념, 사회적 변화, 시대적 요구 및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이론 등을 수용하여, 교과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 교과목의 시대적 위상을 결정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권오현 2005: 1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은 그 어원을 라틴어 ‘currere’에 기원을 두고 있다. currere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경주에서 달려가야 할 정해진 길로, 다른 하나는 달리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Pinar(1975)는 교육과정을 달리는 과정이라는 동사적 의미에 주목을 하면서, 과거에는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론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단지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문제에만 집중해 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교육은 본디 인간 존재가 지니는 가능성과 관심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교육체제의 수립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보다 인간자체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참조: 김대현, 2017: 30).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 방향과는 달리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관점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역량은 우수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는데(Klemp, 1980; Corbin,

1993 참조), 내적 특성은 다양한 직무상황에서 지속되는 개인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준거가 될 수 있다. 즉, 역량은 우수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준거가 된다는 것이다(Spencer & Spencer, 2007: 19 참조). 한편,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특정 직무의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함양의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현영섭 외, 2008 참조). 이러한 인간 중심적 관점은 기업에서 인간 스스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참조: Drucker, 1954).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첫째,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비가시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으며, 둘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목표를 세움으로써 교육이 본래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역량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측정의 어려움이 있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핵심역량기반 ‘기술변혁과 인간’교과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설계 및 방법을 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II. ‘기술변혁과 인간’교과 교육과정개발

### 1.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모형

교육과정의 개발절차와 개발체제는 교육과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의 최적화된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타당성 문제와 교육과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은, 어떠한 절차적 틀과 과정, 즉 어떠한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의해 수행되느냐에 따라 그 특성과 강조점이 상이하게 나타난다.<sup>1)</sup>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교육학 영역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Tyler(1949)의 ‘합리적 모형 Curriculum-Rationale’과 Walker(1971)의 ‘자연주의적 모형 Naturalistisches Modell der Curriculumentwicklung’ 그리고 독일어권에서의 Zimmermann(2001)의 ‘5단계 모형 Fünf-Phasen der Curriculumentwicklung’이 대표적이다.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델로, “그는 1949년 발간된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Nunan 1988: 11 참조)고 주장하였다.

- “- 학교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학습경험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선정된 학습경험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 학습경험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sup>2)</sup>

Tyler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위의 네 가지 질문은 각각 ‘학습목표의 선정 Auswahl von Lernzielen’, ‘학습경험의 선정 Auswahl und Zusammenstellung passender Lernerfahrungen’, ‘학습경험

1) 이미 Tyler(1949), Walker(1971), Zimmermann(2001)을 비롯하여 Taba(1962), Wheeler(1967), Nicholls & Nicholls(1976)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이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관한 이론을 창안하였고,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이름도 서로 다르게 명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이에 대한 개발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2) - Welche pädagogischen Zwecke soll die Schule anstreben?  
 - Wie können Lernerfahrungen ausgewählt werden, die zum Erreichen dieser Lernziele nützlich sind?  
 - Wie werden Lernerfahrungen für wirksamen Unterricht organisiert?  
 - Wie kann die Wirksamkeit von Lernerfahrungen beurteilt werden? (Nunan 1988: 11)“

조직 Organisation der Lernerfahrungen’, ‘평가 Evaluation’의 항목으로 연결되고(Tyler 1949: 90-96 참조), 이 항목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계열적으로 조직되어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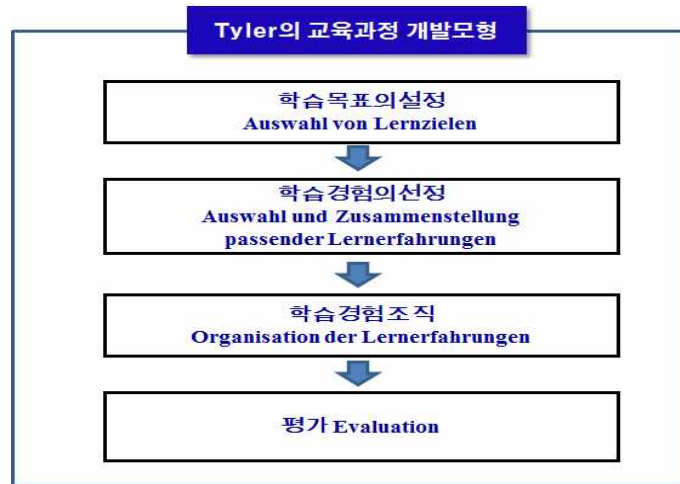


그림 1: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어떤 교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단순한 모형구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연속성과 실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합적인 사항들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발과정은 목표설정에서 평가에 이르는 직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순환적, 역동적 과정이기 때문에(김재춘 2002: 79 참조),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설계 논리일지는 몰라도, 교육과정 개발자체에 관한 논리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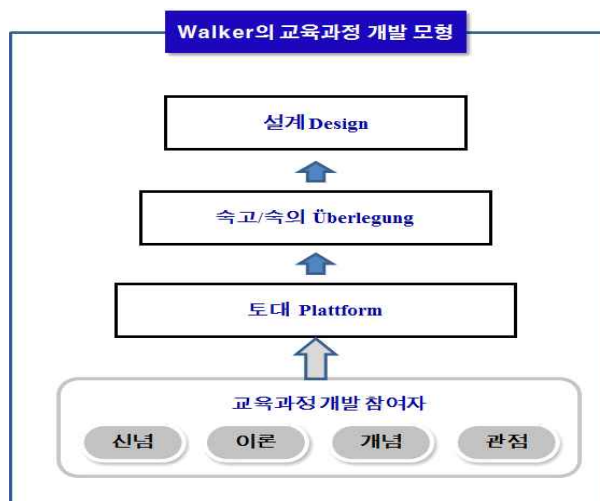


그림 2: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

Walker(1971)는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참조하는 동시에 Tyler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연구 단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정과 같은 상호 작용의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토대 Plattform’ - ‘숙고/숙의 Überlegung’ - ‘설계

Design'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 자연주의적 모형<sup>3)</sup>을 제시하였다(Walker 1971: 51 참조).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은 '토대'의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 단계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가 교육과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과 가치체계를 가리킨다(권낙원 등 2014: 131 참조).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참여자가 지니고 있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평가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의 시간편제, 교육정책적 인식 등이 모두 이 단계에 포함된다. 이후로는 교육과정 개발참여자들간에 자신들의 가치체계를 서로 토의하는 동시에 대안을 탐색하는 '숙고/숙의'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 숙고/숙의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고 타당한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산출된 결론 중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홍후조 2003: 254 참조).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숙고/숙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대안들을 계획된 교육과정의 개정원칙에 따라 적용하여 교육과정 문서를 작성하는 '설계' 단계로 마무리된다.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교육과정 구성항목을 다루는 교육과정 내용 연구단거나 교육과정의 적용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Zimmermann(2001)은 이 다섯 단계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Zimmermann 2001: 135f 참조).

단계	과정	내용
1	숙고 Reflexion	기초연구 Grundsatzarbeit
2	구성 Konstruktion	교육과정 초안 작성 Bearbeitung der Curriculumentwürfe
3	평가 Evaluation	교육과정 초안 심사 Überprüfung der Curriculumentwürfe
4	실행 Implementation	교육과정 시행 및 법적효력발생 Inkraftsetzen des Curriculums
5	검토 및 개정 Revision	새 교육과정 개정 Neue Curriculumentwicklung

표 1: Zimmermann의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 (Zimmermann 2001: 135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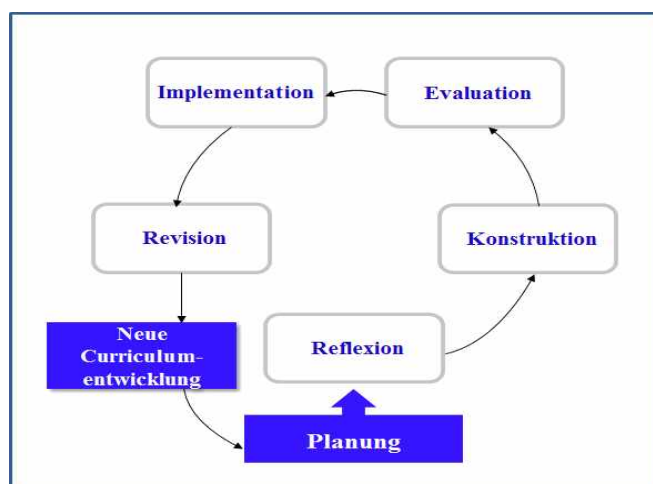


그림 3: Zimmermann의 교육과정 개발의 순환과정(Lee 2015: 21)

3) Walker는 자신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이 실제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자연주의적 모형'이라 명명하였다. (Walker 1971: 51 참조)

Zimmermann이 정리한 교육과정 개발과정은 지난 교육과정의 검토 및 계획된 교육과정의 기초연구부터 교육과정의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것으로, 이 개발모형은 무엇보다 각 단계의 시간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2015: 21 참조). Lee(2015)는 Zimmermann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순환적, 연속적 모형으로 도식화 하였다.

Zimmermann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현재 한국에서의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개발절차에 가장 근접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Zimmermann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바탕으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발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를 수행하는 주체와 세부적인 단계별 내용이 추가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술변혁과 인간’교과 교육과정개발의 설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변혁과 인간’교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이론 연구 부분과 경험연구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내용에 따라 연구방법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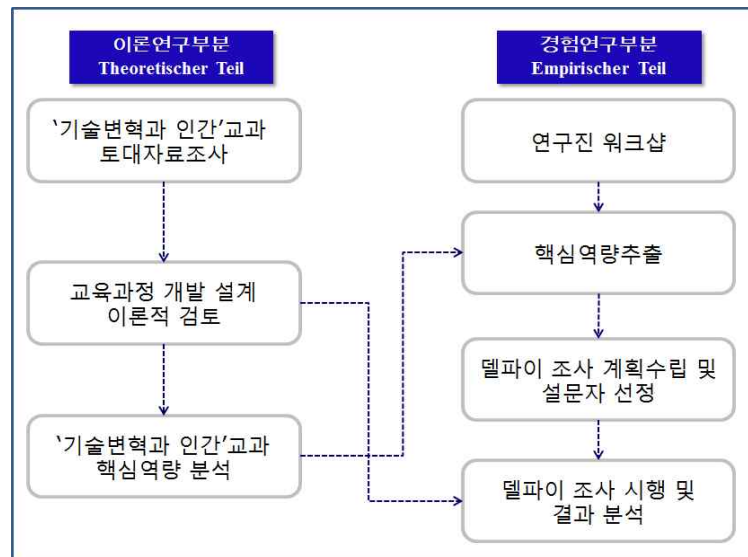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수행 흐름도

이론 연구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내제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술변혁과 인간’교육과정 개발의 토대 자료들을 검토한다. Westphalen(1985: 25-29 참조)은 교육과정의 일반적 기능으로서 ‘계획수립 Planung’, ‘조절 Steuerung’, ‘최적화 Optimierung’, ‘성취도통제 Erfolgskontrolle’를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점과 내용 및 내용의 전달방법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교육 주체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이들을 미리 대비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의 진행과 결과가 국가 정책적 의도에 부합하도록 공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교육의 결과를 공인된 장치(예: 평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학습내용과 방식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통제하며, 전체적으로 교육행위의 최적화가 달성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은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교육정책상의 강령을 구체화하는 것, 교사의 교수 행위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천하는 것, 교사의 수업조직을 도와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Westphalen 1985: 29-31 참조).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최적화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항상 ‘타당성 문제’

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 Künzli(Westphalen 1985: 31 재인용)는 “교육 과정의 타당성은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Westphalen(1985: 35)도 “완성된 교육과정 전체와 개별 항목들 혹은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대해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입증하고 실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타당성이라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 속에 설정된 모든 개별 항목들과 이들 항목의 결합에 의해 제시된 전체적 성격은 교육학 및 전공교수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들은 또한 생활 실제적 요구에 부합하여 학습자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경험 연구부분에서는, 이론 연구부분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변혁과 인간’ 교육과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한다. 경험연구가 없는 교육과정 연구는 무의미한 결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모든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가설들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 연구의 기본요구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경험연구방법은 델파이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일종의 패널식 조사연구 방법이다(이종성, 2001).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수집하고 추출해내는 구조화된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Ziglio, 1996). 다수의 패널들의 의견을 수집, 종합하고 수량화하며 다회에 걸쳐 반복하여 질문하는 절차를 거쳐 집단적 의견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패널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적인 토론을 거치는 집단적 의견의 수렴과 형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질문지에 의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델파이 방법의 가장 큰 특성은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feedback)’, ‘응답자의 익명성’, ‘통제된 집단반응’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박도순, 1992; 이종성, 1996; 이종성, 2001). 델파이는 면대면 협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 등의 부작용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에 대한 외부적 압력의 영향이 낮다. 또한 응답이 반복되어가며, 전회의 통계적 집단반응이 주어질 시 이에 대한 피드백적인 면에서 자신의 응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조사연구에 의해서는 피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델파이의 절차를 반복하며 통제된 피드백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델파이를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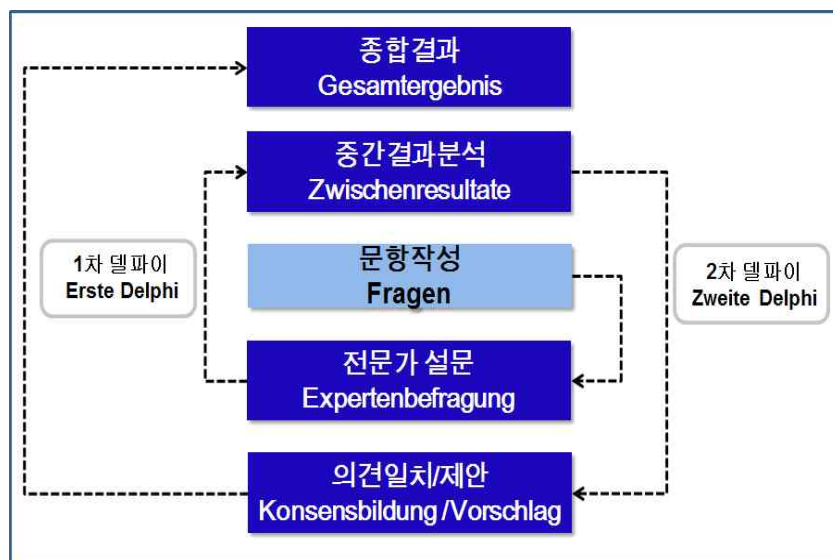


그림 5: 델파이 조사 절차



## 발표 1-2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과학’ 교육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정지훈

## 1. 서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흐름에서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거시적이며 복합적인 쟁점이어서 누구도 한 번에 답안을 제시할 수 없다. 크고 거시적인 문제일수록 단기간의 정책이나 실무를 집행하는 정부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따질 수 있는 대학에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인문학에서 중시하는 창조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보이는 사물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은 미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인문학 교육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IT, AI,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지식을 강조하는 시대에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술기업의 확산과 기술 지식의 효용성을 보면 기술 공학도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기술 주도 경제에서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기술의 진입장벽은 계속해서 낮아지며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술이 더 많은 툴박스를 제공할수록 인문학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것들은 경쟁 우위의 차별화 요소가 된다.

주목할 것은 신기술의 바탕이 되는 뇌과학, 생물공학, 빅데이터, 정보과학 등은 결국 인간의 욕망, 동기, 정서, 느낌 등 감정(感情, affect)이라고 부르는 것과 만나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성의 중심을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철학의 접근이다. 또한 외부 대상에 대한 사고가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신체에 속하는 현상인 감정이 다시 사고의 영역에 속한 느낌(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심신 문제(心身, mind-body problem)에 관해 철학과 신경생물학의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의 견해를 새롭게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몸과 마음, 감정과 이성, 생물학과 철학 등 서로 다른 영역을 종합하여 한꺼번에 파악하는 인식능력은 과학의 인식방법을 넘어선 것이다. 과학에서는 분석적 방법이 유일한 진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흐름에서는 학문간 융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여러 학문이 과학과 합쳐지면서 과학을 과학이 아닌 학문으로 탐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일이 그런 사례이다. 이 점에서 과학이 아닌 학문활동에서 해 온 인식 방법이 새롭게 재인식할 필요가 제기된다. 통찰(通察)<sup>1)</sup>은 과학을 과학이 아닌 학문의 방법으로 고찰하면서 비판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전통학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이 분석을 지식 탐구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반면, 과학과 만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학문은 종합을 지식 탐구의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한국 및 동아시아 재래 학문에서 비분석적인 방법으로서 둘 이상의 사물을 종합하여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법

1) 여기서 통찰(通察)이란 한자어는 19세기 조선학자 최한기(崔漢奇)가 만든 학술 용어로서, 세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찰(洞察 insight)이란 용어와 한자가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다. 따라서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insight’와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논하겠다.

이 통찰이다. 통찰은 분석적 방법인 관찰과 다르다. 통찰은 특히 사고 주체의 자각(自覺)이 강조되며 탐구 대상에 대한 관계적인 인식을 강조한다. 예컨대,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적 사고 기계가 출현하고, DNA 복제 기술처럼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명질서를 왜곡하는 기술이 산업화되는 시점에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루면서 여러 분야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식 역량을 한 데 모아 제품 개발과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실용성을 넘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려면 여럿을 하나로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통찰력이다.

이 글에서는 기술이 인문학과 결합될 때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교육과 학습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원리로서 ‘통찰과학’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나타나 신기술 분야에서 인문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2) 과학의 방법인 ‘관찰’과 인문학의 방법인 ‘통찰’에 대해 각각 검토한 후, (3) 새로운 인지 역량을 발전시킬 ‘통찰과학’의 개념을 논한 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서 ‘추측통찰’의 5가지 인지 유형을 소개하고, (4) 최근 생겨난 혼합형 학습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인지 학습 분야들을 5가지로 도출하며, (5) ‘추측통찰’의 인지 유형과 혼합형 학습의 인지 학습 분야들을 연결하여 ‘추측통찰 기반의 혼합형 학습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 2. 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문학

### 1) 기술만으로 충분한가?

지금의 혁신적인 기술 주도적인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이가 많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해마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계속 늘어난다. 이 점에서 오늘날 기술학도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수요도 많다. 하지만 기술 주도 경제에서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기술 혁신을 통한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많은 젊은이들이 학부 시절에 엔지니어나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등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Youtube (유튜브)의 대표, 수잔 워치스키(Susan Wojcicki)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다. HP(컴퓨터 제조회사)의 대표,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는 중세사와 철학을 전공했고,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공동 설립자인 파커 해리스(Parker Harris)는 영문학을 전공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인 슬랙(Slack)의 설립자, 스투어트 버터필드(Stewart Butterfield)는 빅토리아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양쪽에서 철학을 전공했다.<sup>2)</sup> 아시아의 최고 갑부인 전자상거래 거대기업 알리바바(Alibaba)의 창업자 마윈도 영어를 전공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하 연설에서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말하길,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인문학, 휴머니즘과 결합될 때 가슴뛰는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했다.

최근 많은 매체와 저술에서 미래 일자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반면, 기술혁신의 흐름을 타고 자율주행차나 3D 프린터, 챗봇을 비롯한 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획기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다. 대체로 신기술을 적극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돈이 되는 일자리를 획득하려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시와 소설을 읽고 고대와 중세 철학의 쟁점을 토론하고, 보

2) Eugene Kim, "Not Every Silicon Valley Leader is an Engineer, Including These 9 Super Successful Liberal Arts Majors", *Business Insider*, 2015. 8. 1.

<https://www.businessinsider.com/9-silicon-valley-leaders-that-didnt-study-engineering-2015-7>. 대표적 사례로 철학 전공자인 버터필드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조사를 통한 논리적 귀결을 따라간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문학 교육을 통해 배운 바탕 위에 기술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르네오섬의 원주민 문화를 연구하는 등의 인문학 공부는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인 학문이자 사치일 뿐이다.<sup>3)</sup>

하지만 기술혁신의 동력이 과학기술 지식만으로 주도된다는 주장은 일면적 시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기술이 발전될수록 비판적인 능력향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기술이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기계들이 일부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겠지만 기계들만으로 완전히 자동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실제로는 고객들과 상담하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인간만의 기술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자리잡게 된다. 프랭크 래비는 “로봇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Can Robots Be Lawyer? Computers, Lawyers, and Practice of Law*)”<sup>4)</sup>라는 논문에서 언젠가 자동화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약13% 정도라고 예측하고, 이 역시 오랜기간에 걸쳐 일어날 변화이고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했다.

물론 일부 업종에서는 기술에 대한 위협이 뚜렷하며 자동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로봇이 더 많은 일들을 맡는 사례가 커질 것이다. 수많은 제조업체의 조립라인, 의약계의 수술장비, 약품제조 등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되는 비율이 커지고 있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는 일의 비율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복적이거나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작업은 자동화되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노동에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방시켜주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 2) 갈수록 낮아지는 기술의 진입장벽

일자리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역설적인 점은 자동화에 취약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라는 사실이다. 지금도 보수도 높고 수요도 많은 일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들 일자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해외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학력 프로그래머를 대규모로 키워내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바로 그 원인이다. 이들 나라에서 프로그래머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력으로 교육받고 있다.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아프리카인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스타트업 안델라(Andela)는 아프리카 청년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려 합격률이 1%도 안 된다.<sup>5)</sup> 이 때문에 다량의 프로그래밍 작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 등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채워줄 지원자는 부족한 형편이고, 변화의 속도는 빠른 편이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컴퓨터과학 분야에는 미국 국내에서 자격이 되는 지원자로 채용 수 있는 것보다 100만개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sup>6)</sup> 이런 이유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저공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도 기술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역시 5G 정보통신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sup>7)</sup>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작업도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3) Vivek Wadhwa, "Engineering vs Liberal Arts : Who is Right- Bill or Steve? ", *TechCrunch*, 2011.3.12.

(<https://techcrunch.com/2011/03/21/engineering-vs-liberal-arts-who's-right-bill-or-steve>)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빌게이츠, 선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의 설립자 비노드 코슬라 등은 미국주지사협회에서 인문학 교육에 들어가는 주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과학과 공학, 수학 분야의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미래에 소용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연설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4) Dana Remus and Frank S. Levy, "Can Robots Be Lawyer? Computers, Lawyers, and Practice of Law", *SSRN Electronic Journal*, 2015. doi: 10.2139/ssrn.2701092

5) 안델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보면 한 명을 교육하는데 1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 안델라는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글로벌 기업과 연결시키는데, 이들 이수자들은 이미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이나 공학 등의 학위를 받은 고학력자이다.

6)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국, IT직업 분야 양극화 진행 중”, 『한국경제』, 경제면, 2018.11.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1098416a>

기술적 능력은 중요하지만 기술교육 자체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코딩을 배울 수 있다. 웹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법은 신종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플랫폼들은 어떤 코딩언어든 초보자도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최근 코딩언어가 훨씬 배우기 쉬워졌을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개강좌(MOOC)와 코드카데미(Codecademy) 등과 같은 교육회사에서 코딩강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sup>8)</sup> 한국의 경우, 교육 스타트업에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뛰어든다. ‘코딩클럽’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코딩수업을 운영한다.<sup>9)</sup> 이들은 다년간 연구 개발한 다양하고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기관, 단체, 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차별화하여 전문 강사진을 통해 제공한다. 이처럼 코딩 기술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도구들은 민주화되어서 컴퓨터 사용이 쉬워졌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고, 미리 만들어진 요소들을 맘대로 드래그(drag)하기만 하면 웹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3D 프린팅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내도록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제는 서버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술의 도구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덕택에 전문지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고 기술의 민주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최근 플랫폼 기반 혁신을 일으키거나 서비스 혁신을 일으킨 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인문사회학의 많은 분야에서 배운 사고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획기적인 기술 주도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인문학 교육이 제공하는 어떤 능력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인문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으로 강조되는 것들이 창조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설득력 있는 주장, 소통 능력 등이다. 충분히 타당한 얘기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왜 특별히 기술 혁신의 시대에 인문학 전공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인문학은 돈벌이에 쓸모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 바탕에는 인문학이 과학만큼 유용하거나 엄밀하지 못하다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학 역시 논리적 타당성을 근거로 객관적 탐구를 시도한다. 인문학과 사회학은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의 본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무엇보다 인문학은 통찰의 학문이어서 사회현실에 대한 거시적인 진단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사회학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교육제도, 납세제도 등과 같이 법적 체계를 통한 공공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 정부나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을

7) [SW인재절벽]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 2022년까지 신규 SW기술 인력 3만명 이상 부족”, IT 경제 「아시아 경제」, 이재용의 호소 “5G코딩 20배 많은데 인력은 태부족”, 「아시아 경제」 2019.01.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1410414024726>

8)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SejonguniversityK+SJMOC11K+2018\\_03SJ11/about](http://www.kmooc.kr/courses/course-v1:SejonguniversityK+SJMOC11K+2018_03SJ11/about).

미국의 경우, 트리하우스(Treehouse)는 한달에 25달러만 내면 코딩하는 방법에 관해 수천시간 분량의 깊이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GA(General Assembly)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둘 다 제공하는데, 무료워크숍인 대시(Dash)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교육을 몇 시간씩 시켜준다.

9) <http://codingclubs.org/anywhere-codingclub>

집중 탐구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나 사회학 분야가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령 심리학을 생각해보자. 심리학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더 잘 어울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놀라운 성공을 봐도 그렇다. 페이스북(facebook)은 인간의 소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이고<sup>10)</sup>,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주로 패션, 뷰티, 문화, 요리, 인테리어 등 비주얼이 강한 분야에서 일상에서 찍은 듯한 감성 사진을 중심으로 게시물을 홍보하기가 가능하도록 한 비즈니스 채널을 강화시켰다.<sup>11)</sup>

인류학을 살펴보자 인류학자는 앞으로 기술혁신 기업에서 제품 개발 전체를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up>12)</sup> 실제로 인류학 연구에 경험이 있으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며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문화적 요소나 개인적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 노동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류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는데, 인류학자의 일자리 성장률은 대부분 직업의 평균을 웃돌며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자리 성장률과 맞먹는다고 한다.<sup>13)</sup> 그 대표적 사례가 자동차 회사 닛산(Nissan)에서 멜리사 세프킨(Melissa Celfkin)을 초빙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조종하면 될지를 연구하도록 한 것이다.<sup>14)</sup>

철학 역시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물이 축적된 것으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제품에 작지만 강력한 센서가 내장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넘치는 데이터에도 숨은 편향이 있다. 사실 데이터는 객관적이지 않다. 최근 범죄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과 알고리즘이 경찰 대응 측면에서 어떻게 편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에서 크리스티안 룸(Kristian Lum)은 범죄 데이터에는 과거에 저질러진 모든 범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제시했다.<sup>15)</sup>

알고리즘 시스템은 불완전한 정보입력(Input)과 논리, 개연성,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넘치는 데이터가 예측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편향된 데이터를 통해 만드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한번 알고리즘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지해 정책을 운영하고 자원을 배치하고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것을 제외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다. 캐시 오닐(Cathy O'Neil)에 의하면 이런 선택은 단순히 이익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도덕'의 문제이다.<sup>16)</sup>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저지르는

10)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통찰하며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그는 'Phillips Exeter Academy'에서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 소크라테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배웠고,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가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심리학 수업을 즐겨 들었다. 물론 그가 남다른 컴퓨터 코딩 능력을 가졌기에 페이스북의 개발을 이끌었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코딩 기술에 인간 심리를 훌륭하게 연결한 것에 있다.

11) 인스타그램의 케빈 시스트롬도 학부에서 공학 이외에 사진학 강의를 들으며 사진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깊이 공부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Kevin\\_Systrom](https://en.wikipedia.org/wiki/Kevin_Systrom))

12) "What Does an Anthropologist Bring to Autonomous Driving Design?" by Nissan Motor Corporation. 2016. 8.10. (<https://medium.com/drive-publication/what-does-an-anthropologist-bring-to-autonomous-driving-design-91d7814e1daf>)

13) John O'Connor, "Explaining Florida Gov. Rick Scott's War on Anthropology (And why Anthropologists May Win)", <StateImpact NPR>, 2011. 10. 20.

14)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인류학자가 왜 필요한 걸까? 2016년 테슬라(Tesla)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자동차 설계 기술자들의 한계를 부각시켰다. 당시 테슬라에 탑승한 운전자는 가장 복잡하지 않은 주행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탁트인 고속도로에서 사망했다. 트럭 한 대가 차선을 바꾸어 테슬라 앞으로 오는 것을 오토파일럿이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중에 분석해 보니 흰색 트럭이 대낮의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나타나서 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운전자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토파일럿을 믿고 도로에서 눈을 떴채 해리포터 영화를 본 탓 일수도 있다.

15) Kristian Lum and William Issac, "To Predict and Serve?", <Significance> 13, no 5. 2016. pp 14-19.

실수는 사람의 반성적 통찰로 수정되어야 한다. 바로 인문학이나 사회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욕망, 취향, 행동, 감정, 도덕, 문화 등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별난 본성과 우리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규칙 등은 인문학과 사회학에서 다루는 주요 대상이다. 인간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면 심리를 이해해야 하고, 인간 심리는 내면의 욕망과 약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통찰 위에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적 문제들에 획기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기술혁신에는 인간과 기계, 인간의 의견과 데이터의 정보 사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기술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주역은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간적 감성을 더하여 기술에 접근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통찰’이라 한다. 인문학의 통찰은 과학의 관찰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 3. 관찰과 통찰

과학은 근대를 주도한 학문으로서 중세 학문의 방법을 혁신하면서 새롭게 등장했다. 과학의 방법<sup>17)</sup>은 경험과 측정에 근거한 증거를 사용하여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과정이다. 경험적 관찰과 측정을 이용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다.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entry for scientific*)에서 언급한 관찰(observation)<sup>18)</sup>은 감각을 통해 세상 밖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과 같은 생물의 활동, 또는 과학 기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과학적 지식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관찰은 모든 과학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는 변화나 형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sup>19)</sup> 관찰에는 우연적 관찰, 실험적 관찰, 자연적 관찰 등이 있다. 실험적 관찰이나 자연적 관찰은 관찰을 하는 대상, 방법, 기준, 시간 등을 미리 확실하게 정해두고 관찰을 해야 한다. 이유는 관찰은 관찰을 하는 관찰자마다 가지는 개인차에 의한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관찰은 기본적으로 반복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관찰되어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관찰에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있고, 양적 관찰을 가리켜 관측(觀測)이라고 한다. 관측에서는 특히 시각 기능이 결정적이다.

#### 1) 관찰과 시각

관찰과 관측에서는 시각 기능이 핵심이다. 시각(視覺, sense of sight)은 플라톤에서부터 현재까지 서구의 지배적인 시각적 전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근대라는 시대의 가장 주된 감각으로서 도처에 존재하게 되었다.

16) Cathy O'Neil, *Weapon of Math Destruction*, 2015. p. 218.

17) 프랑스어: méthode scientifique, 영어: scientific method

18) 과학의 방법은 지식을 얻는 경험적 방법으로서 17세기 이후 자연과학에 의해 정형화된 것이다. 계획적인 관찰, 측정, 실험, 일반화, 시험 및 가설의 변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방법이다 (The scientific method is an empirical method of acquiring knowledge that has characterized the development of science since at least the 17th century. It consists of deliberate observation, measurement, experiment, generalization, test and hypothesis change.)

19)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observation’, 독일에서는 ‘beobachtung’이라 한다. 관찰이란 어떤 대상이나 과정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하여 생겨나는가 등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실험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험과 같이 대상 및 과정에 인위적인 간섭을 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관찰에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있고, 양적 관찰을 가리켜 관측(觀測)이라고 한다. 사실의 관찰은 모든 과학 연구의 출발점이다.

20) 과학백과사전 참고 (<https://www.scienceall.com/%EA%B4%80%EC%B0%B0observation>)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근대는 시각에 의해서 지배받아 왔는데 그 방식은 근대 이전의 시대들과 구별된다. 르네상스 및 과학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근대는 철저히 시각중심적(ocularcentric)이라고 여겨져 왔다. 맥루한(McLuhan)과 옹(Ong)에 따르면 망원경, 현미경 같은 발명품들이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특권을 주는 한편, 인쇄술의 발명은 그러한 특권화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성된 시각의 장(field of perception)은 근본적으로 비성찰적(nonreflexive)이며 시각적이고 양적이었다”고 했다.<sup>21)</sup>

이같은 시각 모델은 시각 예술에 관한 르네상스적 원근법 개념 및 주체의 합리성에 관한 데카르트 철학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데카르트적인 원근법주의(Cartesian Perspectivalism)이라 일컬을 수 있다.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데카르트의 모델에서 지성은 눈의 망막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한 실체들을 검사하는(inspect) 것이다. 근대(modern) 인식론의 토대가 되었던 데카르트의 구상에서 형상은 정신 속에 존재하는 표상들(representations)이다”<sup>22)</sup> 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원근법적 시각 모델에서의 눈은 앞에 놓여 있는 장면을 하나의 구멍(peephole)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어떤 고립된 눈이라는 방식으로 착상된 것이다.<sup>23)</sup> 그 눈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시점(point of view)으로 환원되고 탈신체화된 시각적 포착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화가의 ‘응시(凝視, gaze)’란 눈 앞에 드러나 있는 현상들의 동적 움직임을 정지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부터 시각 장(the visual field)을 관조하는 것이다.<sup>24)</sup>

응시는 공간 속에 묘사된 대상들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철회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구경꾼(spectator)과 같은 추상적인 차가움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는 세계를 더 이상 종교적 차원에서 신의 형상화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대상으로 채워지고 수학적으로 규칙적인 질서 속에서 위치한 것으로 보는 과학적 세계관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은 오로지 중립적인 연구자의 냉정한 눈에 의해서 외부로부터만 ‘관찰’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관찰은 데카르트의 원근법적 사고와 연결된다.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는 세계와 분리되어 그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비역사적이고 탈신체화된 주체에 특권을 부여하며, 세계는 오로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시점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 철학에서 정립된 보편주의적 휴머니즘의 특징인 초월적 주체성이라는 전제는 이러한 시각 체계의 특징인 관찰적 사고와 결합되어 있다.

## 2) 관찰을 넘어 통찰로

21세기 이후 등장한 신기술에서는 기술 개발에서 과학이 아닌 다른 학문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서 도전되지 않고 인간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의 흥미와 행동에 관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처리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렸다. 컴퓨터의 알고리즘 능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일부 분석가들은 앞으로 점점 알고리즘이 인간들을 관리하고 나중에는 이들을 대체하게 되리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각자들은 미래를 좀 더 다르게 본다. 이들은 알고리즘을 써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옹호하지만, 완전히 수학만으로 인간의 능력을 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sup>25)</sup>

21) 헬포스터, 최연희 역, 『시각과 시각장』 경성대학교출판부, 2004.

22)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Mirror of Nature*, 1979.

23) 원근법적 시각의 합리화된 3차원적 공간은 알베르티가 『회화론De Pittura』에서 제시한 유명한 비유에서 나온다. 즉 회화에서 캔버스는 평평한 거울로 비유될 수 있는데, 단 그 거울은 묘사된 장면의 기하학화된 공간(geometricalized space)을 반영하되 그것을 거꾸로 되돌려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눈에서부터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radiating) 공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하학화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화가나 감상자의 눈은 불규칙하고 이리 저리 초점을 옮겨다니는 동적인 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적이고 깜박거리지 않는 고정된 눈으로서 이해되었다.

24) Norman Bryson, *Vision and Painting: The Logic of the Gaze*,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83. p. 94.

뛰어난 혁신가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완벽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인간을 위해 인간이 지속해서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필요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요구에 컴퓨터 알고리즘이 금세 당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정교한 생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조차도 인간지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6)</sup> 이처럼 차세대 인공지능 기계의 개발에는 기술전문가들이 접근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 전부가 아니다. 알고리즘에 인간적 감성과 윤리를 더해야만 하는 프로그래밍 설계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철학을 공부한 존 웨스트는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 새 기술을 갖고 덤벼들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sup>27)</sup> 이는 곧 인간의 욕망과 약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기술의 잠재력이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자체의 배타적인 원리가 달라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다른 학문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까닭이다. 과학기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본 양상이 과학기술을 사회학, 인문학과 근접시키지 않을 수 없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이나 사회학뿐만 아니라 과학 또한 과학이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이 아닌 학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새로운 각성이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학문 전반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이제 학문에는 ‘과학인 학문’과 ‘과학이 아닌 학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기본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 아닌 학문의 방법은 무엇이나고 일컬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다. 과학의 방법과 대칭되는 한 가지 용어가 ‘통찰’이다.

### 3)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찰

통찰이란 용어는 유럽문명권에서 쓰는 말의 번역이 아니고 동아시아 학문 전통의 재래 용어이다. 과학은 유럽 문명권에서 발전시켰으므로 그 용어인 ‘science’를 가져와서 ‘과학’이라 번역해 쓴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과학과 상대가 되는 학문 활동은 한국 및 동아시아에서 유럽문명권과 관련을 가지기 전에 이미 잘하고 있었고, 그 개념과 특성에 관한 논의도 높은 수준으로 정립했으므로 그 정통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인식하여 오늘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인지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육 원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찰通察’은 한 단어이지만, ‘通通’과 ‘찰察’이라는 두 가지 말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말이 합쳐진 이유는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通’에 관한 자각과 ‘察’에 대한 자각이 각기 정리된 성과가 있다. 그 둘 가운데 ‘察’의 이론이 앞서고, ‘通’의 이론이 뒤따랐다. 察에 대한 이론은 원효의 ‘思察’에서 특히 선명하게 정립되었다. 원효는 ‘思察’을 ‘懺沈’과 대립시켰다. 생각이 혼미해서 대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아래 잠겨 있는 것을 ‘懺沈’이라고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대상을 바르게 살피는 것을 ‘思察’이라고 했다. ‘思察’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定’이라고 했다. ‘思察’에 대한 논의에서 원효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불교적인 각성을 일치시키려 했다.<sup>28)</sup>

25) 챗봇(chatbot)과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간단한 채팅 기능을 갖지만 그 기능은 한정적이며 때로는 바보 천재와 같다. 대표적 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여자 챗봇 테이(Tay)가 트위터 회원들이 자신에게 보내오는 모든 콘텐츠를 배우면서 이용자들이 시키는 대로 심한 욕설까지 따라하다가, 홀로코스트에 물어보자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이 사이트를 폐쇄한 것, 그리고 아이폰의 음성인식 및 자동응답 서비스인 인공지능 시리(Siri)를 처음 개발한 노먼 위나스키 박사가 "현재의 시리에는 놀라움과 가쁨이 빠져 있다(Surprise and delight is kind of missing right now)"며 애플의 시리 개발 정책을 비판한 경우가 그것이다.

26) 모두가 AI 음성비서를 더한 아이폰이 더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지금까지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과 호주, 영국에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Home Pods)'의 인식률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블로거 진 윈스터가 지난달 아마존 에코(알렉사), 구글 홈(구글 어시스턴트), 하만 카돈 인보크(MS 코타나), 홈팟(시리)를 대상으로 782가지 질문을 한 결과 시리의 질문 이해는 99.4%였지만 정답률은 52.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81%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알렉사 61%, 코타나 57%로 뒤를 이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37345>)

27) John West, "Microsoft's Disastrous Tay Experiment Shows the Hidden Dangers of AI", <Quartz>, 2016. 4. 2.



‘通’은 최한기 철학의 기본 용어이다.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밖의 것을 알아내서 마음 속으로 가져오는 행위를 ‘通’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폈다. ‘通塞’을 구분하고 通의 邪正, 大小, 遠近에 관해 논했다. ‘通察’은 바르게 크게 멀리까지 미쳐서 이루어지는 ‘通’이다. 최한기가 제시한 ‘通察’은 ‘洞察’과 유사하다. ‘洞察’은 사전적 의미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할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데 최한기는 기존에 사용되던 ‘洞察’을 ‘通’으로 새롭게 대체하여 그 개념을 달리 했다. 최한기의 통찰은 새로운 대상에 직면하여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대상의 총체적인 상황을 일시에 파악하는 것이다.<sup>29)</sup>

최한기의 통찰에서 ‘通’은 오늘날 용어로 ‘소통’이라 할 만하다. 통찰로 대표되는 소통적 인식론은 인사의 변화가 우주의 변화 흐름에 일치하여 원활히 소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가치 사이에도 통합적 시각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과학의 대상인 자연과 윤리의 대상인 인간은 각각의 물리를 갖지만 우주의 천리를 공유한다. 나아가 그의 철학에서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역시 소통된다. 최한기는 인간의 경험과 추측을 통해 객관적 인식이 축적되면 마음과 몸에 깊이 배여서 사람의 기질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추측의 통찰을 통해 주관적인 인식을 우주만물의 유행하는 흐름과 소통하게 하여 인식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고 했다.<sup>30)</sup>

학문에는 과학인 학문과 과학이 아닌 다른 학문으로 나누어 보는 세속적 분류에는 과학 위주의 불평등한 누앙스가 담겨 있다. 비과학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언표로 들리기 때문이다. 비과학을 쓰지 않으려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용어를 써야 하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인문학이 과학인가? 사회학이 과학인가?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관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인문학은 진실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증명하지 않는다. 사실 동아시아 학문의 전통에서 인문학은 학문 안에서 ‘道’를 깨닫는 것과 통했다. 道는 궁극적인 진리를 뜻한다고 하겠으며 학문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인 수련을 거쳐 도에 이르는 행위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道를 깨닫는 행위를 학문의 영역으로 거두어들이는 어렵다.<sup>31)</sup>

道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치를 통해 학문을 하는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총체적으로 일시에 닥쳐오는 것이 ‘통찰’이다. 이런 행위를 의도하지 않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가운데 거쳐야 ‘통찰’에 이를 수 있다. 통찰은 과학의 합리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학문에는 관찰로 하는 과학도 있고, 통찰로 하는 학문도 있다. 마찬가지로 합리성 또한 과학의 합리성도 있고, 인문학의 합리성도 있다. 그 어느 쪽에 일방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양쪽을 대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학문의 근본을 바로잡는 전제조건이 된다.

동아시아에서는 ‘science’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그 방면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지장이 있었다. ‘science’를 가져와서 ‘科學’이라고 번역해 쓴 다음에야 그 방면의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찰은 서양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가장 가까운 말을 찾으면 ‘insight’가 있다. ‘通察’은 ‘whole insight’라고 하

28) 조동일, “義相·明畤·元曉의 질서관과 문학이론”,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2001, 지식산업사) 이 책에서 조동일은 최한기의 ‘通察’이 가진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규정하기 위해서 원효의 생각을 가져와 거기다 보태었다. 조동일에 의하면 원효의 ‘察’을 최한기의 ‘通’과 합쳐서 다시 정립한 용어가 ‘通察’이다. 원효와 최한기는 둘 다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원효는 바른 인식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한기는 바른 인식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9) 조동일, 「人政」, 卷一, 人政 序, “政者正也 禁遏人爲之不正 效順天道之正 通察宇內 ...

30)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지식산업사, 1997, 296쪽.

31) 이성범·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85)에서는 카프라(Capra)의 논문 “The Tao of Physics(Berkley: Shambahala, 1978)이 번역되어 있다. 조동일은 이 글에 대한 평가에서 ‘道’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 물리학에서 이루어지는 ‘통찰’을 이해하려고 했으므로 통찰이 신비화되었으며, 도의 근거가 되는 동양사상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297쪽 재인용)

고, ‘洞察’은 ‘deep insight’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찰’과 ‘과학’을 ‘insight’와 ‘science’라고 하면 짝이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 재래 용어에는 ‘science’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science’를 번역해서 ‘科學’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잘 정착해 있으나, 한자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科學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分科之學’이겠는데, 그것이 ‘science’는 아니다. 그러므로 유럽문명권 언어 ‘science’와 동아시아 언어 ‘通察’이 학문에서 하는 두 가지 활동을 지칭하는 상대어라 할 수 있다.<sup>32)</sup>

유럽문명권에서는 과학을, 동아시아에서는 통찰을 특히 중요시해왔다. 그 어느 한쪽만으로는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럽문명권에서는 근대학문을 이룩하면서 과학을 지나치게 평가해서 학문의 균형이 어그러지게 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세학문에서 통찰을 중요시해 온 학풍을 그래도 지니고 과학발전은 등한시 여기고 있다가 유럽문명권과 만나 큰 타격을 받았다. 과학의 시대인 오늘날 새롭게 닦쳐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흐름에서 통찰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통찰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통찰의 학문을 부당하게 폄하하고 과학에다 종속시키기만 하면 과학기술에도 파탄이 생긴다. 인공지능이 더욱 가시화 될수록 기술력과 통찰력을 둘 다 제대로 갖추어야 글로벌 수준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 4. ‘통찰과학’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통찰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섯가지 감각들의 복합인 ‘통각(統覺)’이 전제된다. 통찰에서는 감각들이 경험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시되는데, 이 때 이미지의 출현은 감각 기관들에서 주어진 외부 입력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그 재료로 포함된다. 따라서 통찰이란 감각들의 복합 작용과 과거 기억의 결합으로 인해 대상에 관한 종합적인 인식을 얻고 측정 가능하지 않는 영역까지 단번에 깨닫는 인식 방법이다. 통찰에서는 대상과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을 배제하지 않고,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종합한다. 그렇다면 관찰과 통찰은 어떻게 다른가? 논의를 위해 둘 사이의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서 열거해보자.

관찰	통찰
(가) 분석과 귀납	종합과 연역
(나) 오랜 기간의 정보 축적	별안간 깊은 진리를 깨달음
(다) 측정 가능한 영역	측정 가능하지 않은 영역
(라) 주체와 분리된 연구	대상과 주체가 합치되는 연구
(마) 가치배제, 가치중립	가치포함, 가치판단
(바) 수리 언어	상징 언어
(사) 과학 위주	인문학 위주
(아) 기술과 연관	종교와 연관

< 지면 한계상 논의 생략 >

##### 1) ‘통찰과학’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학문 연구는 관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통찰을 갖추어야 하며 학문의 영역이나 다루는 대상에 따라 그

32) 조동일, 위의 책, 298쪽에서 ‘通察’과 ‘洞察’을 자세히 비교 검토했다.

둘을 아우르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관찰과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을 해야 하고, ‘통찰 과학’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시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과학과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과학의 합리성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인문학의 합리성까지 포괄하여 ‘유연한 과학(soft science)’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 일리아 프레고진(Ilya Prigogine, 1917~2003)은 『혼돈 속의 질서』에서 과학론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sup>33)</sup> 이 책에서 그는 확률과 통계의 방법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찾는 작업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과학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과학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했을 뿐이고 과학과 다른 학문을 연결시키거나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통찰과학’이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요청되는 반성적, 비판적, 총체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주체의 통찰 역량을 키워서 과학기술 연구 행위의 윤리적인 가치를 묻는 데서 나아가 인류역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인간과 자연, 기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통찰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의 절대성을 회의하고, 과학이 무엇이고 학문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재검토한다. 따라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결과를 재정리하고 알고리즘 코딩을 하는 등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연구의 실제 작업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인식 능력과 그 인식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을 통찰을 갖추어 전개한다.

그러므로 ‘통찰과학’에서는 데이터 과학이나 생리학 등에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에 새로운 사고를 발전시켜 창조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고 실용적인 보상을 가져다준다. 예컨대 느낌이나 느낌과 밀접하게 연관된 감정을 생물학과 연결시켜 규명하는 것은 우울, 통증,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찰과학은 인문학의 방식인 개인 연구와 과학기술학의 방식인 공동 연구를 함께 한다. 인문학은 거의 개인이 하고,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반면, 과학기술학은 이론(가설)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검증하는데 여럿이 힘을 합친다. 통찰과학에서는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함께 하고 이 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시정한다. 각기 자기 관점과 전공에 따라서 공동연구를 해서 성과를 보낼 수 있다.

‘통찰과학’의 연구 결과 새롭게 도출된 인간관이 어떤 실용적인 쓰임새가 있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느낌(感, feeling)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인간관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대부분 새롭게 정립된 인간관이 민중을 통치하는 원리와 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고통이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감정의 철학과 그 고통을 주는 몸의 생물학을 총괄하여 이해하는 인식능력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원리와 정책과 만들어내는 데 핵심 요소이다.

## 2) 통찰과학의 방법 : ‘추측 통찰’

‘통찰’은 전통학문의 방법이다. 통찰은 동아시아 학문에서 공유되었던 보편적인 인식 방법으로 19세기 학자 최한기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인식되었다. 이 글에서는 ‘통찰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최한기가 제시한 ‘추측 통찰(推測之通)’의 개념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최한기는 ‘통찰’의 ‘通’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했다. 그가 제시한 통찰은 관찰과 측정을 아우르는 인식 방법이다. 그의 통찰은 감각들의 경험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므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진리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감각들이 경험한 것들의 신뢰를 통해 기억에 축적되는 주체의 추론 능력에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의 사물까지 꿰뚫어보는 인식구조는 최한기 인식론의 기본 전제이다.<sup>34)</sup>

‘통찰’에서 인식의 출발은 주체의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하다. 최한기에 의하면 통찰은 주체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를 ‘신기(神氣)’라 했다. 신기란 주체의 신령스러운 지각 능력이다. 신기와 경험은 다르다. 최한기에 의하면 신기를 경험이라 해도 안 되고, 경험을 신기라 해도 안 된다. 경험이 없으면 신기만 있을

33) 일리아 프레고진·이사벨 스텐저스, 유기풍 역 『혼돈 속의 질서』(민음사, 1990)

34) 이를 두고 최한기는 ‘신기통(神氣通)’이라 명명했으며, 그가 제창한 ‘기학氣學’의 인식 원리이다.

뿐이고, 경험이 있으면 신기에 스스로 지각이 있게 된다.<sup>35)</sup> 나아가 ‘신기’라고 명명한 인식 주체는 귀, 눈, 입, 코 등 감각기관들에서 사물과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종합한 통각 기능에 의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외부로부터 인정과 물리를 관찰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翫染之能).<sup>36)</sup>

‘통찰’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과정을 종합하여 더 포괄적인 인지 능력을 확보한다. 최한기에 의하면 인식 주체는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 초보적인 지식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감각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견문의 지식이다. 이와 감각을 통한 경험적 앎을 두고 최한기는 ‘형질 통찰(形質之通)’이라고 했는데, 풀이하자면 ‘1차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감각을 통한 경험적 인식은 사물에 대한 인식 일반에 이르기 위한 1차 자료가 된다. 경험적 인식은 다시 ‘추측(推測)’이라는 기억과 추론을 통해 ‘2차적 인식(推測之通)’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최한기는 이를 ‘추측 통찰(推測之通)’이라 했다. 여기서 ‘추’는 ‘미루다’는 뜻으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의식 속에 축적하는 기능을 말하고, ‘측’은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하고 일반화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제하는 기능이다.<sup>37)</sup>

‘통찰’은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통찰’로서 관찰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한기에 의하면 추측으로 하는 통찰은 반드시 경험한 것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써’, ‘무엇에 의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등의 추론을 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측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과적 인식이다. 이 때문에 추측은 예측과 같이 가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실험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추측은 인간의 가치나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자연히 사람마다 같지 않다. 이런 한계를 인식한 최한기는 인간의 주관을 가볍게 여기고, 사물을 바라보는 객관성이 깊어야 주관적인 추론일지라도 전 세계에 두루 통할 수 있다고 했다.<sup>38)</sup>

### 3) ‘추측 통찰’의 5가지 인식 유형

최한기는 인간의 인식 작용에 관해 “추측이 두루 퍼진 것”이라 했다.<sup>39)</sup> 추측은 지나간 것과 현재 일어난 것을 경험한 것에 헤아려서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있는 사물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물의 변화를 예측하는 인식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눈으로 전해 본 경험을 근거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귀로 전해들은 경험을 근거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헤아리는 추측의 방법이 정립된다.<sup>40)</sup> 최한기가 제시한 추측 통찰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 (가) 드러난 감정을 근거로 감추어진 본성을 추측(推情測性),
- (나) 보이는 형체를 근거로 보이지 않는 이치를 추측(推氣測理),
- (다) 부분을 근거로 전체를 추측(推物測事),
- (라) 움직이는 것을 근거로 정지된 것을 추측(推動測靜),
- (마) 대중의 좋고 싫음으로부터 선과 악을 추측(推公論測善惡)

35) 神氣通 제1권, “經驗乃知覺, 神氣者 知覺之根基也 知覺者 神氣之經驗也 不可以神氣 謂知覺也 又不可以知覺謂神氣也 無經驗則徒有神氣而已 有經驗則神氣自有知覺耳”

36) 최한기의 저서 『氣測體義』에서는 인식 주체인 신기가 신체의 감각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몸의 인식(體通), 눈의 인식(目通), 귀의 인식(耳通), 코의 인식(鼻通), 입의 인식(口通)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37) 서옥수, 『최한기의 세계인식』, 소강, 2006. 187쪽.

38) “이미 있는 ‘形質의 通’에 따라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 있다. 이는 그것이 만일 전에 보고 들어 열려진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면, 바로 현재 있는 것을 근거로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교하거나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여 그들의 우열과 득실을 헤아려 통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측의 통’이니, 자연히 사람마다 같지 않은 것이다.... ‘形質의 通’을 근거로 ‘推測의 通’을 통달하려면 나의 주관을 가볍게 여기고 대상의 사물을 주장하는 객관성이 깊어야 거의 하늘과 사람에 통할 수 있게 되어 잘못이 적다” (『氣測體義』 神氣通 1)

39) 推測錄 제1권 추측제강(推測提綱)

40) 推測錄 제1권 추측제강(推測提綱)

## 주제발표 0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송은주(건국대)

## I.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가리키는 핵심어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슈باط은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 생산을 기계화한 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으로 대량생산의 길을 연 2차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혁명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간의 경계를 이루는 기술적 융합이다. 현재의 변화를 ‘혁명’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등 여러 반론들도 있으나, 그는 현재의 변화는 그 가공할 기하급수적인 속도와 범위,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분명 구별된다고 주장한다.<sup>1)</sup>

슈باط의 말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전의 산업혁명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핵심어는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른 정의들 또한 공통적으로 이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새로운 변화로 강조한다.<sup>2)</sup> 4차 산업혁명의 전신이 되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또한 그 핵심은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한 현실과 가상 시스템의 융합이다. 이는 인간이 거주하고 활동해 온 영역이 기존의 3차원적 현실 세계를 넘어 가상의 디지털 세계까지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기들을 통하여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은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이룬다. 디지털 제조는 데이터를 사물로, 사물을 데이터로 바꿈으로써 소량 맞춤 생산 시대를 열었으며,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실시간으로 기기들의 작동을 조절한다. 사물인터넷의 궁극적인 실현은 실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sup>3)</sup>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 덕분이다.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 개수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정보처리 능력은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센서들이 생산

1) 4차 산업혁명의 충격, 17-18.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16: 328)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통한 기술의 융합으로 사람·사물·공간 이 초연결화 및 초지능화되어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들이 융합되는 변화로 정의한다. 융합연구 정책센터 (2017: 3-4)는 4차 산업혁명을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화되는 변화를 뜻하고,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가 이전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3) 4차 산업혁명의 충격, 57-60.

4) 2010년 iPad2의 계산능력은 1600 million of instructions per second (MIPS)인데, 이 정도의 계산 능력을 구현 하려면 1950년대에는 100 trillion 달러가 들었다. 이러한 가공할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상호작용이 기계-기계와 인간-컴퓨터(HCI)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주고받는 정보의 양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다. 컴퓨터의 상용화 이전에 인류가 전체 역사 기간 동안 축적한 데이터의 양이 약 12엑사바이트인데,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생산된 데이터양만 1600 엑사바이트, 즉 제타바이트를 넘어섰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타바이트를 경험한 세대가 된 것이다. MIT의 에릭 브린졸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는 현재 3,4차 산업혁명시대라 불리는 시기를 ‘두 번째 기계시대(second machine age)’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는데, 1,2차 산업혁명을 묶어 첫 번째 기계시대를 활짝 연 제조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3,4차 산업혁명을 묶어 두 번째 기계시대를 여는 지식정보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자는 맹성렬의 제안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의 핵심적인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ICT 덕분임을 고려한다면, ICT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사실상 환경적, 인류학적, 사회적, 해석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보철학자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플로리디는 ICT가 우리의 지적, 물리적 환경을 형성하고, 자기이해(자아감각)를 변화시키며, 서로 간의 관계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거나 조각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재존재화’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존재와 인간 본성은 고정되었거나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술, 도구를 비롯한 외부의 비인간 존재들과의 상호작용과 얽힘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쳐 왔다. ICT 또한 인간 존재와 본성, 삶의 방식과 인간이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경제적, 산업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변화까지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와 ICT의 발전을 통한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강화로 인하여 존재의 정보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재존재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와 인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정보철학(Philosophy of Information)과 정보윤리(Ethics of Information)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분석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에 인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서 교육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핵심 기술의 개발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이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등장과 자동화, 초연결성의 심화로 한 단계 더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12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 확정된 바 있다. 이 대책에서는 지능정보사회 도래 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고, 기술, 산업,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총 12개의 추진과제 중에는 인재양성 관련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혁신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미래교육혁신 정책들을 살펴보면, 초·중등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및 STEAM 교육의 대폭 확대를 포함한 문제해결, 사고력 중심 교육 실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체제 전면화,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력 양성, 교원 양성 및 지능정보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sup>5)</sup>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가운데 미래교육혁신 정책들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은 기술 교육과, 교실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관련 연구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으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된 사회상과 인간상에 맞춘 인문학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역량들을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자동화로 인한 실업과 빈부 격차의 심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 기술 발전이 야기할 부정적 측면들도 존재한다. 한계를 넘어 인간의 능력을 끌어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본의 인재육성 전략 및 시사점,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5. no.26, 6-8.

올리는 과학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반대급부로 그렇게 강해진 힘이 오용될 경우 초래될 부정적 영향도 커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여섯 번째 대멸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의 말은 희망과 공포,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인류사적 대격변의 시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거나,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는 무지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는 전면적인 변화에 균형잡힌 총체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인문학 교육이 여섯 번째 대멸종의 암울한 파국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인간의 잠재성과 더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낙관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면, 기술이 우리 삶과 신체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와 기존의 인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지금, 인간이라는 것, 혹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 개념은 나와 타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차이를 위계화하며, 타자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를 제시했으나, 이런 전통적인 주체 개념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뇌과학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성과는 인간 주체가 외부 환경과 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연속적인 것임을 밝혔으며, 철학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 계몽주의적 주체의 죽음을 선언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핵심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주체 개념을 극복하면서도 환경과 동식물, 기계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을 책임지는 새로운 인간 개념이 놓여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주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문학 교육은 인종주의, 남성우월주의, 인간중심주의와 같은 휴머니즘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공존과 공진화라는 목표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을 비롯하여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인간 개념과 가치관을 모색하려는 인문학의 학제적 연구가 여러 가지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철학을 통하여 정보라는 개념으로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보철학은 이탈리아 출신의 정보철학자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가 제안하였다. 이는 정보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등 비인간 존재들 간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철학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는 정보윤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윤리를 논할 때 흔히 거론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구체적 이슈를 다루는 협의의 윤리와는 차이가 있다. 플로리디가 제시하는 정보윤리는 존재의 기본 개념을 정보로 정의하고 제타바이트 급의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에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윤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광의의 거시윤리학이다.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교육에 정보철학과 정보윤리의 성과를 반영하려는 작업은 거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아가게 될 방향 설정에 인문학이 개입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 II. ICT의 발전과 정보철학의 출현

### 1. 정보적 전환(Informational Turn)과 정보철학의 발전

정보는 수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등 다른 학문 분야들을 서로 잇고 있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결하고 있다. 제임스 글릭은 정보가 “세상을 움직이는 혈액이자 연료이자 필요불가결한 본질”이라고 표현한다.<sup>6)</sup> 유전자가 정보를 요약하고, 해독하고, 외부로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물학도 이제는 일종의 정보공학이 되었으며, 육체 자체가 기억을 저장하는 정보처리기계이다.<sup>7)</sup> 돈이 물질화된 화폐

6) 인포메이션, 23.

7) 앞의 책, 23.

가 아니라 비트의 흐름으로 저장되고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학도 하나의 정보공학이 되었다. 1995년 <디지털이다>에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아톰의 세계가 비트의 세계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예측한 변화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ICT의 발전과 더불어 서서히 우리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독특한 뉴턴적 객체가 아니라, 정보적으로 체현되고 정보 환경과 상호 연결된 유기체이며,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자연적, 인공적 행위자들과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sup>8)</sup>

정보를 분석하는 철학으로서 정보철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20세기 이후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학적 이론들의 발전하면서 ICT, AI와 같은 정보 관련 기술이 부상하고, 정보의 개념이 과학과 사회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보철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와 인간의 변화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학제성을 띠는 학문으로, 인문학과 과학의 단절된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성이 정보철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성립되는 데 오랫동안 장애물로 작용했다. 정보에 대한 현대 이론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과학과 철학 간의 학문적 간극이 매우 컸던 탓에, 정보이론에 대한 초기의 중요한 발전은 주류 철학에서 고립된 주변부에서 주로 나왔다.

정보 철학의 배경은 AI 철학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애런 슬로먼(Aaron Sloman)은 *The Computer Revolution in Philosophy*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철학 분야에서도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합리적이었으나 새로운 정보 철학 패러다임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부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슬로먼의 낙관적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는 1980년대까지는 정보 철학이 영향력있고 혁신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출현은 인터넷이라는 세 번째의 컴퓨터 관련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실현되었다. 1980년대 중반쯤부터 철학 연구 공동체들이 정보 철학이 연구하는 개념이나 프로세스(알고리즘, 자동 통제, 복잡성, 계산, 분산 네트워크 동역학 시스템, 정보), 현상(HCI, CMC, 컴퓨터 범죄, 전자 공동체, 디지털 아트, AI나 정보이론), 모델(인공행위자의 본질, 탈체현된 환경에서 개인 정체성의 정의, 가상현실의 본질)을 비롯한 주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야 정보 철학이 철학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정보적, 계산적 개념, 방법론, 테크닉, 이론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디바이스로 강력한 도구이자 은유가 되었다.<sup>9)</sup> ICS(Information and Computational Sciences)와 ICT로 인한 실천과 개념상의 변화가 철학에 미칠 영향을 연구자들이 감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컴퓨터 혁명(computer revolution)’, ‘인터넷 전환(internet turn)’, ‘4차 산업혁명’ 등의 용어를 붙였다.

‘정보철학’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 본격화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들어 플로리디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플로리디는 2002년 메타철학(*Metaphilosophy*) 지에 발표한 논문 ‘정보철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에서 정보 철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토대를 세웠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정보화 시대에 정보 철학이 ‘제일 철학(philosophia prima)으로써 새로운 독자적 분과로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계산적, 정보이론적 연구가 오래된 철학적 문제들을 되살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재개념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철학의 의의를 평가한다. 플로리디는 정보철학이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현상, 변화를 설명하거나 지칭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전통적인 철학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영역을 포괄하고, 전통적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혁신적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철학 연구의 프런티어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 철학은 양자물리학, 논리학, 의미론적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 시스템, 메타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관된다. 정보 철학은 해석은 다르더라도 정보의 근대 이론의 문맥에서 정보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과학, 인문학, 사회 전반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까지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려 시도하고 있다.<sup>10)</sup>

8) Floridi, Ibid.14.

9) Philosophy of Information

10) Philosophy of Information



## 2. 정보철학의 의의

정보철학의 강점은 플로리디의 주장대로 현대의 정보사회를 정보적 개념들로 이해할 철학적 개념들과 용어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17세기 근대과학이 발전하던 시기에는 정교한 태엽과 기계장치들로 이루어져 스스로 움직이는 시계가 이 세계에 대한 은유로 즐겨 활용되었고, 이 은유에 따라 세계를 창조한 하느님은 시계공으로 비유되었다. 이러한 은유는 20세기 들어 새롭게 출현한 강력한 기계인 컴퓨터로 바뀌어, 우주는 거대한 컴퓨터이고, 계산(computation)이 세계를 작동하는 기본 원리로 생각되었다. 이제 정보철학은 계산을 정보로 바꾸고 있다.

정보철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정보권(inforsphere)'으로 새롭게 재개념화하여 정보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ICT의 발전을 통하여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면서, 우리는 점차 두 세계에 동시에 거주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플로리디의 말에 따르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출생한 X 세대는 정보공간을 로그인/로그아웃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대하여 여전히 뉴턴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비-상호작용적이고 비-반응적이며, 통신/학습/기억이 가능하지 않은 기술들과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세대인 Z 세대에게는 세상이 항상 '와이어리스'로 인식된다. 이들은 'google', 'tweet', 'wiki'가 동사의 의미를 지닌 세대이며, 이들에게는 접속 상태가 디폴트이다.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냉장고, 조명, TV 등 온갖 일상 속의 사물에 내장된 초소형 칩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으며 우리 주변의 실제 세계를 컨트롤한다.

'정보권'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연결되는 새로운 변화를 철학적으로 해명할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권은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과 그 속성, 상호작용, 과정, 관계 등에 의해 구성되는 전체적인 정보 환경을 지칭하며,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정보 공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다. 플로리디는 정보권이 진짜의 물질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적으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며, 정보공간을 지시하는 방식에서 실제 그 자체와 동일한 의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sup>11)</sup> 정보권은 생태학적 용어인 생물권(biospher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이어지고 겹쳐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공간 개념을 정확히 포착한다. 두 공간을 아우르는 정보권 개념은 단지 인간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확장한다는 차원을 넘어, 가상공간의 인공적 존재들까지도 인간과 연결되고 접속되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행위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알파고의 사례와 같이 자율성을 띠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적 존재들은 전통적인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플로리디는 이렇게 정보권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들을 '인포그(inforg)'라 명명한다. 인포그에는 물론 인간도 포함되는데, 흔히 우리가 상상하듯 사이보그화된 인간이나 유전적으로 강화된 인간이 아니라 ICT로 재존재화된 인간을 뜻한다.

## 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윤리: 정보윤리

정보철학은 존재의 근본적 속성을 정보적인 것으로 바꾸고, 인간의 생활환경을 가상공간까지 포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삶의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윤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철학 이전에 AI 철학이 있었다면, 정보윤리의 기원에는 컴퓨터 윤리(Computer Ethics)와 기계 윤리(Machine Ethics)가 있다. 기계 윤리와 컴퓨터 윤리는 도덕적 행위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전통적인 윤리학은 로봇이건 컴퓨터건 모든 기계는 인간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며 인간 행위성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도구주의적 관점을 취했기

11) The Ethics of Information, 6.

때문에 기계에 도덕적 행위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드보라 존슨(Deborah Johnson)은 지능적인 컴퓨터가 아무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듯이 보이더라도 인간의 결정의 산물일 뿐이며 결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기계들은 의식과 의도성을 갖지 않으므로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존의 윤리학 논의들은 도덕적 행위성을 인간 설계자와 사용자에게만 인정하는 인간중심적 관점을 고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가속화되는 기계의 자동화와 자율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아직 완전히 자율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알파고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율학습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했다.<sup>12)</sup> 자율주행이나 킬러 로봇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인공 행위자의 행위성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윤리적 관점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 이는 초연결성의 강화라는 정보사회의 특성과의 관련이 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등 인간과 인공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또한 네트워크를 따라 분산되며, 과거처럼 어느 한 독립된 개별적 주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워진다.

정보윤리는 개체의 정보적 속성을 윤리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가치로 부각시키면서, 도덕적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윤리학과 달리 도덕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피동자로 관심을 옮기는 전환을 꾀한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피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 도덕적 피동자의 범위는 역사적으로 백인 남성에서 여성, 타 인종, 동물, 환경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유지해 왔다. 20세기 윤리학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피동자 중심 윤리가 윤리학의 중요한 관점으로 부상하게 된 점이며,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윤리를 행위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신상규 6). 기존의 생명중심 윤리(biocentric ethics)는 생명이라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피동자의 범위를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으로 확장하였다. 생명중심 윤리의 중심에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이 행위를 당하는 피동자가 있으며, 피동자가 겪는 고통이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플로리디는 여기에서 “생명”을 “존재”로 바꾸고 “생명중심주의”를 “존재중심주의(ontocentrism)”로, 고통을 엔트로피(entropy)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엔트로피는 열역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보적 객체의 파괴, 타락, 오염, 고갈을 의미한다. 정보윤리에서 윤리적 담론의 대상에는 그야말로 모든 존재,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이고 그림이나 책에서 별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 심지어 미래 세대나 선조들처럼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된다. 정보윤리는 실체가 없는 대상들까지도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해 온 윤리학의 발전 과정을 극단까지 밀고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인공물들에 관한 윤리적 논의는 주로 이들의 활동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비인간 객체들과 인간의 관계를 상상하고 그로부터 발생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가정함으로써 윤리적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2017년 1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채택한 ‘아실로마 AI 원칙’은 이러한 우려를 실제 인공지능 개발에 반영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우호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7년 2월, 유럽연합은 최초로 규제대상이 되는 로봇을 새롭게 정의하고,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hood)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고, 로봇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활동으로 인해

12)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기술적 의미의 ‘자립’과, 철학적 의미의 ‘자율’로 구분한다. ‘자립’은 인간이 입력한 명령에 따라 결과를 출력하기까지의 과정을 인간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필요하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 알고리즘을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의 알고리즘을 아무리 복잡하게 바꾼들, 인간이 처음 설정해 준 목표 자체를 스스로 변경하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자율’은 자립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규범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실로마 원칙이나 유럽연합의 결의안처럼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련의 윤리적 기준들은 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권리와 편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인간중심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의 기준에 따라 신기술 자체가 유토피아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술만능주의의 환상에 빠지거나, 혹은 인공지능을 인류를 멸망시킬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절대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협소함은 인공지능이 인간 행위자와 분리된 별개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관계적 실재이며,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과 기계의 다양한 공진화의 가능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정보윤리는 정보 패턴이라는 공통적 속성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연속성과 유사성에 주목한다. 플로리디는 어떤 존재가 지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속성 중 특정한 어느 한 가지 국면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준을 ‘추상화의 수준(level of abstractio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이를 안전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가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각자가 대상에 서로 다른 LoA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정보윤리의 LoA는 말하자면 정보 패턴이다. 모든 개체들은 나름의 정보 패턴을 가지며, 정보적 차원에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플로리디는 정보를 매우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개체에 공통적인 속성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플로리디도 정보윤리를 과격한 존재론이라고 인정하듯이,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극단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개체의 정보적 속성이 도덕적 가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다.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념들이 모호해지고 논점이 흐려지는 한계가 따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플로리디 자신도 이론의 존재론적 성격과 넓은 범위로 인해 즉각적인 필요와 적용에 직접적으로는 활용하기에는 너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 추상화의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는 토대주의(foundationalist) 프로젝트가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인정한다(26). 이러한 약점은 아직 충분히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지 않은 정보윤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는 행위자 중심의 기존 윤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키우는 디지털 생명체를 살해한다면,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가? 물리적인 손실은 없으며, 실체가 없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기에 이런 경우 기존의 윤리로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플로리디의 정보윤리를 적용한다면 물리적 손실이 없더라도 이런 파괴 행위는 정보권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악이다. 이런 논리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면, 2006년 펜실베이니아의 변호사가 수만 달러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가상공간의 땅과 자산을 부당하게 몰수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인 <세컨드 라이프>의 경영자를 고소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된다.<sup>13)</sup> 이제 가상공간에서 생성된 존재나 그곳에서 벌어진 행위는 인터넷 접속을 끊는 순간 허공 속으로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된다.

### III.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인문학 교육이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로, 정보를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의 핵심 속성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정보적 속성을 모든 존재자가 윤리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세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13) The Ethics of Information, 12.

삶의 질을 높이고 잠재성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핵심 가치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도 ‘인간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이다. 과거의 휴머니즘에서 내세웠던 세계의 주인이며 모든 환경과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통제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 절대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일 수는 없다.

과학기술로 인한 인간 본성의 변화를 연구하는 철학적 흐름 가운데, 기술로 인간의 타고난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인 ‘포스트휴먼’으로의 진화를 지지하는 포스트휴먼-이즘이 휴머니즘적 주체의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 이후의 새로운 인간 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레이엄 하만의 객체지향적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이나 신유물론(New Materialism),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은 인공물을 비롯한 사물도 행위자로서 행위능력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정보철학과 유사한 탈인간중심적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유물론은 물질을 단순히 인간의 행위가 적용되거나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대상으로 객체화하지 않고, 물질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행위자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윤리적 자세를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바바라 볼트(Barbara Bolt)는 신물질주의가 계몽주의 이후부터 인간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세계는 인간 활동을 위한 자원이라고 보는 인간중심주의적 서사를 비판하고, 그러한 세계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윤리적, 생태적, 정치적 책무의 절박함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 이론들과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공유하며, 사물과 인간을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서 양자의 내재적 연관성과 상호구성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 교수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 교육을 제안한 대표적 이론가인 케이스린 스트롬(Kathryn Strom)은 데카르트 이후 합리적 휴머니즘에 기반하여 동일성을 선으로, 차이를 악으로 보는 단순화된 이분법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로는 더는 학생들에게 현대의 복잡성과 모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이분법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sup>15)</sup> 스트롬의 주장은 인간을 세계의 중심적 행위자가 아니라 전체 집합 속의 한 단위로 보는 점에서 정보철학의 인간 개념과도 통한다. 스트롬의 교수법은 일차적으로 여러 인종과 남녀 학생들이 뒤섞여 있는 영미권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수업에서 교사는 절대적인 권위자로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 또한 자신이 인종과 성별, 계급에 따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중립적이고 초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차이가 다양성을 의미할 뿐 위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 목표이다.

포스트휴머니즘 교육의 핵심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나 지식정보사회에서처럼 지식이 고정된 불변의 사실 혹은 진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상황적이고 맥락적이며 지식 생산에 참여한 행위주체나 비인간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구성된다. 스트롬은 교실 또한 교사, 학생, 물리적 공간, 책상, 필기도구, 역사적 조건 등이 가르침과 배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한데 모인 집합(assembly)으로 본다.<sup>16)</sup> 이러한 집합은 일종의 네트워크이며, 이 집합 속의 요소들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 가운데 책상이나 컴퓨터 등 도구적인 비인간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들은 학생이나 교사, 수업환경, 수업내용 등 교실 안의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 그 자체로 결과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ICT를 교실 환경에 적극 도입함

14) The education forum, 262.

15) Ibid. 262.

16) Ibid. 262.

으로써 교육을 혁신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교실이 첨단화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원하는 혁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요소들과의 연결과 접합 속에서 의도치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예로, ICT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격 교육이 한때 교육 혁신책으로 각광받았으나, 칸 스쿨 등 대안적 교육기관의 성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교육정책은 감성형 로봇 페퍼를 수업에 보조도구로 도입하는 등 ICT를 적극 활용하는 교실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비슷하게 4차 산업혁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나라라도 독일의 경우 오히려 과도한 정보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도입에 제동을 거는 교사들이 있다.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이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차이와 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갖게 이끌어 주는 포스트휴먼 교육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ICT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ICT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나 코딩 교육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기술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을 결합한다. 전공을 막론하고 우리 삶과 존재의 일부가 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술과의 접합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이며,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을 확률이 크다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그리핀과 케어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켜 주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보 시대에 걸맞게 “21세기 사고”라 할 수 있는 창의성, 비판적 분석능력,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vii). 기계의 발전으로 인간은 인간 능력을 하나씩 기계에 위임해 왔으며,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자 최고의 능력이라 믿어져 왔던 사유와 추론의 능력까지 인간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인간의 경쟁상대로 받아들이고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자동차보다 달리기를 못한다고 자동차에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사람은 없다. 자동차와 인간의 달리기는 서로 전혀 다른 작동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열을 따질 비교대상이 아니다. 베일리는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은 디지털의 폭발로 변화했으며, 21세기인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양의 정보 앞에서, 정보를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와 입장과 주체성들의 새로운 얽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생성적인 흐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말한다.<sup>17)</sup>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관점의 교육은 인간의 역할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권으로 확장된 새로운 생태계에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할 생태주의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공통적으로 탈인간중심적이면서도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긍정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다. 정보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비인간 존재들을 돌보는 정보권의 관리자, 혹은 데미우르고스로 비유한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 주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넘어서 정보권에서 다른 모든 정보적 존재들의 복지를 위하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한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점점 더 강화되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초연결성 속에서 인간이 독자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 어떻게 접촉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안에서의 위치와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타자들과의 관계맺음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책임있고 윤리적인 자세를 모색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시윤리로서의 정보윤리는 근본적으로는 “피동자에 대한 ‘존중’과 행위자가 행하는 ‘돌봄’의 윤리”(74)이며, 철저히 모든 도덕적 행위의 평가 기준이 피동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타인 중심(allocentric) 윤리이다. 피동자와 정보권의 복지(well-being)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무는 비인간 개체들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는 관리자(stewardship)의 역할을 맡아 정보권을 더욱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17) Posthuman Pedagogies in Practice, 10.

#### IV. 나가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 기계들을 비롯하여 모든 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맺어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고찰에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촉구한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상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과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탐색하고 새로운 사회상과 인간상을 모색하는 인문학의 역할이 요구된다.

플로리다가 제안한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철학과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에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지위를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점 더 자율성을 띠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 속 깊숙이 파고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인공적 존재자들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윤리 문제를 사유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 틀을 제공한다. 정보를 인간과 모든 비인간 존재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 정보철학은 인간과 기계, 생명체와 비생명체, 자연과 인공, 정신과 신체 등 근대적 휴머니즘이 기초했던 이분법적 범주들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 간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이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붕괴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들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미개척의 영역이다.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융합 교육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발표 2-1

## 스마트토이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키보(KIBO)로봇을 중심으로

양시영(고려대학교)

### 1. 들어가며 : 키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본고는 코딩교육용 교구로봇인 ‘키보(KIBO)’<sup>1)</sup>가 지닌 매체적 특징과 커뮤니케이션의 작동방식에 대한 기호학적 해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키보의 매체사적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키보는 현재 스마트토이로 분류된다.<sup>2)</sup>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토이 시장은 급성장<sup>3)</sup>하고 있는 반면 이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모든 매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토이 역시 매체적 계보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속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키보가 지닌 매체적 속성에 따라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교구, 보드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매체로 규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연구의 방향성을 취할 수 있다. 본고는 키보를 ‘TUI(tangible user interface)적 특징을 지닌 장난감’으로 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고츠키(Lev Vygotsky)를 중심으로 장난감과 놀이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스마트토이인 키보의 매체사적 분석을 위해 인터페이스의 역사를 개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키보가 취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보려 한다.



### 2. 장난감과 놀이

#### 2.1 놀이, 규칙, 자아

기호로서의 장난감의 지시대상은 인공물과 실제라는 두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장난감은 특정한 문화가

- 1) 키보(KIBO robotics kit, 이하 ‘키보’로 표기)는 2014년 출시된, DevTech 대학의 마리나 우마시 버스(Marina Umaschi Bers)교수가 4-7세 어린이들이 자신의 로봇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장식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를 위한 스크린 없는 로봇 키트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로보틱스 및 코딩을 제공하여 STEAM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http://ase.tufts.edu/DevTech/ReadyForRobotics/research.asp>
- 2) 스마트토이의 정의는 보통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장난감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작동하는 것과, 코딩교육 열풍에 힘입어 교육을 돕는 보조도구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장난감이 모두 스마트토이라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코딩교구인 키보를 다루되, 분류적 필요성에 의해 다른 의미의 스마트토이에 대한 간략한 서술도 다루려 한다.
- 3) 매일경제 07.05.0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7/05/300816/>

체현embodient된 것이라는 시각과, 어린이 자신의 자아가 체현된 것embodiment of self이라 보는 관점이 다.(Magalhães 2017: 49) 이 중 자아의 체현이라는 관점에서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인(어린이)에게 봉사하며 주인의 욕구를 서사 속에서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놀이’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규칙을 제시하고 그 규칙을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놀이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놀이와 게임의 핵심적 차이는 규칙의 유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놀이에서는 자아의 욕망에 따라 기호-의미간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게임에서는 그러한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칙을 위반하면 다르게idiosyncratic 간주되어 위반자cheater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자아Ego이다.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에서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자아를 자유롭게 투사projection할 수 있었던 반면 이러한 자아의 욕구충족 행위가 게임에서는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Magalhães 2017: 47) 즉 게임의 자아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반면 비고츠키(1978:143-186)는 놀이의 본질을 실현되지 못한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놀이의 목적으로 자아의 욕망 실현을 전제하며, 또한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다고 전제한다. 공식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모든 놀이의 상상적 상황이 이미 행동을 위한 규칙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윤희(2011: 106-108)의 자아 분석을 통해 비고츠키의 자아 개념이 기능적-사회보편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고츠키가 정의하는 의식 혹은 자아는 퍼스적인 의미의 유사성(도상성)과 인접성(지표성)의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의식은 내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며, 외적인 도상성을 바탕으로 지표적 사고의 경험됨을 통해 내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윤희는 의식하는 나를 세 가지의 기호적인 자아로 구분한다. 말하는 주체인 주어로서의 나(I)와, 사고하는 정신, 관습과 일반성의 자아(self), 그리고 일반적 사고가 체현된 복제(replica)로서의 개별적이고 생물학적 존재인 인격체로 말이다. 이를 어린아이의 놀이에서 놀이하는 자아에 대입하면, 놀이하는 자아는 이미 관습과 일반성을 전제하는 자아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체현되어 드러난 복제로서의 인격체가 그러한 규율을 놀이 가운데 행위로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 2.2 장난감과 사용자(자아)의 기호적 상호작용

비고츠키(1978:143-186)의 놀이 이론을 조금 더 다루어 보자. 놀이가 위와 같이 정의되었다면, 놀이상황 가운데서 장난감과 아이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고츠키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놀이, 특히 규칙을 기반으로 한 놀이는 유아의 발달을 선도하고 발달의 다음 영역을 창출한다. 아주 어린 아동에게는 ‘사물’이 아동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지각된 행동유도성<sup>4</sup>perceived affordance). 즉 어린 아이는 주변의 사물과 환경, 상황 등이 만들어내는 외적인 규제에 영향을 받는 상태인 것이다. 보이는 것과 그것의 의미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유치원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한다. 의미장과 시각장의 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나무 막대기를 말로 상상할 수 있고 잎사귀를 접시로 생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 장난감인 막대기가 실제 말로부터 의미를 분리하기 위한 매개적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놀이과정의 반복을 통해 아이는 자기규제를 터득하고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분리하기 시작(상징적 언어활동으로 가는 경로를 개척)한다. 상상적 상황 속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는 아동들 (감각적 활동에 얽매어 있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분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실제 사물과 대체물의 속성 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컵을 말이라고 가정하지는 못한다. 어린아이가 지니는 필연적 제약인 상황 구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 혹은 단계는 장난감이라는 매개 혹은 기호를 행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4) 깁슨(James J. Gibson)이 발명하고 노먼(Donald A. Norman,)이 주창한 어포던스 개념은 그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추세이며, 여기서는 사물이 그 특성대로 사용되게 유도하는 개념의 행동유도성을 말한다.



## 2.3 언어와 고등정신 습득의 도구와 기호로서의 장난감

이어서 비고츠키의 ‘도구와 기호’(Vygotsky 1984)를 중심으로 언어와 고등정신 습득의 도구로 기능하는 기호 작용에 대해 다루며 이를 키보에 대한 기저 이론으로 제시하려 한다. 비고츠키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성으로, 기호 사용과 연관된 모든 조작들이, 그 조작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모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발달, 구조, 기능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볼 수 있는 통합적인 무언가, 즉 고등정신기능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다.

기초정신기능들과 실행 지성에 있어서는 동물 세계가 인간의 초기단계와 유사성을 가지지만, 기호의 사용을 통해 행위가 조직되면서 이러한 자연적 상태를 넘어서 기능들의 급진적 재구조화가 발생한다. 내적인 고등심리 기능인 지각, 기억, 주의, 행동 등은 어린이의 상징활동의 발달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적인 상징적 형태의 활동(말, 읽기, 쓰기, 계산하기, 그리기) 역시 같은 수준의 고등심리기능의 체계 속에 포함된다. 고등 기능들은 기초적인 심리적 기능과는 전적으로 다른 토대 위에 구성된, 비록 그 구성상 다양하기는 하지만 발생적 본질에 의해 통합된 심리적 체계로 나타난다. 구조적 측면에서 고등 기능들은 기초적인 과정들의 직접적인 반응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자극(기호)이라는 수단의 사용을 토대로 형성되며, 이로 인해 매개적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호화 과정은 두 차원으로 발생하며, 첫 번째 차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과정으로, 두 번째 차원에서는 아동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이윤희 2011: 106 재인용)이로서 기호화 함께 또 다른 기호인 그것의 사용자 즉 아이의 다루는 아이의 해석체 역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구현을 통한 내면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브루너(Jerome Bruner)의 인지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브루너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 및 인지발달을 돕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호를 통한 언어의 습득과 함께 고등정신기능으로 성장한다는 비고츠키적 관점과 맞닿아있다. 키보의 발명자인 버스는 코딩을 새로운 리터러시로 정의한다.<sup>5)</sup> 아이들은 키보를 매개(기호)로 삼아 코드를 사용하면서 배우고, 유창해진다. 후술하겠지만, 키보는 코딩이라는 외적 고등심리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적 보조기호로 작용하며, 코딩에 대한 아이의 해석을 통해 아이와 함께 확장되어 가는 해석체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 3. TUI 장난감의 매체사

### 3.1 최초의 컴퓨팅 인터페이스: 물리적 공학기술에서 상징적 표현(CUI)으로

최초의 컴퓨터(전기 자동 계산기)인 하버드의 ‘Mark I’은 1944년에 미국의 수학자 에이컨(Haward H. Aiken)과 IBM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컴퓨터는 전기회로를 스위칭하거나 와이어를 진공관 튜브에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래밍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새로운 계산을 할 때마다 전기회로를 다시 배선해야 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계산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에 적합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야 했다.(Bers 2018: 61-62) 즉 매번 새로운 ‘물리적 공학도구’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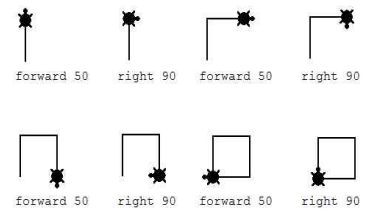
그러나 1945년에 프로그램 내장 개념이 등장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늘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물리적 공학 기술’이었던 ‘프로그래밍’은 상징을 다루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표시나 입력을 문자 기반으로 하는 명령어 인터페이스(CUI, Character User

5) 버스는 비고츠키의 이론 중 다음을 공감하며, 표현 매체로서의 코딩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구문과 문법과 같은 언어적 코드를 배운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언어를 사용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코딩’이라는 컴퓨터 리터러시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이것이 코딩교육의 목표이다.(Bers 2018: 51)

Interface)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코드(상징적인 문자)’를 다루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 것이다. 이로써 컴퓨터는 물리적 배치가 아닌 글쓰기 기술이 되었다.<sup>6)</sup>

### 3.2 GUI의 발명: LOGO 프로젝트와 Smalltalk<sup>7)</sup>

CUI에서 GUI로 변환의 역사는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1967년에 진행된 LOGO 프로젝트<sup>8)</sup>에서 시작된다. LOGO 프로젝트는 어린이의 학습과정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은유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컴퓨터는 어린이에게 연필과 같이 쉬운 사용법을 가져야 했다.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듯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손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수학의 언어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수학나라로서의 컴퓨터 환경이었다. 여기서 어린이가 컴퓨터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매개는 지시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터틀(Turtle)’이라 명명된 화면 속 로봇이었다. 아이들은 초기에는 터틀을 그저 원격 조정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지만, 익숙해진 다음에는 터틀을 매개로 컴퓨터와의 정서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LOGO 언어로 코딩된 프로그램을 통해 도형 그리기 등 보다 높은 상호작용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어린이는 실질적 측면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수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사용자이자, 개념적 측면에서는 상호작용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기능했다.



당시 유타대학의 박사과정이었던 앨런 케이(Alan Kay)는 이러한 LOGO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컴퓨터의 사용자로 어린이를 상정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컴퓨터간의 공진화를 목표로 하는 컴퓨팅 모델인 다이너북(Dynabook)의 구축을 시도했다.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케이와 그의 팀은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스톨토크Smalltalk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케이는 제롬 브루너의 어린이 인지 모델에 주목하게 된다. 케이는 완전히 시각적인 컴퓨터 언어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는 그가 영향을 받은 인지모델인 피아제(Jean Piaget)와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가 자신들의 연구에서 아이들의 지배적 사고의 양상 dominant thinking modes 중 하나가 시각적 심상 visual imagery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 팀은 어린이가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시각적 아이콘을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통합했다. 아이들은 화면에서 물건을 손으로 조작 manipulate하면서<sup>9)</sup> 추상적 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케이의 인터페이스 설계 이론은 주로 브루너의 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

케이가 기반으로 한 브루너(Bruner 1966)의 연구는 문제해결, 개념화, 사고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한 아동의 인지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브루너의 연구는 피아제의 선구적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사고 mentality를 연구하는 방향성이 달랐다. 피아제는 어린이와 성인이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

6) 하지만 박준석(2018) p.177-178 에 제시된 입장을 취한다면 여전히 많은 전자제품들 역시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칩(글쓰기)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각 칩들은 고유의 기능(메모리칩, 터치스크린 칩, 오디오코덱 칩, 전력관리 칩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소스코드가 영구히 새겨지는 형태로 제작된다. 즉 칩과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스코드를 얼마나 쉽게 수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7) GUI의 역사에 관하여는 아래의 두 문헌을 주로 참고 및 발췌 편집하였음.

- 박해천. "은유의 건축술." 현대미술사연구 18 (2005): 73-106.

- Barnes, Susan B. "Alan Kay: Transforming the computer into a communication medium."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29.2 (2007): 18-30.

본 GUI의 역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다음의 논문을 선행연구로 볼 수 있음

- 오병근. "개인용 컴퓨터 OS 를 중심으로 한 GUI 변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02): 213-222.

8) [https://el.media.mit.edu/logo-foundation/what\\_is\\_logo/history.html](https://el.media.mit.edu/logo-foundation/what_is_logo/history.html)

9) 여기서 말하는 조작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명령어 기반(CUI)이라는 관점에서는 마우스도 직접적 조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쳐 진행되는 단일사고single mentality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브루너는 다층적 사고multiple mentalities 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다층적 사고는 행동주의적 자극-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박해천 2005, 8-9) 브루너는 사람들이 경험을 세계에 관한 모델로 변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행위적enactive 학습이다. 행위적 단계에서 표상representation은, 습득 후 습관화되는 일련의 반응들에 기반한다. 두 번째 도상적iconic 단계는 시각과 다른 감각조직에 의존하는 표상 체계를 사용한다. 세 번째 상징적 단계에서 표상은 말이나 언어를 통해 확립된다. 브루너는 퍼스<sup>10)</sup>적 삼차성과 비고츠키<sup>11)</sup>의 매개적 인지이론을 이미 읽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론에도 적용하고 있다. 즉 브루너의 연구는 단순히 피아제 내재적 발전이론의 연장선상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퍼스와 비고츠키의 기호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인지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행위적enactive	상대적으로 조작적relatively manipulative이며, 상당히 불안정하고 일방적인 주의single track attention. 지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에 대한 지식이며, 반성reflection적 사고는 적음.
도상적iconic	보다 반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 표상적 이미지representive image 와 환경을 통해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이 가능함.
상징적symbolic	사고의 매개medium of thought로 기능하는, '언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 대상보다는 명제proposition에 대해 생각하려 함.

표1. 브루너의 인지이론(Bruner 1966:27-28)

여기서 처음 두 단계와 세 번째 상징 단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상징적 단계에서 언어는 세상의 자의적 측면을 표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언어에 결부된 자의적 의미를 통해 문법과 통사적 측면이 지각되는 것이다. 문법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은 가설적 명제를 나열하는 규칙적인 방법을 가능케 하며, 이는 행위나 이미지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는 얻을 수 없는 추상적 현실개념이다. 하지만, 어린이가 추상화된 상징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행위와 이미지라는 초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표상에 대한 브루너의 인지모델을 바탕으로, 케이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모델을 만들었다.(표 참조)

행위	인터페이스	사고	세부내용
행위한다(DOING)	마우스 mouse	행위적 enactive	현재의 위치를 알고 마우스로 조작manipulate
이미지를 통해 with IMAGES	도상icons, 윈도우window	도상적 iconic	인식recognize, 비교compare, 형상화configure, 구체화concrete
상징을 만든다 make SYMBOLS(컴퓨터 언어)	스몰토크 Smalltalk	상징적 symbolic	여러 추론 과정을 통합, 추상화 tie together long chains or reasoning, abstract

표2. Kay의 이미지를 통해 행위하며 상징모델을 만든다는 것(Kay 1990:129)

10) 브루너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론과 퍼스와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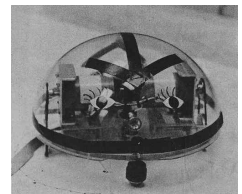
“인지적 성장cognitive growth에 관한 연구에서 행위적enactive, 도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 표상이 '단계'를 가진다는 표현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문제는 어린아이의 초기에 세 종류 모두의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표현들은 다르다. 어린아이는 지시성referentiality 혹은 의도성intentionality 등을 충분히 잘 다룬다. 그리고 이는 그가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퍼스적인Peircean 아이디어이다. 퍼스적 사고는 마치 기준에 무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표에서 도상으로, 그리고 상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퍼스가 문제를 너무 추상화하려 한 결과이다. 그것들은 이미 거기에 있으며, 점차 차별화되어 포획된다” (...) (Shore 1997: 10-11번역)

11) 나는 러시아 학자들이, 학습과 성장에 관한 그들의 유일한 모형이었던 파블로브의 이론을 넘어서서 자극-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의 매개에 기반하는 이론을 세웠다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다.(Bruner 1966:18 번역)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결핍되면 성장도 실패하며, (...중략...) 비고츠키와 미드(George Herbert Mead)는 주장에 따르면 성장된 사고는 이러한 대화의 내적 측면을 말한다.(Bruner 1966:19 번역)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사고mentality에 부합하며, 케이에 따르면 단일 사고가 아닌 복합적 사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시각체계의 도상적 사고는 즉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각장에 의존적이며 산만한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상징적 체계는 맥락 속에서 머물며 간접적 연결을 만든다. 도상적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산만해지기 쉽고, 상징적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일한 맥락 하에서 오래 집중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케이는 세 가지 수준의 표상을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통합한다. 마우스는 활동적 표상의 한 형태로, 화면의 아이콘을 조작할 수 있다. 아이콘과 윈도우는 도상적 표상의 차원level에서 디자인에 통합되었고, 스몰토크 언어는 상징적 차원을 다루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케이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의 결과물로 완성된 스몰토크와 다이어북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그 후계자인 애플의 GUI는 아이콘을 프로그래밍 직전의 단계로 사용하는 대신, 그저 컴퓨터의 조작을 좀 더 하기 쉽게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이 시스템은 케이의 원래 추구해온 인간-컴퓨터 인터랙션의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케이의 추구가 공진화는 사라지고 행위와 이미지만 남은 것이다.

### 3.3 TUI의 발전: Button Box와 Slot Machine<sup>12)</sup>

1970년대 MIT AI 랩의 페퍼트(Seymour Papert)와 그의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소개하고 물리적 공간 속에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MIT 미디어 랩의 목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물리적 세계로 옮겨와 창조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추상적인 컴퓨팅과 아이들의 습득능력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차적 연구성과물이 바로 GUI 부분에서 전술했던 Logo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명이었다. 전술한 GUI의 계보에서는 화면 안의 거북이를 다루었지만, 그 거북이는 화면 밖에도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연구실 바닥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가르쳐 펜처럼 활용할 수 있었다. 페퍼트적 아이디어의 핵심은 '몸 중심의 기하학body-centered geometry'으로, 아이들이 추상적 기하학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서 몸으로 모델링하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 기하학적 형태를 연습하면 더 빠르게 배웠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 터틀이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아이의 몸을 움직여서 그 모양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아이는 사각형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몇 번의 연습과 오류를 통해, 아이는 몇 걸음 가서, 90°회전하고, 이것을 4번 반복하면 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행한대로 터틀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보상을 받는다.



Logo를 몇 년간 가르치면서, 10-14세 미만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존의 방식(키보드로 작성하는)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sup>13)</sup> MIT 미디어 랩의 연구원 펄먼(Radia Perlman)은 이것이 단지 프로그래밍의 언어구문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고, 촉각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게 된다. 그녀는 Button Box와 Slot Machine이라 불리는 것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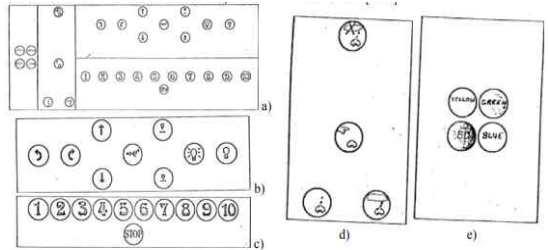
Button Box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숫자박스(1-10까지 숫자), 행위박스(앞으로, 뒤로, 오른쪽 돌기, 왼쪽 돌기...), 메모리 박스(기억 시작, 하기, 잊기), 4가지 명령 박스(노랑, 빨강, 초록, 파랑). 아이들은 키보드 대신 이를 마치 리모콘처럼 사용해 터틀을 조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메모리 박스로,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거북이에게 명령한 기록을 저장 한 다음 나중에 재생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12) 이 단락은 TUI의 전체 역사가 아닌 McNerney(2004)를 중심으로, 앞 단락과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MIT 미디어 랩의 Logo 프로젝트 등 몇몇 핵심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앞의 GUI와 동시대의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케이의 상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TUI라는 측면에서 단락의 순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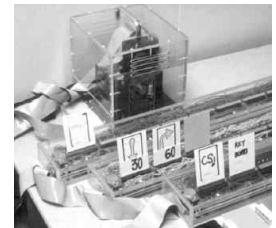
13) 이는 앞서 서술한 비교초기적 고등정신구조의 부재로 설명된다.

자신들의 구체적 행위를 터틀이 할 행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추상적 지시문 목록을 입력하는 대신에, 물리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보여주고, 다음의 놀이를 위해 그 순서를 저장했다.

하지만 이 Button Box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는, 4가지 명령박스를 통한 명령의 호출은 아이들에게 너무 추상적이었으며, 둘째로 이 시스템은 한번 기록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짜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필먼은 두 번째 시스템인 Slot Machine을 개발한다. Slot Machine은 행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긴 상자(절차를 나타내는)와 슬롯 slot(명령어카드를 꽂을 수 있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명령이 표시된 플라스틱 카드를 슬롯에 순서대로 배치하고, 각 행의 끝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명령카드가 순서대로 실행되었다. 즉 기존의 버튼을 사용해 터틀을 다루는 대신, 명령의 순서를 시각적으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TUI 장난감으로서의 키보(추가보충 및 정리 예정)

키보는 위에 제시된 Logo 프로젝트의 TUI적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 키보의 구성<sup>14)</sup>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몸체, 바퀴, 모터, 전구(정보의 입출력 표시), 센서(거리, 소리, 빛, 전구 센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18가지 명령어(시작하기, 종료하기, 전진/후진하기, 회전하기, 흔들기, 왼쪽/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기, 흰색/빨간색/파란색 불러기, 노래하기, Beep-소리내기, 재생하기, 박수소리 기다리기, 반복 구문 만들기, 반복 구문을 종료하기, 만약 구문 만들기, 만약 구문을 종료하기)



- 키보의 작동 방식<sup>15)</sup>은 다음과 같다.

아이 행위의 지시대상	아이의 (촉각적) 행위
명령어 만들기	나무 블록을 조합
키보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	키보의 본체에 블록들을 스캔
키보 로봇을 움직이기	실행 버튼 누르기



앞서 2.1단락에서 논의한 규칙과 자아에 대한 논의를 키보에 대입하면 키보의 입력장치는 상대적으로 게임적 특성을, 인터프리터인 로봇은 상대적으로 놀이적 특성을 가진다. 아이는 반복적인 블록의 결합 행위를 통해 규

14) “키보는 로보틱스 키트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보 로봇의 몸체, 바퀴, 모터, 전구, 다양한 센서들 및 플랫폼 등이 하드웨어이며, 손으로 직접 나무 블록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각 나무 블록에는 아이콘과 문자, 바코드가 표시된 다양한 색상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의 한쪽에는 나무못이, 다른 한쪽에는 그 못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블록들은 전기적 요소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키보 로봇의 몸체에 스캐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Bers 2018:163-164)

15) “놀이터 접근 방식으로 설계된 키보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회전목마, 춤을 추는 댄서, 개썰매 등 아이들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키보의 가능성은 아이들의 상상력만큼 무한합니다. 아이들은 나무 블록들을 일련의 순서에 맞춰 조합하여 명령어(프로그램)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키보의 본체에 블록들을 스캔하여 수행할 작업을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버튼을 눌러서 키보 로봇을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키보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직접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문제해결사, 디자이너, 예술가, 댄서, 안무가 그리고 작가가 되어봅니다.”(Bers 2018:163)

칙성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체현되어 드러난 복제는 키보 로봇으로 드러난다. 명령어의 결합은 놀이에서의 내러티브Narrative의 순서와 지표적 연관성을 지니며, 아동을 서사 구조로 이끈다. 따라서 게임적 특성의 입력장치와 상대적으로 놀이적 특성을 지닌 인터프리터 두 개의 매체사를 구분해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인형 등을 가지고 노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칙을 지니는 상상적 놀이와 다르게, 키보의 로봇과 블록은 사실상 다른 식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시각적 행동유도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다른 종류의 스마트토이(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기능하는)가 가진 어포던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키보로봇의 세부 요소들이 지시하고 있는 교육적 기호와 재미를 위한 기호를 구분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놀이적 상상력은 크게 세 군데 정도에서 드러나는데, 처음에 목표(개썰매, 회전목마 만들기 등)를 설정하는 측면과, 주로 명령어를 어떻게 조합할지, 그리고 키보의 아트 플랫폼을 꾸밀 때이다. 이러한 행위는 게이머가 목표로 했던, 행위를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상징적 사고로 이어지는 행위를 정확히 반영한다. 추가로, 수업 상황에서는 키보와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비고츠키적인 사회적 해석체를 촉진한다.

TUI인터페이스는 특히 4-7세 어린아이의 경우 키보를 통해 기존의 시각적 인터페이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각적 인접성과 유사성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촉각적 기호와 행위적 상호작용을 통한 고등정신기능의 습득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태블릿이나 디지털 게임 혹은 디지털 장난감 등에 부재하며, 명령체계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추상화되어 있어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고, 이로 인해 디지털은 장난감과 결합되는 데 있어서 주로 비판적 시각을 받아 왔으며, 이는 현전성의 상실과 함께 추가되는 새로운 디지털적 자질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점은 키보 역시 근대적 놀이의 계보 하에 있으며, 행위와 블록을 연결하는 은유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발표 2-2

## 기술변혁과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제안

오장근(목포대)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이 지향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파악은 기술 변화에 주목한 산업계의 트렌드 분석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현대사회의 전면적 격변의 핵심 사안을 인지, 노동, 생명의 세 가지 영역에서 확인하고, 이 핵심주제를 인문학적 독법으로 접근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야기된 사회 변화와 당면 문제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는 독일과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CPS(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즉 가상과 실제 기반의 제조업 분야에 강점을, 미국의 경우는 A.I 등 디지털 인텔리전스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IoT와 로봇산업 기반의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그 곳에서 직면하는 당면 문제들에 대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독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생산의 자동화로 노동의 소외를, 미국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소외를, 일본 로봇산업에 있어서는 감정의 소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며,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모두 학교 교육의 과제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표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당면 문제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국	주력분야	발생 가능한 당면 문제들
미국	제조업	노동의 소외
독일	디지털 인텔리전스(A.I.)	권력의 소외
일본	로봇산업	감정의 소외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한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학습의 방향은 총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술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제고와 기술의 책임을 함께 인식하는 인문학적 인식, 그리고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과학기술의 기초소양 함양이나 문·이과 통합 교과 신설, SW 교육 필수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전체적인 학습량 감소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 추진,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통합적 연계,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고자 하는 토의·협력, 탐구 학습의 강조, 과정 중심 평가로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 Ⅲ. 4차 산업혁명의 인간학적 지평<sup>1)</sup>

#### 1. 바이오 생명 나노 기술의 융합과 인간 생명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DNA 해독 등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생명에 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융합의 NBIC(Nano, Bio, Information, Cognitive Science)’ 혁명의 핵심 분야이다. 즉, 융합의 NBIC이란, 나노기술, 생명공학 및 유전자 기술,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디지털 정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인간 생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신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죽음이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 유전, 나노 기술의 융합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제시할 것이다.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갖거나 미래에 발현될 치명적인 병의 인자를 미리 적발하고 교정함으로써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의 결합은 불치의 병이나 노화를 고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거나 우생학적으로 보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수의 나노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불과 며칠 만에 지구의 바이오 매스(biomass)가 소멸하는 ‘grey goo’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 생명에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의 부상은 정치·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산업적 문제들을 제기될 수 있다. 유전자 판독 기술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및 질병 예방 의학 발달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관행이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었다면 미래에는 질병 예방과 발병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무병장수, 노화 지연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건강한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하려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기술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공학적 융합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내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인간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가능성을 매우 높다. 20세기 과학기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과학기술적 사건이 불가능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심층적이고 그로 인한 일상적인 변화는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변화를 겪게 되고, 삶과 죽음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간 생명의 영역에서 죽음이 후퇴할 가능성이 인간의 지평에 떠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인간의 유한성이고 유한하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창조적 행위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매우 오랫동안 길게 산다면 인간은 삶을 달리 바라볼 것이다. 무료함이나 권태로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아울러 다양한 심리적

1) 본고의 Ⅲ장은 본 연구팀이 제출한 2차 결과보고서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인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예컨대 끝없이 죽음이 미뤄지는 ‘죽음의 유예’ 현상은 기존의 인문학, 철학, 종교의 인식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짧은 시간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랜 지혜이다. 오래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면 현재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인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그것의 바탕이 되는 기술의 융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인문학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경제 산업 기술의 경쟁의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명과 인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교육과 학습, 인식과 성찰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문명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 설계와 개념기획 그리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조망과 담론 구성력, 견실한 윤리적 인간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

## 2. 로봇 자본주의의 부상 : 부의 불평등과 노동의 종언 가능성

자동화의 충격과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감에 따라, ‘로봇 세금 (robot tax)에 대한 요구함을 얻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초 유럽 의회는 EU에 상정하기 위한 구체적 로봇 세금을 고려한 바 있다. 프랑스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회당 주자인 브누와 하몽 (Benoît Hamon)은 자신의 공약에 로봇 세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빌 게이츠 역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로봇 세금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물론, 로봇 세금에 대한 제안들은 매우 다양하나 한 가지 공통적 약속을 공유한다. 기계와 알고리즘들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이다. 로봇 세금은 이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을 재훈련시킬 수 있는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아직 로봇 종말론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갈수록 명석해지는 인공지능형 컴퓨터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헤드라인의 파상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제 데이터는 자동화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단위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부정적 소식은, 만약 가까운 시일 안에 자동화가 파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것은 불평등의 수준을 훨씬 심화시켜 현재의 소득 불평등한 한국 실정이 오히려 거의 평등적인 유토피아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향후에 진행될 자동화로 인한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전망이다.

로봇들에 제기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절대적 악이 되어 우리 모두를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위협은 로봇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삶 자체가 액면 그대로 방대한 다수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되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 세금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로봇 세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빈곤화에 대한 논의에서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량 자동화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것은 곧 진지한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했다. 최근의 예는 은행의 금전 출납계 직원의 경우이다. ATM 는 1970년대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금전출납계 직원 의 총 숫자는 그 이후로 계속해 성장해 왔다. ATM이 은행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 은행들은 더 많은 지점들을 개점했으며, 전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금전 출납계 직원을 갖게 만들었다. 일자리의 모습이 변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금전 출납계 직원 현금을 내주는 것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내준다. 하지만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른 것은 기술이 너무나 정교한 나머지 인간들이 해야 일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ATM이 단지 현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합한 주택담보 상품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공 지능과 관련된 현재의 수사학이 과도한 반면, 지난 수 년 동안 의

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알파고 보다 더 급진적인 획기적 발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단순히 노동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아예 제거해버릴 소지가 있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신, 자동화는 노동 자체가 없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 없는 부가 뭐가 나쁘단 말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부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임금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의 몫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이다. 이 같은 몫은 늘 지금까지, 자본 소유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보상에 비해 작았다. 그리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 몫은 갈수록 더 작아졌다. 노동 임금이 돌아가는 국가 차원의 수입의 지분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자본에 돌아가는 지분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기술은 노동자들을 더욱더 생산력이 강한 주체들로 만들었으나, 이윤은 내려가지 않고, 돈은 빈민국에서 부유국으로 흘러갔다. 생산력은 1973년과 2011년 사이에 80.4% 제고했으나, 평균 노동자의 시간 당 실제 보상은 오직 10.7%가 인상되었을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대량 자동화는 이 같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소지가 농후하다. 불평등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그들 스스로에 의해 더욱더 부자가 되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본은 단지 노동의 종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종언을 의미한다. 임금 없이는 노동자들은 부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접근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물론이고 말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사회적 권력의 일차적 근원 역시 상실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지점을 제어하는 한, 그들은 파업을 통해서 그것을 봉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하게 자동화된 경제는 노동자들을 잉여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로봇 자본은 엘리트들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분리 독립시킬 수 있다. 자가용 비행기에서 개인 소유 섬들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은 이미 상당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 최상의 철옹성 같은 사치스러운 벙커 역시, 외부 세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대량 자동화는 그 같은 연계를 단절시킬 것이다. 노동력 없는 부의 무한한 공급을 구비한 엘리트들은 대량 실업자들을 썩게 방치하면서, 자신들의 대 주택에서 스스로를 봉쇄시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로봇 기술과 인공 지능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 없이는 그 같은 산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악화된 상황으로부터 종말론적 상황으로 치달을 소지가 농후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로봇 세금의 의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논의들은 대량 자동화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가 극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대신, 다수에 의해 소유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니며 로봇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를 질식시키기 전에 부의 재분배를 위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인지의 혁명

인지는 인식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신과정을 포함하는데 인식의 경험은 감정이나 의지의 경험과는 구별된다. 간단히 말해서 인지는 지각·재인(再認)·상상·추론을 포함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한다. 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판단을 통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 이 대상은 어떤 한 개념 또는 몇 가지 개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현대의 인지이론에는 2가지 폭넓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정보처리적 접근법인데, 정보처리적 접근법은 인간의 사고와 추론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를 획득·처리·저장·사용하는 복잡한 컴퓨터 체계에 정신을 비유한다. 또 다른 접근법은 인지적 적응을 동화와 조절이라는 2가지 기본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연구에 입각한 것이다. 동화는 개인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내부 모델에 비추어 현실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 모델은 이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지와 관련되어 오늘날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관심을 끄는 관점은 정보처리적 접근법이다. 공학 분야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실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약한(Weak) AI’와 ‘강한(Strong) AI’다. 약한 AI는 특정 영역의 문제를 푸는 기술이다. 검색과 사진 판독, 사람 얼굴 인식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해 인간의 명령에 따라 이미 설계돼 있는 틀 안에서 작동한다. 조건이 주어지면 동작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할지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강한 AI는 이와 달리 문제의 영역을 좁혀주지 않아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말한다. 강한 AI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 수행하기도 한다. 외부 명령을 받아도 자체 판단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에 따라 그것의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약한 AI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강한 AI를 만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공지능 발달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또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개발하는 탓에 현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인공지능 유토피아론과 디스토피아론은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무대로 서로 영기고 부딪힌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

몇몇 심리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의식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여 인공지능이 본질적으로 의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데닛(Daniel Dennett)은 인간의 의식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인간의 의식은 모두 물질적이거나 진화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와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궁극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련의 알고리즘에 불과하며, 정신의 작용이 알고리즘적 현상이 아니라는 신비주의적 ‘환상’이 존재하는 것은 정신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고, 분해한다면 정신작용, 감정 등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과학자들에 의해 발명된 인공신경망은 종래의 투입과 산출이라는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학습’의 능력을 발휘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처럼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고성능 CPU가 진화의 법칙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 인공지능의 출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규범을 공유하고, 규범을 강제하며 인간들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규칙을 습득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계는 인공지능 설계자가 부여한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다고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인류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파괴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폭력을 감소시켜왔던 우리 사회적 이상을 계속 진보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커즈와일은 생물학자들이 ‘재조합 DNA’가 인류에 끼칠 위험성을 경계해 제정한 ‘아실로마 가이드라인’의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술에는 윤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랜들 콜린스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미래의 진정한 위협은 프랑켄슈타인류의 로봇들의 반란이 아니라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 자본가 계급을 위한 노동의 기술적 대체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강한 AI의 출현보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회는 부의 증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술에는 윤리가 필요하다.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 IV. 4차 산업혁명이 추동할 학교의 역할과 운영의 변화

‘초연결성’, ‘융합’,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질문이 ‘학교는 사라질 것인가?’였다. 물론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위 전통적 형태의 학교, 정해진 교과를 물리적 교실 환경에서 정해진 시간에 학습하는 형태의 학교 모습은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25년, 2035년 등 향후 15년에서 20년 사이의 학교 체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관련 보고서 등에서는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통적 학교의 규모 축소 이외에도 학교의 제도적 유지 기반인 학력 인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예측이다. 즉,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를 포함한 비전통적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며,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면서, 고교와 2년제 대학의 경계가 흐려짐은 물론 4년제보다 교육 성과가 좋은 2년제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등은 학교의 역할 변화를 가져올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도 학습 공간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체험 중심의 학습이 확대되며, 교육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고 학문간 융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결국 학교는 정해진 학제와 학력인증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변화는 결국 교육 수요자와 사회적 수요에 현재의 학교체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면서, 더 이상의 변화 외면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진숙 2016 참고). 결론적으로 학습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된 선택적 교육과정이 확대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효율성을 꾀하는 학교가 유지되어야 할 학교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인적자원 레포트(the human capital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원 지표(human capital index)는 전체 130개국에서 32위에 랭크되어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은 54위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지표는 바로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혁신이 미래전략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엣지 파운데이션(Edge foundation)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고용의 문제와 교육의 혁신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교육은 실제생활과의 적용, 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칸막이 식의 지식에서 벗어나 실생활 속에 적용되어야 할 응용 가능성은 앞으로 교육의 혁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복잡한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에 이르러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능력으로 10가지 특징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시된 10가지 인적자원의 능력은 복잡한 문제의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인적관리능력, 협업, 감성지능, 결정과판단하기, 서비스지향적 사고, 협상능력, 유연한 인지를 그 특징으로 꼽고 있다. 이는 교육혁신으로 이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체로 인문학이 추동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능력은 점점 더 인문학 기반의 교육플랫폼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시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V.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초래될 기술혁신이 사회변혁에 끼치는 복잡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맺는 영속적인 새로운 사회관계망(인간과 로봇)은 앞으로 본질적인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변혁은 새로운 윤리적 차원의 문제와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학습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변혁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이슈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복잡한 프로세스를 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을 고려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공공정책과 상호작용하게 될 정책적 함의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면밀히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헌석/유상욱(2015)은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문제해결형 인재’에서 ‘문제창조형 인재’로
  - 문제해결형 인재 :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발견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인재
  -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문제해결형 인재’보다는 ‘문제창조형 인재’가 요구됨
- ‘전문지식형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 전문지식형 인재 : 특정 학문의 관점과 전통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재
  - 융합형 인재 :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일 학문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융합형 인재가 요구됨
- ‘개인성과형 인재’에서 ‘관계성과형 인재’로
  - 개인성과형 인재 : 혼자서 일하며 성과를 내는 인재
  - 관계성과형 인재 : 여러 다른 분야의 조직과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업하여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 미래사회는 혼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성과물로 완성할 수 없는 조직의 시대이고 협력의 시대임. 이런 시대에서는 관계성과형 인재가 요구됨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목표는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천하며, 국제화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에 있다. 이를 위한 미래 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가르치는 조직에서 학습조직으로, 교수중심에서 학습자·수요자 중심으로, 수동적인 학생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강의실 학습에서 탈(脫) 시간·공간 유비쿼터스로, 혼자만의 학습에서 상호작용·협력학습으로, 선형적·순차적 교육과정에서 다차원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정형화된 학습에서 현장중심 문제해결능력 강화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진숙(2016) 4차 산업혁명과 교육방향, 『교육제주』, vol. 170, 14-20.
- 조한국(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권 2호, 53-89.
- 정재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교육의 전망과 과제, 『이슈페이퍼』, 06, 한국교육개발원.
- 오헌석/유상욱(2015) 팀학습 핵심수행자의 역할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리더십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HRD 연구』, 17권 2호, 93-124.
- Schwab, K. (2016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Schwab, K. (2016b).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In Rose G(e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1일차**  
5.3. Fri.

**I 문화교류 1분과**

주제발표 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윤 영(호남대)

1-1.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교육방법 탐색

이순금(순천대)

1-2.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박미숙(인하대)

주제발표 02

독일문학, 할리우드와 만나다

이광복(목포대)

1-1.

주민참여 도시재생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길미옥(조선대)

1-2.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문화콘텐츠(공연예술)를 중심으로

최철(조선대)





## 주제발표 01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sup>1)</sup>

윤영(호남대학교)

### 1. 들어가기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 논의된 197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Hymes(1972)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Canale&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등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 해석하는 능력으로 목표 언어권의 화행과 그 문화권의 사회와 문화적 특징을 알아야만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실패하지 않고 적절히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면서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향도 변화되었으며, 문화교육의 위상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문법적 지식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기술을 강조하였다면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된 이후에는 언어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목표 언어권의 일상생활문화나 성취문화, 관념문화 등을 학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후자, 즉 언어 속에 담긴 문화(언어문화)가 아닌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 자체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하며, 문화교육 중 특히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문화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 한국어 학습의 목적,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하고자 하는 학습 대상자는 재외동포학습자, 다문화가정자녀,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문화교육을 위한 내용 선정에 있어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특수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다. 이들 각각을 위한 교재는 국립국어원이나 국립국제교육원 등에서 개발되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교재들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학습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문화를 전달하고 교재 간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습자 각각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여 교재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학습자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군 각각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모색해 본 후, 실제 이들을 위해 개발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각각을 위한 문화교육 내용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최근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는 ‘문화’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문화만을 다루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재도 다수 출판되었다.

## 2.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별 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한국어 학습 대상자별로 이들이 추구해야 할 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해외이주 역사가 오래되면서 재외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민족적 정체성 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로는 거주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정착,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 민족적 유대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다만 민족적 정체성 및 유대감,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문화교육의 내용이 한국의 것만을 강조한다거나 한국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각을 이해,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양국 간의 문화교류자, 혹은 거주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는 문화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요구와도 일치하는데, 김태령(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재외동포학습자(15-25세)들은 역사, 정신, 의식주, 현대사회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서 ‘역사, 정신’ 등은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문화이며, ‘의식주, 현대사회’ 등은 현재의 한국,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로, 이는 재외동포학습자들이 현재의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인과의 유대감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를 구성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문화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자녀에는 국제결혼자녀(국내 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탈북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난민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의 범위는 매우 넓다. 우선은 학생의 신분이므로 한국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문화, 또래 집단과의 원만한 교류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문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가족 간의 소통 및 관계,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문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매우 예민한 시기의 학습자로, 정서적 불안이나 정체성의 혼란, 문화적 충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정자녀 각각이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각각에게 맞는 맞춤형 문화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도에 입국하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의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지낼 가능성이 크므로(원진숙, 2013:296) 이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지원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재외동포학습자(청소년 포함)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자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상황과 문제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의 일상생활문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세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 한 가정의 구성원 및 결혼으로 형성된 친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야 하며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직장생활 등 각각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잘 대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황인교(2008, 267-272)는 이들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의 목표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능숙한 한국어능력 함양을 돕기 위한 언어표현, 언어사용과 관련된 문화교육(단어, 구의 문화적 함의 등)’, ‘가정 및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서 무리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지식 및 가치 습득과 관련된 문화교육’, ‘목표 문화와 모어 문화의 교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목표

3)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글교육 및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의 설립목적 및 핵심가치 등 참고.

는 언어교육(말하기나 듣기 등의 담화를 구성할 때)에 반영하여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문화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또한 최은지(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시기적절한 문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적응 과정에서 '생애 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단계를 '예비단계, 접촉 및 갈등단계, 안정 및 정착 단계, 확대 및 성숙단계'로 구성하고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일상생활 문화, 가족 및 친족 관계, 자녀 양육 및 교육,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역량 강화' 등을 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산, 육아, 자녀교육, 직장생활 등을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각각의 생애 주기에 맞는 문화항목을 적절히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법률 정보(체류, 비자, 귀화 등)도 문화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지난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의 가치, 정신문화도 학습할 수 있도록 문화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한국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나 앞에서 살펴본 여러 학습자에 비해 이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sup>5)</sup> 이들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은 한국의 일상생활문화, 그리고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문화일 것이다. 나미희(2013)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직장에서의 일, 일상생활의 적응, 한국사회와 문화의 이해'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때에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이들의 요구와 한국어교육 담당 강사들의 요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여러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각각의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 속 문화 내용을 살펴 이들에게 필요한 문화교육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 3.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 분석

#### 3.1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

재외동포학습자를 위한 교재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5년에 발행한 범용 교재『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가 있다.<sup>6)</sup> 1-1~1-6권까지 총 12권으로 구성된 이 교재에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문화가 매 과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급 교재에 해당하는 1~3권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재에 '한국 문화' 소개란을 별도로 두어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 어린이들의 생활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의 여러 모습을 알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재의 일러두기 참고). 또한 한국 문화를 두루 소개하되 어린이의 학교생활과 놀이 문화를 다루어 학습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또는 자신의 주변과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교재구성'에 밝히고 있다. 중급 교재인 4~5권은 아동·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6권은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 교재로 역시 매 과에 문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원의 주제가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

4)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기간이 긴 학습자들일수록 정신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주월랑·양명희 2011, 197~202).

5)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각 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주1회 2시간 내외임. 교재에서의 문화교육 내용은 3장에 자세히 기술함.

6) 2017년에 영어권 및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발행되었으나 두 교재는 특정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용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다(교재의 문화 내용은 발표 PPT참고).<sup>7)</sup>

교재 내 문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한국의 학교생활 및 또래집단의 일상생활이 잘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현대문화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그중 성취문화에 해당하는 전래동화, 전통놀이, 신화, 속담, 사자성어 등도 비교적 많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단원에 그 주제와 연관된 문화를 소개한 점, 즉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문화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화와 학습자 주변 혹은 자신의 생활과 비교해 보도록 함으로써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6-2권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다른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단계별로 접치는 문화 내용들이 있으며 한국 문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도 몇 개의 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의 나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사실 여부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내용도 보인다.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문화를 현재 진행형의 문화로 기술하는 것,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술하는 것 등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 또래들이 관심 있어 할 다양한 문화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의 역사 및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정신문화, 예술문화에 대한 내용은 더 보충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교재의 문화 부분을 모두 찾아 유형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표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문화유형 비교

교재	성취	정보	행동	합계(%)	교재	성취	정보	행동	합계(%)
1-1	0	66.7	33.3	100	4-1	16.7	58.3	25	100
1-2	20	60	20	100	4-2	16.7	66.6	16.7	100
2-1	13.3	66.7	20	100	5-1	25	41.7	33.3	100
2-2	40	40	20	100	5-2	75	8.3	16.7	100
3-1	46.7	40	13.3	100	6-1	50	8.3	41.7	100
3-2	6.6	46.7	46.7	100	6-2	30	20	50	10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는 다른 교재에 비해 성취 및 정보문화가 많았는데 이는 재외동포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해외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학습자이므로 행동문화보다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정보문화, 그리고 과거 한국의 문화유산이나 예술 등과 같은 성취문화에 대한 학습이 다른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교재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재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로 각각 두 권씩 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1, 2에는 단원 사이사이에 문화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1급은 총 15개의 단원 중간에 3개의 문화 항목이, 2급은 총 18개의 단원 중간에 4개의 문화 항목이 들어 있다. 문화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으며 그림과 간단한 글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에는 매 과에 문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일상생활문화, 전통문화, 언어문화, 문학’

7)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 2단계(2011)>에 제시된 문화 유형 및 단계, 대분류, 중분류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8) 본 연구에서는 Hammerly(1986)가 분류한 세 가지의 문화유형, 즉 정보문화(Information culture), 행동문화(Behavioral culture), 성취문화(Achievement culture)에 따라 교재의 문화유형을 분류하였다.

의 범주 중에서 그 단원의 주제와 연관 있는 문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제에 따라 활동의 방식 및 텍스트의 장르가 다양하다(교재 설명 참조, 교재의 문화 내용은 발표 PPT참고).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에는 외국 동화와 한국의 전래동화가 만화의 형태로 각각 두 편씩 제시되어 있으며 세계의 인사법, 속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동작언어와 무례한 행동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자녀에게는 한국생활 및 가족 간 소통, 또래 집단과의 교류, 한국사회에의 적응 등에 도움을 주는 문화가 필요함을 앞장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 속 문화교육 내용, 즉 한국의 전래동화나 속담, 특히 외국 동화 등은 그 또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항목,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낮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학습자를 고려할 때 문화교육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에는 매 과에 문화가 들어있어 문화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가 많아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의 주제에 문화교육 내용을 맞추다 보니 다문화가정자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화도 있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속담, 전래동화와 같은 성취문화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2』에 제시된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금도끼 은도끼’, ‘흥부와 놀부’ 등은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책 4과의 문화교육 내용에 ‘고등학생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국의 소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가 다수 제시되고 있으나 또래집단과의 원만한 교류, 새로 형성된 가족들과의 관계 및 소통, 현대 한국사회의 적응 등에 도움을 주는 문화 내용 등은 더 보충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단원의 주제에 맞게 문화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후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문화교육 내용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연령 및 한국문화의 접촉단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다음으로 교재에 제시된 문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의 문화 유형 비교

교재	성취	정보	행동		합계(%)	
초등1	66.7	0	33.3		100	
초등2	50	0	50		100	
중학1	0	38.5	38.5(행동)	23(정보, 행동)	100	
중학2	7.1	71.4	14.2(행동)	7.1(정보, 행동)	100	
고등1	7.7	53.8	30.7(행동)		7.7(정보, 행동)	100
고등2	6.2	43.7	18.7(행동)	12.5(정보, 행동)	18.7(성취, 행동)	100

한국의 학교,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다문화가정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화는 과거의 전통문화, 성취문화보다는 현대의 행동문화, 그리고 정보문화이다. 무엇보다 또래의 한국 학생들과 잘 지내고 한국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동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전래동화, 속담 등의 성취문화 항목을 줄이고 행동문화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 3.3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로 총 2권으로 되어있다. 이 교재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교재에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머리말과 일러두기 참고).

교재에서는 특히 ‘한국의 이모저모’를 통해 한국의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자아자 한국어’에서는 한국의 회사와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재 1권은 15과, 2권은 1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이모저모’는 3개의 과마다 하나씩(1권에 5개, 2권에 6개), ‘아자아자 한국어’는 매 과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1, 2권의 13~15과는 각각 ‘문화알기’, ‘직장문화알기’라는 단원에 속해 있어 다른 과보다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영역인 ‘한국의 이모저모’를 중심으로 문화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아자아자 한국어’ 및 문화 단원에 속하는 세 개의 과를 함께 검토하여 문화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교재의 문화 내용은 발표 PPT참고).

‘한국의 이모저모’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이모저모’ 내용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권에 5개, 2권에 6개의 문화항목만 제시하고 있어 한국 사회,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알려주는 데에는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특별한 활동이나 지시 없이 그림이나 사진, 혹은 간단한 글로만 문화를 전달하고 있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는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문화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자아자 한국어’에서 일부만 찾아볼 수 있다. ‘아자아자 한국어’의 주제 중 회사, 직장생활과 관련된 주제만 보면 1권의 경우 ‘자신의 작업장 물건 소개, 회사 위치, 회사 구내식당 및 매점 소개, 자신이 원하는 회사, 회사에서 지켜야 할 일, 작업 순서, 기숙사 교칙’ 등이 있으며 2권에는 ‘면접에 받은 질문과 답, 회사에서의 인사, 휴식시간에 하는 일, 야근과 야식, 회사의 복지, 이직 및 이직 신고, 회식,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 있다. 직장생활 관련 주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으나 위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문화를 자세히 알려주기보다는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적어보게 하거나 서로 나눠보게 하는 등 학습자 간의 의견과 정보 교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직장생활, 한국의 직장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특별히 문화단원으로 제시한 1, 2권의 13~15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권에서는 ‘문화알기’로 지하철에서의 매너, 회사에서 지켜야 할 일, 존댓말 사용, 한국의 휴일, 기숙사에서 규칙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2권에서는 ‘직장문화알기’로 회식문화, 단합대회(체육대회, 야유회, 등산 제시), 높임말과 반말 사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제 한국의 문화 및 직장에서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관련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대화나 짧은 읽기를 통해 가볍게 다루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나 교재에서는 공장에서의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추후에 교재를 집필할 때에는 농업이나 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표3>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의 문화 유형 비교

교재	성취	정보	행동	합계(%)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0	100	0	100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2	0	80	20	100

위의 표를 보면 많지 않은 문화 중 대부분이 정보문화임을 볼 수 있는데 추후 교재를 개발한다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행동문화가 더 제시될 필요가 있다.

### 3.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교육 내용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는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자녀교육,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에서 ‘언어편’과 ‘문화편’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재의 머리말을 보면 ‘문화편’에는 한국생활 적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되 언어 교육과 연관될 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한국문화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상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문화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문화편’의 각 단원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에서는 사진, 삽화로 상황을 제시하고 관련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알아봅시다> 단계에서는 목표문화에 관한 읽기자료를 제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러분 고향은 어때요>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한국문화에 대응하는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나라마다 달라요>에서는 자신의 모국문화를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에는 전반적으로 결혼여성이민자에게 필요한 문화 내용들이 잘 제시되어 있으나 ‘언어편’에 비해 ‘문화편’의 비중이 매우 적다(언어편 20단원, 문화편 5단원). 또한 자국 문화와의 차이점을 서로 나눠보도록 한 점은 좋으나 문화의 내용을 읽기 텍스트로만 제시한 점, 그리고 텍스트에 제시된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5, 6권에는 문화 단원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단원의 주제가 한국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안내문, 상담글, 기사, 칼럼, 게시글, 이메일, 수필 등 다양한 읽기 자료로 문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문화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출산과 육아, 구직상담, 자녀지도, 취업, 생활방식, 직업 등 학습자에게 필요한 주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문화보다는 어학적 성격이 강하다. 문화가 분명히 분리되어 제시된 4권의 교재를 문화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의 문화 유형 비교

교재	성취	정보	행동	합계(%)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1	0	60	40	100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2	0	100	0	100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3	0	100	0	100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4	0	80	20	10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에서 문화는 대부분 정보문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동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초급단계에서 필요하다. 또한 중,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이 이룩해 놓은 성취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문화유형의 비중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 4.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교재에서도 문화교육의 주제나 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특성 및 상황이 고려되었음을 교재의 머리말이나 일러두기, 교수요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교재들의 경우 기본

적으로 언어교육을 위해 단원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연관된 문화항목을 구성하다보니 해당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문화가 빠져있거나 단원의 주제와는 관련이 있으나 한국의 문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 단계에 맞지 않는 문화 내용이 제시된 경우, 특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안에서도 단원의 주제가 유사하여 문화 내용이 겹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언어중심 교재이므로 일부 교재에서는 문화의 비중이 매우 적으며 다양한 문화를 제시한 교재의 경우에도 매우 간략하게 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각각의 특성과 상황, 한국어학습의 목적에 맞게 문화교육의 내용을 차별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언어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 언어학습을 위해 구성된 단원의 주제에 맞게 문화항목을 구성할 경우 여러 한계점이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문화항목을 보조교재 형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차후 교재를 개정하거나 새로 개발하게 된다면 언어교육을 위한 단원에 문화를 맞추려 노력하기보다는 별도의 문화 단원을 만들어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문화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종학당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언어를 위한 교재 외에 문화교육과정을 별도로 구성하여 특정 학습자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맞춤형 문화교재를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sup>9)</sup>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나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이들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나누고 비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재를 집필할 때 상호 간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승혜(2013), 한국어 교실에서의 학습자 변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4쪽.
- 강현화(2011), 다문화 관련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쟁점,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375-399쪽.
- 김고은혜(2015),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초·중등 교재 『표준 한국어』 분석 :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김선정(2009), “설문 조사를 통해 본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언어과학연구」49, 언어과학회, 1-22쪽.
- 김태령(2015), 재외동포 자녀대상 한국문화교육 방안 :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 나미희(2013),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95-324쪽.
- 윤영(2016),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 :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반영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27쪽.
- 윤영·손경애(2016),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1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3-154쪽.
- 윤영(2017),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한국문화교육의 내용(CURRENT ISSUE), 언어와 문화 13-2, 228-233.
- 주월랑·양명희(2011),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5-203쪽.

9) 윤영(2016) 참고.



## 발표 1-1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교육방법 탐색

이정금(순천대)

## I. 서론

세계화 시대에 문화는 나라마다 각각의 가치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극적 다문화 교육 담론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 다문화교육 측면의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할 시점이다(이동성 외, 201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8)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은 언어, 의상, 전통,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 주위와의 상호교류 관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 사람들 간 문화적 차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 및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것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핵심구성원인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상호의사소통에 필요한 태도 및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상호작용 및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이 교육현장의 중요한 화두가 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교육 연구자들이 다문화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Arnersen, et al., 2008; Costley, 2012; Pagani, Robqstelli, & Martinelli, 2011; Ponciano & Shabazian, 2012).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다문화교육에 주목하였던 연구자들은 최근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교육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다문화교육과 이제 움트기 시작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서로 혼재되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아직은 문화다양성 개념 및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용어가 문화관광체육부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 문화, 정치, 예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또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법적,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부분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현재 부상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지평이 세계화의 추세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연구 및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우리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문화다양성교육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다문화 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맞는 문화다양성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물음의 해답을 찾아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한국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문화다양성교육의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II. 선행연구고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의 용어에 관한 연구와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그리고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용어에 관한 연구로는 이종일(2010)의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그리고 장의선(2016)의 국내외 주요 제도권 문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적 고찰, 이동성·주재홍·김영천(2013)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최근 주목을 받는 문화다양성교육 개념과 이론적 배경 탐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교육의 실현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이영경(2010)의 ‘문화다양성 수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와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임철일외(2013)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지속적 성찰 중심 교수설계 모형 개발 연구’, 전희옥(2014)의 ‘수업설계에서 학습자의 다양성 고려 방법 탐색’, 전희옥·류미해(2016)의 ‘수업설계에서 문화적 다양성 고려를 위한 교사 연수 모듈 개발’, 전희옥·권혁일(2014)의 ‘수업 설계에서 문화적 다양성 고려의 의미’, 서예원(2014)의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학습설계에서 문화적다양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임진영외(2015)의 ‘문화적다양성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조사’, 시세인·이은희(2014)의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인식’과 이은희(2017)의 ‘예비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문화다양성교육의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초기연구는 대부분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이후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소수의 문화다양성 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들(서원주, 2013; 최승은·박봉수, 2013)이 있으나, 문화다양성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수의 문화를 배격한 동화주의에 입각한 기존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인류의 풍요로운 자산인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올바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문화다양성교육 방향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문화다양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I.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 1.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특징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민족·국가 등의 차이로 차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소외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2세대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현상과 차별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교육정책을 세워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소수 집단을 배려하고 평화적으로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개념을 중심으로 본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른 인종과 언어에 대한 포용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세계시민 및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생각, 소통, 공존을 목표로 연대감을 갖고 서로 어울려 의사소통하는 적극적 의미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Sleeter & Grant, 1987; 남석희, 2009; 차윤경 외, 2011).

다문화 교육은 정치 통합과 국민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등 소수 민족 및 소수집단의 고립을 막고 기회 및 결과의 평등을 통해 갈등 해소와 소외를 해소하는 데 있다(정갑영 외, 2004). 이들은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첫째 소수자의 국내 적응과 자립도 강화, 둘째 소수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및 기회 균등, 셋째 소수자 간의 갈등과 마찰방지, 넷째 다수자들의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다섯째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 여섯째 사회적 통합추구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소수자들에 대해 시혜적 접근과 보상교육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을 소극적 다문화 교육이라 볼 수 있다.

## 2.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및 특징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뒤, 또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한 후 본격화되었다.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인류 문화의 핵심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문화다양성이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조의 내용에는 생물다양성이 생물과 생태의 보존에 중요한 것처럼 문화다양성 또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을 비교 연구한 김승환(2006)은 다문화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념이라면 문화다양성은 세계화에 따른 각 인종과 민족의 각각 다른 문화를 상호 인정하자는 세계적 규모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다양성교육은 인종, 민족, 계층 간의 문화 및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단순한 소양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이라고 김수이(2008)은 주장하였고, 인종, 민족,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은지용(2009)은 강조하였다. 또 인종, 성, 민족, 사회, 계층 간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단일민족 중심의 사고와 편견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나아가 타문화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의 풍부함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이라고 강인애, 장진혜(2009)는 주장하였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종, 성, 민족 및 자민족 중심 사고와 편견 극복, 자신의 배경과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의 배경까지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김현덕(2010)은 말했다.

위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문화다양성 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성, 계층, 지역, 사회, 종교 등 모든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현주소

### 1.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전체 32만 가구이며 가구원 96만 명으로 전체 가구대비 1.6%, 가구원 대비 1.9%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감소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세가 점차 줄어든 반면 10년 이상 장기 정착 비율은 2012년 34%에 비해 2015년 48%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은 국제결혼이 비율이 높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영·유아(6세 이하)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학령기(7-18세) 아동의 비율은 높아져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2018년 2.17%로 2010년 0.44%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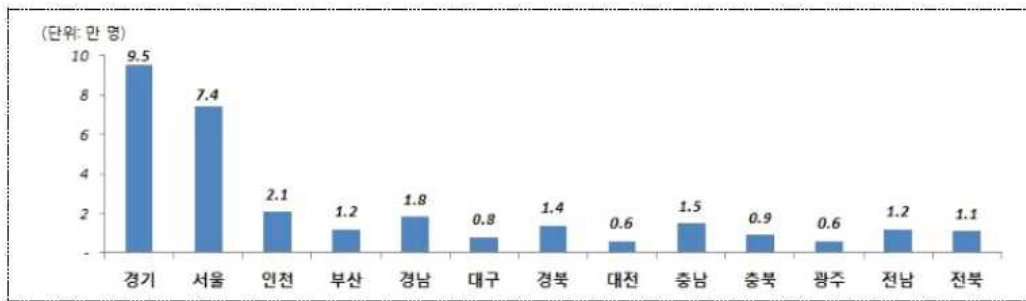
[도표 1] 다문화가족 변동 추이



자료: 2018 감사원 자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위의 [도표 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결혼의 감소에 따라 증가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도표 2]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 현황(2016년 말 현재 총 31만 7천여명)



자료: 통계청, 2016년 인구총조사

우리나라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50%이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이 2012년 34.1%에서 2015년 47.9%로 1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등 국내거주 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증가가 예상되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1차-3차)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0년 5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를 마련하고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2012년 12월 마련하였으며,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왔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18년 2월에 수립되어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에 의거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9년 1월 4일 수립하였으며 현재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3조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자료: 감사원(2018)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란 비전아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주관부처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을 여성가족부로 조정하였다(10년 3월). 운영 개정을 통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여성가족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처간 이견조정 및 지원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과 및 다문화가족 현황을 분석하여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아래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란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정비”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비전아래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개의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가 각각 존재한다. 첫째, “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둘째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 넷째, “상호준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섯째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이 다문화가족정책을 시행할 대상기관은 18개 기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이에 따른 총 과제는 중앙부처 127개, 지자체 1,087개이며, 예산은 4,689억원(중앙부처 3,893억원, 지자체 796억원)에 달하며, 총 소요예산은 2018년 대비 777억원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순이다.

### 3. 2019년 각 부처별 다문화정책 시행계획

2019년 각 목표에 따른 각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 과제 수는 <표 1>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 2019년 부처별 과제 현황 및 예산

부처별	과제별(예산, 백만원)					과제수 (예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역량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교육부		1(22), 3(3,987) <sup>2)</sup>	10(12,260)	2(170)	1(3,127)	17(15,579)
외교부			2(8,576)			2(8,576) 5(0) <sub>-3)</sub>
법무부	1(0)	2(400)	1(0))	3(314)	1(0)	8(714)
국방부				1(6)		1(6)
행정안전부		1(0)		1(0)		2(0)
문화체육관광부		2(2,750)		5(952)		7(3,702)
농림축산식품부		2(1,666)				2(1,666)
산업통상부			1(50)			1(50)
보건복지부	1(1,605)		2(100) <sup>4)</sup>	1(1,132)		2(2,737)
고용노동부		3(6,957)	1(1,900)			4(8,857)
여성가족부	18(292,131)	11(22,129)	14(18,830)	10(1,312), 1(200) <sup>5)</sup>	7(-)	60(334,402)
국토교통부	1(0)					1(0)
중소벤처기업부		1(4,957)				1(4,9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1(2,387) 2(0)		1(2,387) 2(0)
경찰청	2(0)			1(321)		3(321)
국세청	1(0)					1(0)
농촌진흥청		1(70)		1(70)		2(140)
소방청	2(891)					2(891)
총 과제 수	26	24	29	28	9	127

2019년 각부처별 다문화지원 정책 현황(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2019년 계획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각 부처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10개, 14,229백만 원)에 편중되어 가장 많은 과제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외 과제는 소극적인 편이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강화(1개, 1,879백만 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2개, 1,148백만 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1개, 22백만 원) 순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다양성교육과 관련된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관한 과제는 겨우 2개뿐이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세부과제는 네 번째 과제인

- 2)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교육 지원
- 3)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신분안정지원(2),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교육지원(20,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현지지원(1))
- 4)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의료지원(2)
- 5)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현지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하나뿐이다. 그 외의 과제는 다문화사회의 동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중심 과제로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교육의 교육대상은 이 나라의 다문화가족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부처별 각각 고유의 특성에 따라 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몇몇 부처는 다문화가족에게 한정된 동화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문화존중과 여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4.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정책은 표<표 3>와 같다.

<표 3>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별	과제별(예산, 백만원)					과제수 (예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역량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서울특별시	13(2,567)	9(1,333)	13(1,413)	12(595)	2(1,100)	49(7,008)
부산광역시	16(2,621)	12(221)	18(4,620)	13(406)	4(229)	63(8,097)
대구광역시	19(827)	14(220)	11(676)	16(734)	4(146)	64(2,603)
인천광역시	18(693)	22(707)	12(2,753)	21(619)	4(30)	77(4,802)
광주광역시	18(3,432)	12(495)	10(204)	14(483)	5(990)	59(5,604)
대전광역시	17(746)	12(165)	10(623)	15(289)	3(64)	57(1,887)
울산광역시	13(2,17)	10(145)	6(223)	15(375)	1(1)	45(961)
세종특별자치시	3(90)	6(115)	6(71)	2(18)	1(1)	18(295)
경기도	24(1,161)	24(1,659)	30(4,071)	17(2,096)	4(944)	99(9,931)
강원도	41(672)	17(291)	68(1,406)	6(404)	24(2,380)	156(5,153)
충청북도	18(579)	18(466)	15(648)	28(301)	6(1,979)	85(3,973)
충청남도	21(554)	21(281)	18(558)	13(262)	5(99)	78(1,754)
전라북도	10(1,708)	13(1,578)	14(1,076)	8(638)	5(1,432)	50(6,432)
전라남도	14(2,349)	9(999)	9(1,975)	15(530)	4(469)	51(6,322)
경상북도	11(640)	9(3,434)	7(1,126)	4(296)	6(2,034)	37(7,530)
경상남도	13(1,358)	14(1,767)	13(845)	15(850)	11(1,426)	66(6,246)
제주특별자치도	11(315)	10(260)	6(328)	6(89)	-	33(992)
총계						1,087(79,591)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지원 정책 현황(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서울시청 2019 문화다양성이해교육(서울시청홈페이지)을 검색한 결과 외국인강사(37개국, 45명)를 서울시 소재 학교에 파견하여 문화다양성 이해 및 다문화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학계전문가나 외국인주민(방송인, 단체장) 등이 교육을 진행하며, 외국인강사 OT,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과 자치구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실태다. 경기도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함께 어울리는 다문화축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로 놀러오세요”라는 프로그램을 개최해 세계전통놀이와 의상체험, 세계음식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따라서 전 시민 및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며 축제처럼 함께 어울림 마당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축제가 다문화가족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 5. 현행 문화다양성정책의 문제점 및 문화다양성교육의 방향

### 1) 현행 문화다양성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찾아 안정된 정책실현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은 1·2차는 이미 시행되었고, 3차가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다문화지원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세운 1차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등을 목표로 한 2차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문화다양성관련 상호문화이해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다. 이것은 이국땅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에게 그들의 고유문화를 잊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동화주의 다문화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3차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등의 목표를 내세워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다섯 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과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하나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속에 소외되어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은 주요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일반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일반 국민 53.95점, 다문화교육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64.0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문화다양성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기대(여성가족부, 2018)가 가능하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2018년과 2019년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계획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실제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 등 소수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차윤경, 2008; 장은정, 2011).

셋째, 1회성 사업추진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8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06년부터 실시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다가센터 한국어교육”으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대상 및 내용이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여 여성가족부의 “다가센터 한국어교육”을 폐지하고 법무부로 통합시행토록 권고하였다(2018, 감사원). 또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이 유사·중복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018, 감사원) 각 부처 간의 소통 및 의견의 불일치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처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조율 자세가 필요하다.



## 2) 문화다양성교육의 방향

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교육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교육에서 문화다양성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의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시행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들이 열린 시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한 소수자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지개다리 사업 및 문화다양성의 날, 교육부 협력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 도모 및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 대다수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낮은 수준이므로 국민 모두의 문화다양성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정규교과에 문화다양성 교과를 신설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타문화를 배척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자국의 문화 및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타국의 문화 및 정체성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 인식된 사고를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어렸을 때부터 문화다양성교육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하다. 관련기관의 소통의 부재로 불이익을 받는 다문화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문화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정책 시행 기관의 소통 및 협조가 중요하다.

다섯째,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상호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다문화축제를 보았을 때 축제 참석자이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었고 일반시민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다양성관련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영하는 방안이다. 방송은 전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대중매체이므로 방송의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타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에 따라 소극적 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 문화교육인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집단과 상호 의사소통 과정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 그리고 기술 습득에 유용하다. 인류의 인권과 평등 실현을 위해 이제 각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다양성이란 인종, 언어, 나이, 성, 민족, 신앙, 정치적 성향, 성적 취향, 문화 등을 포함한다.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지평이 세계화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문화다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교육 연구와 문화다양성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사회에 맞는 문화다양성교육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 및 특징을 명료히 하고, 현재 실시되는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본 뒤, 한국사회에 맞는 문화다양성교육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다인종 사회로 변화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게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계속 증가하여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란 소수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소수집단을 배려하여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문화다양성이란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후 인류문화의 핵심 가치로 설정되었으며 언어, 의상, 전통, 사회 형성 방법, 도덕·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 작용 등 인류 노력 및 창의성의 결실이며 경험의 총체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교육은 편견을 버리고 타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열린 자세로 인종, 민족, 성, 자민족 중심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타 집단의 배경까지 인정하여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의 감소로 증가추세는 조금 둔화되었지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0년 5월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다문화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차에 걸친 다문화지원정책은 처음에 소수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동화정책을 추진하다가 문화다양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차에는 전 국민을 대상 문화다양성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3차 다문화지원정책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비전아래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과제 중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해 문화다양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시행할 대상기관은 18개 기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화다양성교육은 부분적이며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각 부처별 다문화교육현황을 살펴보아도 사회적다문화수용성 제고 관련 과제 및 예산은 다른 과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물론 다문화가족이 타국인 한국사회에 터전을 잡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더 절실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는 민족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 인종 및 타문화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많다. 이런 거부감 및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 적극적 상호문화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교육을 통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의 문제점은 먼저 동화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1·2차 다문화가족정책은 문화다양성관련 상호문화이해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으며, 3차 다문화가족정책에 문화다양성교육이 포함되어있으나 다섯 개의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각 부처의 계획 속에 소외되어 있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수용성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미 단일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이 인식되어 있는 국민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1회성 사업추진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화다양성교육의 방향으로 먼저 동화주의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둘째, 교육대상이 소수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학교 정규교과에 문화다양성 교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 간의 상호협력 및 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며, 상호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제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방송통심 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타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사원(2018). 다문화가족정책 감사자료.
- 강인애, 장진혜(2009). '커뮤니티 기반 다문화수업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초  
등교육연구, 22(2). 71-97.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지원팀.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지원팀.
- 김수이(2008). 다문화시대의 문화교육과 국어/문학교육: 김수영의 시「거대한 뿌리」비평교육의 경우. 우리말글,  
42. 181-202.
- 김승환(2006).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개신어문연구, 24. 161-180.
- 김현덕(2010). 다문화교육의 내용체계 구축과 실천방안. 비교교육연구, 20(5). 109-134.
- 남석희(2010). 초등체육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접근: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26(2).  
163-183.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6년 문지개다리 사업' 공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7년 문지개다리 사업' 공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8년 문지개다리 사업' 공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6년 문지개다리 사업' 공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종합계획(2018-2022).



## 발표 1-2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sup>1)</sup>박미숙(인하대학교)<sup>2)</sup>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착하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구성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 한다.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큰 화두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난민(Refugee)이란 자국의 정치상황, 민족박해, 기아, 전쟁, 고문, 투옥, 감금, 테러 등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죽음을 피해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자를 말한다(난민협약, 1951). 난민은 다양한 박해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자국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따라서 난민의 이주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부모와 다른 가족과 이별을 감수하며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고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이다.

2018년 12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367,607명으로 전년대비 8.6%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결혼, 취업, 교육, 사업,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주민 중에는 난민으로 법적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들은 총 48,906명이며 2018년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9,931명이다(법무부, 2019). 한국은 2012년 난민들의 인도적 체류 및 보호를 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난민들은 난민법 제3조의 난민 강제송환금지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따라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언어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난민의 대부분의 연구는 난민인권에 대해 법적측면과 정책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머물러 있다.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하다. 새로운 이민자로 부각하고 있는 난민들의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은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 우리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난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난민신청 경험과 한국에 체류경험이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정착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

1)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4055802)

2)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교수

## II. 난민의 현황과 이주민의 정착

난민이란 자국의 박해를 피해 출신국가를 떠난 비자발적 이주민으로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항에서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쟁이나 폭력, 박해로 인해 집을 잃고 실항민이 된 사람들은 6,850만명이며 그중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는 2,540만명이라고 밝혔다(UNHCR, 2018). 법무부(2018)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까지 한국으로 난민신청자는 48,906명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23,208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93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1,988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924명이 난민으로 보호 받고 있다. 난민신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난민 신청자 현황(단위: 건)

년도	199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신청 건수	2,915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48,906

출처: 법무부 통계월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지만 2018년까지 난민인정자는 936명에 불과하며 전체 난민신청자의 1.9%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1,988명을 포함하여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신청자의 약 6%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을 신청하는 주된 사유는 종교적 사유가 11,962명, 정치적사유가 9,520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으로 인한 사유가 5,217명, 인종문제가 3,190명, 국적이 1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법 2조에서는 난민을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 희망난민 네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한다. 난민의 지위는 개인의 심리상태 뿐 만 아니라 박해나 공포가 객관적인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은 주관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과거에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 부족의 관습에 의해 박해를 받을 가능성으로 인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공포 때문에 신청한다(이호택, 2009). 이들이 주장하는 박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소수의 인종에 근거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종교를 이유, 또는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여 가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인종, 종교,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 집단의 신분,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난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난민들은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사회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한다. 정착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단계를 말한다.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인 내적 욕구와 외적인 사회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고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다(윤여상, 2001).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IOM(2004)에서는 특정문화의 사람, 집단 또는 계층에 의해 타국의 언어, 생각, 가치, 규범, 행동등의 문화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문화적응이라고 하였다. 또한 Sam(2006)은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 사이의 접촉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변화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적응은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문화권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변화과정이다. 이주자들이 문화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사회에 쉽게 동화,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Ward & Searle(1991)은 사회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거주기간, 문화적 지식, 주류사회와의 정체성이나 상호관계의 정도, 문화적 거리감, 언어 유창성, 문화적응 유형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문화학습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문화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에서 재사회화 되어야 한다. 재사회화의 개념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가치와 행동을 버리고 새롭고 더 적절한 가치와 규범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다(Ferrante, 2003).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문화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로운 규범과 가치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변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사회문화를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와 그에 대해 대처방식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재사회화 과정이다. 이주민들의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주민들의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응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사회문화적응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주민들이 이주를 통하여 새롭게 한국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녔던 가치와 규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도 한다. 특히 이주민들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 난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난민들의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난민은 물론 난민들의 자녀의 사회적 문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에 난민신청 경험이 있는 난민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저로 하여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뿐 만 아니라 과정, 행동이나 상호작용, 사회화 과정을 중시한다(박미숙, 2016). 그러므로 난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을 살펴보기에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체계를 따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Strauss & Corbin(1990)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주제에 따른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중심현상이 있으며 그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조건과 현상을 형성하는 맥락이 있다고 하였다. 또 현상을 중재하는 조건과 이를 둘러싼 상호작용과 전략이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난민들이 한국에 이주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착하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9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표집은 난민공동체를 통해 눈덩이 표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유형	모국	민족	거주 기간	학력	자녀	이주 전 직업
1	남	48	한국	방글라데시	쭈머족	19년	전문대	1명	사업
2	여	49	한국	방글라데시	쭈머족	12년	고졸	1명	보험회사
3	여	33	난민인정	방글라데시	쭈머족	10년	대졸	2명	간호사
4	남	46	난민인정	미얀마	까렌족	3년	초졸	5명	농업
5	남	29	난민인정	미얀마	까렌족	3년	초졸	2명	농업
6	남	34	난민인정	미얀마	까렌족	3년	고졸	3명	홈비지트
7	여	26	난민인정	태국	까렌족	2년	중졸	2명	농업
8	여	31	난민인정	태국	까렌족	1년 2개월	고졸	4명	지리 교사
9	남	31	인도적체류자	시리아	-	2년	대졸	없음	사업

##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먼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동의서를 먼저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연구참여자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한국의 이주배경과 동기,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하였는지, 또 이주후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질문지에 따라 반구조화 방식으로 개인별 1-2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시간은 1시간 내외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난민 공동체 사무실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전 인터뷰 녹음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취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파일로 만들었다.

자료분석은 Stake(1995)는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연구와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구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집합적 사례연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사례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추출하여 어떤 현상, 집단,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사례 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를 통해 의미분석을 하고 중주제, 대주제로 확대해가며 이러한 구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주동기, 적응의 어려움, 극복을 상호작용, 자신의 변화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전사파일을 보내어 확인 작업을 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질적연구자에게 분석자료에 대한 삼각검증을 받는 등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과적 조건: 한국으로 난민 신청 동기

#### (1) 무서운 전쟁

난민들은 다양한 박해를 피해 이주한다. 특히 전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공포 때문에 난민캠프로 이동하여 구호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쟁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진다. 이러한 자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외상장애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정신적 외상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겪은 충격적 체험으로 파편화된 흔적이 남게 된다(김승욱, 2011). 이처럼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도 전쟁 지역 때문에 난민신청을 하고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



“방글라데시와 평화협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분쟁이 팽팽한 상태예요. 지금도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전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총으로 싸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리에 나와 거리투쟁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1)

## (2) 종교 때문에

난민의 신청사유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종교는 초월적 절대자를 신성시하고 경외하는 신념체계로 하나의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사회 전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종교의 기능은 사회통합, 사회통제, 사회변동의 사회적 기능과 긴장해소, 박탈과 보상, 정체성과 소속감의 심리적 기능을 한다(한경선, 2011) 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하므로 종교로 인한 탄압은 이를 피해 국가를 떠나기도 한다.

“이슬람교가 가장 많아요. 95%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좀머족은 거의 대부분 불교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2)

## 2. 맥락적 조건: 난민을 신청하게 된 맥락

### (1) 자유와 안전을 찾아서

자유와 안전은 모든 인간이 추구한다. 그러나 국가가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머물면서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 이주한다.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미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자유와 삶의 질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해야 한다(김희정, 2016). 또한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중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우위에 두었다. 연구참여자인 난민들 역시 자유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국으로 난민을 신청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모국에서 자유와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로운 것을 찾았어요. 우리 태어난 곳은 어디가도 검문을 받아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로 1m 간격으로 검문하는 차들이 있어요. 군대 검문차들이 있어 완전 자유롭지 못해요. 또 밖에 가면 인종차별도 받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하잖아요.” (연구참여자 1)

### (2)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자녀들에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자기가 잘되고 자녀집중하고 있다. 자녀들이 교육을 통하여 더 좋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다.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의미는 부모의 삶의 보람이 되기도 하고 부모자신이 자녀와 함께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은 부모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한용진·최정희, 2011). Schoeman(1980)은 부모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한다.

“큰 딸은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교, 셋째는 중학교, 넷째와 다섯째는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장애인, 아무리 일을 해도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난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 때문에.” (연구참여자 4)

“한국에 애기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꿈을 갖고 왔어요.” (연구참여자 5)

### 3. 중심현상: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 (1) 낯선 문화와 어려운 한국어

난민들에게 한국의 낯선 문화와 한국어는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문화적응에는 언어를 포함한다. Berry & Kim(1988)은 지배적인 사회 및 문화집단의 성격, 문화적응의 양식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사회학적 요소와 심리적 특성은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주자들이 다른 문화권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은 물론 사회적인 기술까지 습득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언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직 배우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언어를 잘 못하니까 병원에 갈 때도 학교 갈 때까지 서류 낼 때 이런 거 다 모르니까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3)

#### (2) 난민비자와 생활고

난민법 2조에 의하면 난민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눈다. 첫째, 난민 인정자는 거주 비자인 F-2 비자가 주어지며 별도의 허가없이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이들은 G-1 비자인 기타체류자격 비자를 받고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취업활동 허가를 받고 제한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셋째, 난민신청자는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한다. 이들도 기타체류자격인 G-1 비자를 받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심사 종료 전까지는 연장허가를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다. 2018년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자는 2018년 1.9%로 아주 적은 수가 난민으로 인정된다.

“난민신청자에게 지원 비자를 주는데 그 지원비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난민조사인 난민면담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어느 공장에서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불법체류자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참여자 1)

“난민 불법상황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비자가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이런 비자 있는 사람한테 사장이 갑자기 일 없애고 하면서 일 안줘요. (연구참여자 9)

#### (3) 이방인의 서러움

차별은 사회사적 맥락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국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및 지배의 관계,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 계급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및 지배의 관계가 작용한다(허영식, 2015). 이주자들은 주류시민들에 의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 난민들 역시 한국인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제주 예멘 난민으로 인해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UN 유엔난민기구를 설치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매우 저조하다.

“김포시가 처음으로 김포 난민촌과 김포 시의원들이 난민을 위한 난민절을 만드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조례를 통과 시킨 시의원에 대해 시민들이 낙선운동을 벌려 폐지되었어요. 이처럼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에요.” (연구참여자 1)

**(4) 돌아갈 수 없는 모국**

이주민들의 삶에 기저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 그리고 향수가 깔려 있다. 이들에게 향수는 고국과 잘 결합되어 있는 감정의 형태이다(이창호, 2016).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을 포함하고 있다. 난민들에게도 고국에 대한 향수는 남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갈 수 없다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은 모국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다보니 난민들은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모국을 갈 수 없다는 것에 많이 절망한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모국을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국에 부모님이 계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가볼수 없어요. 그게 가슴 아프죠.” (연구참여자 1)

“난민을 인정받으면 자기 모국은 못가요. 아버지 돌아가실때도 못가봤는데 아직 어머니가 계시니까 가보고 싶긴 한데.....(연구참여자 2)

**4. 중재적 조건: 한국생활 지지**

**(1) 가족이 함께 이주**

난민들은 대부분 가족이 함께 이주한다. 특히 재정착 희망난민은 모든 가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결합 가족들은 한국의 무수한 많은 가족들 중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가족들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야 하는 존재이다(박혜준, 2008). 이처럼 난민들도 한국의 일반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가족이 한국에 함께 이주하여 서로를 통하여 위로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했고 가족이 함께 올 수 없다면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들에게 가족은 한국생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난민 신청할 때는 이름이 다 있고 얼굴을 보여줘야 되요. 가족 모두가 UN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한명이라도 없으면 안되는거고 우리는 다있으니까 그래서 내고 기다려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2) 공동체의 도움**

공동체란 단순히 모여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중요함을 일깨워준다(오미영 이진영, 2006). 난민들도 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동두천에도 난민 공동체가 있으며 김포에는 방글라데시 줌머족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평구에는 카렌족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난민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각자의 조그만 힘을 모아 서로를 도와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공동체를 형성하여 난민으로서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난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서로 공생하고자 한다.

“저는 카렌족의 대표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카렌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해요. 내 딸은 일요일이면 카렌어를 가르치러 가요. 우리 카렌에서 온 애들한테요. 카렌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카렌 문화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카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예요.” (연구참여자 4)

## 5.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국사회 적응을 통한 재사회화

### (1) 한국인 멘토

인천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재정착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 멘토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멘토 역할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는다. 한국인 멘토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었으며 생활적응 위한 생활멘토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멘토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한국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낮은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에는 출입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인 멘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오지 않아요. 멘토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배우고 싶어요.”(연구참여자 5)

“저는 멘토 선생님에게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멘토선생님이 한국어도 가르쳐주지만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한 생활 멘토 역할을 해주어요.” (연구참여자 6)

### (2) 종교 시설과 활동

종교의 역할은 인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삶속에서 이를 실천하라고 권한다. 난민들에게도 종교는 다양한 형태로 이들을 돕고 있었다. 난민들은 다양한 종교의 박해 때문에 한국으로 난민신청 하였으나 한국에서 이들에게 종교는 사회적응에 발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종교시설을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공동체도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렇다보니 난민들은 자신의 종교와 맞지 않더라도 종교시설을 통해 상담도 받고 한국어도 배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어제는 카렌 스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밥 먹고 축원도 하고 좋았어요. 한국이 절은 스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5)

## 6. 결과

### (1) 난민 지원과 정책

한국은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실을 확대하고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난민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법무부, 2018). 난민들이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난민 신청에 대한 가이드북과 안내문을 7개의 언어로 지원하고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난민을 위한 지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난민법에 의해 가족 결합은 물론 자녀 무상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난민 인정이 되기까지 까다로운 법적 절차는 이들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난민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들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어요. 난민으로 입증해야 증거들이 필요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취업도 할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요.” (연구참여자 1)

### (2) 한국국적과 영원한 이방인

국적은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격이나 지위 이면서 동시에 기본적 권리이다. 개인은 국적을 가짐으로써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된다(김미정 외, 2013).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반면에 국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

며 사회의 주변부로 자리 잡게 된다(지현정, 2012).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난민들은 한국국적이 없으면 자녀의 대학 입학과 취업에도 또 자신의 노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인식하였다.

“한국국적을 받았다고 해도 저희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 취득해도 외국인 취급받고 시급도 그렇게 받아요. 면접 볼 때도 한국국적 있어도 외국인이라고 하고 뭐 만들거나 팔 때도 외국인은 가세요 이래요. 어떨 때는 비자도 안보고 그냥 외국사람이라서 안된다고 그래요. 얼굴만 보고....” (연구참여자 2)

### (3) 난민을 돕기 위한 봉사하는 삶

봉사활동은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기여한다. 봉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이나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김영준, 1996). 맥킨타이어(1984)는 사람들이 사회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난민들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을 통하여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민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 교육문제는 그런 것 도 누군가가 한국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것이 다르다보니까 직접 역할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해야지요. 학교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해본 사람들이 저같은 사람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해요.” (연구참여자 1)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 경험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근거이론의 Strauss & Corbin 패러다임의 과정에 따라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 순서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연구의 중심현상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한국어는 물론 한국인들의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인 인과적 조건은 모국의 내전과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맥락적 조건은 자유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어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태환(2005)의 연구에서 밝히듯 이주노동자들도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와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이동을 선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또한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중재하는 역할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멘토 및 커뮤니티 활동, 종교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재사회화를 통해 통합되자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았다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김미정 외(2013)의 연구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소외감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난민들을 돕고 함께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 [참고 문헌]

- 국민호 (2017).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디아스포라연구』 11(2), 89-124.
-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10(1), 213-249.
- 김대근 (2015).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5
- 김미정·이명현·이경은 (2013).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30(1), 161-196.
- 김승욱 (2011). “전쟁기억과 재현: 대한민국연극제 한국전쟁 소재극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34, 53-73.
-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 (2016).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실태”. 『연구 공익과 인권』 16, 3-43.
- 김양희 (2014). “북한 식량권의 연구동향 및 과제”. 『통일인문학』 60, 307-336.
- 김은희 (2019). “난민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설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호 (2017). “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법과 정책』 23(3), 65-100.
- 김진호 (2018). “예멘 난민 인권의식 정립할 기회다”. 『제3시대』 135, 2-4.
- 김후형 (2015). “탈북자의 인권과 국제사회의 노력”. 『ATE』 321-346.
- 김희정 (2016).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공법연구』 44(4), 99-131.
- 나선희 (2017). “그림책에 나타난 현대 난민의 현실과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7(1), 151-190.
- 민지원 (2003).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 박해: 북한여성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0, 3-37.
- 박미숙 (2016).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숙·김영순 (2016). “다문화멘토링 과정에 따른 대학생 멘토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6(3), 967-989.
- 박미숙·손영화 (2018). “중국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 모색”. 『교육문화연구』 24(3), 523-546.
- 박선희 (2017). “유럽국경관리청과 난민의 인권문제”. 『통합유럽연구』 8(1), 89-122.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 손철성 (2013). “난민의 인권: 방문권과 영주권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203-219.
- 송영석 (2014). “한국의 종교갈등 이해와 선교적 교회의 대응을 위한 고찰: 정체성의 신학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7, 215-244.
- 송영훈 (2016).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 201』 19(3), 55-82.
-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 (2016). “한국체류 난민여성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신예진·신지원 (2013).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65, 191-231.
- 심현용·김재기 (2004). “러시아 재이주 한인의 난민적 상황과 인권보호”. 『민주주의 인권』 4(1), 117-152.
- 윤여상 (2001). “탈북자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통일한국』 212, 13-17.
- 오병훈 (2015). “한국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5(1), 69-95.
- 이범수·김동우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10(4), 121-142.

## 주제발표 02

## 독일문학, 할리우드와 만나다

이광복(목포대)

## 1. 들어가는 말

영화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본격 대두되었다. 솔트 Barry Salt의 『영화의 양식과 기술: 역사와 분석』(1983), 로버트 C. 앨런 Robert C. Allen과 더글라스 고머리 Douglas Gomery의 『영화 역사』(1985), 보드웰 David Bodwell, 크리스틴 톰슨 Christine Thomson, 슈타이거 Janet Steiger의 연구서 『고전 할리우드 영화. 1960년까지의 영화 양식과 제작방식』(1985) 등의 연이은 출간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편, 독일 영화사는 1990년대에 이르러 - 바이마르 시대와 나치 시대를 중심으로 - 할리우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당시 논쟁적이었던 ‘상호문화성’, ‘상호텍스트성’, ‘초국가주의’ 등의 개념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토마스 산더스 Thomas Sanders의 『베를린의 할리우드』(1994), 마르쿠스 스피커 Markus Spieker의 『십자 휘장 아래 놓인 할리우드』(1999), 토마스 엘제쎄 Thomas Elsaesser의 『바이마르 시네마와 그 이후: 독일의 역사적 이미지러』(2000), 루츠 쿠프닉 Lutz Koepnick의 『어두운 거울: 히틀러와 할리우드 사이의 독일 시네마』(200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993년에 야콥센 Wolfgang Jacobsen, 케스 Anton Kaes, 프린츨러 Hans Helmut Prinzler 등이 펴낸 『독일영화사』다. 이들은 서문에서 영화평론가 프리다 그라페 Frieda Grafe를 인용하면서 저술의 방향성을 피력한다. 즉, “독일영화에서 독일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그라페가 “조국적인 것, 모국어적인 것, 토착적인 것? 어쨌든 국적은 아니다. 자금조달, 주제, 촬영장소, 토비스클랑(Tobisklang)社 영화의 색조? 차라리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 독일적이리라.”(야콥센 외, 1, 19쪽)라고 답한 것을 인용하면서, “낮선 것에서 자기 것을 발견하기, 그리고 자기 것에서 낮선 것을 발견하기, 또한 국민적인 것이란 날조임을, 원래 이미지 위에 덮어씌운 허울임을 폭로하기,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들의 문제이다. 그러한 한에서 독일영화사는 의미심장한 패러독스이다.”(야콥센 외, 1, 19쪽)라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이들은 1920년대까지 독일영화가 국제적인 교류에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사실 무르나우는 1927년부터 이미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있었다. 에른스트 루비치 Ernst Lubitsch는 이미 1922년에 미국으로 향했고, 마를레네 디트리히 Marlene Dietrich는 <푸른 천사 Der blaue Engel>(1930)의 첫 상영 후 독일을 떠나 할리우드로 갔다. 반대로 1928/29년에 룰루 Lulu 역으로 베를린에서 성공을 거둔 미국인 브룩스 Louise Brooks는 할리우드에서 독일로 간 예외적인 경우다. 이처럼 독일인들은 일찍이 할리우드를 경쟁사이면서 제작 파트너로 생각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소련, 동유럽 국가들과도 활발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다. 심지어 히틀러 치하의 국수주의적인 영화들도 자주 외국 영화를 참조하였다(야콥센 외, 1, 20쪽).

요컨대, 볼프강 야콥센, 안톤 케스, 한스 헬무트 프린츨러 등이 펴낸 『독일영화사』는 독일 영화 역사의 서술 범위를 독일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할리우드 망명영화, 터키계 등 이주자 영화, 독일과 미국의 합작 영화 등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음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하제 Christine Haase의 『할리우드가 고향을 만났을 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제는 여기서 유성영화의 발전과 함께 민족적으로 정향된 영화가 변성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의 역사는 다른 민족적, 문화적 전통들 사이의 복잡한 연계와 협력의 이야기이자 다른 나라, 종족, 성, 종교, 계급 사이의 연계와 협력의 이야기”(Haase, 1쪽)라고 정의하고, 1980년대 이후 대중적인 시네마로 변모하면서 탈(脫)민족적, 탈(脫)국가주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문화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혼종성 Hybridity’을 영화분석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할리우드에 친연성을 보인 독일 영화감독들 중에서 페테르센 Wolfgang Petersen, 에머리히 Roland Emmerich, 애들런 Percy Adlon, 티크베어 Tom Tykwer를 집중 조명한다. 그들의 영화는 모두 “문화 생산품의 민족적 양상들과 탈(脫)민족적 양상들 사이의 긴장과 조화”(Haase, 3쪽)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트랜스내셔널 영화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독일 문학작품들이 할리우드와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독일과 할리우드 사이 교류의 역사

영화사는 보통 영화 탄생의 기원을 1895년으로 잡는다. 이 해에 독일에서 스클라다노프스키 Max & Emil Skladanowsky 형제가 <복싱하는 캥거루 Das boxende Känguruh>를, 프랑스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1-2분짜리 <열차의 도착>,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 등을 선보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무렵 헤이스 William Heise가 1분짜리 영화 <키스 The Kiss>를 선보였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영화가 탄생했으며, 적어도 1920년대 말 유성영화가 탄생할 때까지는 영화 기술의 발전에 있어 국가 간 경계선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독일 이민자들의 본격적인 할리우드 입성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다. 독일에서 이주한 룩친스키 Sigmund Lubszynski는 미국 최초의 영화사 ‘루빈 씨네오그래프 컴퍼니 Lubin Cineograph Company’를 설립하였고, 레믈레 Carl Laemmle는 1912년 할리우드에 유니버설 픽처스를 설립하였다. 이 영화사들은 슈트로하임 Erich von Stroheim, 와일러 William Wyler, 레니 Paul Leni, 지오탁막 Robert Siodmak, 울머 Edgar G. Ulmer, 셔크 Douglas Sirk 등 미국으로 이주한 영화인들을 대거 고용하였다. 그리고 UFA에서 경력을 쌓은 폼머 Erich Pommer는 1926년부터 약 2년간 파라마운트와 MGM에서 일했으며, 독일출신 배우 야닝스 Emil Jannings가 1929년에 최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또한 나치 정권의 등장으로 할리우드로 이주한 프리츠 랑, 로버트 지오탁마크, 오토 플레밍어, 빌리 와일더 등은 소위 말하는 ‘망명영화’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망명영화’의 주된 장르로는 코미디, 뮤지컬, 멜로드라마, 범죄영화, 반나치 영화가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특징상 ‘느와르’ 영화로 다시 분류되는 범죄영화 장르는 독일에서 이민 온, 프리츠 랑, 로버트 지오탁마크, 오토 플레밍어에 의해 독자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전쟁 영웅담, 싸구려 애정물, 통속소설이 유행하고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전통은 단절되었다. 빌리 와일더, 에른스트 루비치, 막스 오펜스는 망명에서 귀환하지 않았고, 프리츠 랑은 귀환했지만 영화감독으로 복귀하는데 실패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독일과 할리우드는 애증의 관계를 형성한다. 1962년 오버하우젠 선언으로 시작된 “뉴 저먼 시네마” 운동은 당대의 할리우드식 상업영화를 멀리하고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맥을 잇는 영화예술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파스빈더, 슐렌도르프 등 젊은 영화감독들은 사회비판적 성찰을 지향하는 ‘문학작품의 영화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영화감독들은 빈번하게 할리우드 멜로드라마 형식을 차용하였다. 특히 파스빈더는 할리우드 멜로드라마의 거장 더글라스 셔크의 영향을 받아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가미된 독일식 멜로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1980년대에는 ‘뉴 저먼 시네마’ 시대의 영화감독들이 독일의 정치적 상황에 실망하여 아이러니컬하게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독일적인’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슐렌도르프, 애들런, 벤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 3. 할리우드가 주목한 독일어권 문학

할리우드에서 독일문학에 처음 주목한 사람은 레밀레이다. 독일 출신으로 1912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설립했던 그는 마일스톤 Lewis Milestone 감독으로 하여금 레마르크의 원작을 바탕으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1930)라는 전쟁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바로 독일에 수입되어 베를린에서 처음 개봉되었는데, 당시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NSDAP =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의 베를린 지역위원장이었던 괴벨스 Joseph Goebbels의 지시로 상영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일부 삭제된 축약판으로 허용되었다가 1933년 나치의 등장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마일스톤의 영화는 아버지 세대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아들 세대를 참혹한 전쟁으로 내몰았는지를 교실 시퀀스를 통해 소설보다 잘 설명해준다. 영화는 조국애라는 프레임에 갇혀 어린 학생들의 참전을 독려했던 선생 칸토레크와 참혹한 전선에 배치될 이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재미를 느끼는 힘멜슈토스의 마비된 머리와 가슴을 시각적 이미지로 강조한다. 또한 영화는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조국애를 우선시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콧수염 등의 미장센을 통해서도 드러낸다.

할리우드는 애니메이션 장르를 통해 독일문학과 두 번째로 만난다. 1937년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월트디즈니사가 그림형제의 동화 『백설공주』를 바탕으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가 바로 그것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경제공황 이후 침체된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시 미국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인 청교도적인 윤리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두막 장면에서 나오는, 성실하게 가사를 돌보는 백설공주와 노동자로서 규칙적인 삶을 사는 난쟁이들은 청교도적인 윤리의 실천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애니메이션에는 슬랩스틱 코미디적인 요소와 뮤지컬적인 요소를 결합되어 있다. 숲속 동물들의 즐거운 합창과 난쟁이들의 오두막에서의 유쾌한 소동 장면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결국 이 작품은 원전을 오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변형시켜버린 셈이다.<sup>1)</sup>

1940년대 초 할리우드가 독일문학을 수용한 예로는 디터러레 Wilhelm Dieterle(미국명: William Dieterle)의 영화 <악마와 다니엘 웹스터 The Devil & Daniel Webster>(1941)를 들 수 있다. <All That Money Can Buy>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이 영화는 1920년대까지 독일에서 배우로 활동하다가 193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감독이 된 디터러레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그 전에 할리우드에서 있었던, 파우스트 전설을 영화화하려는 단편적인 시도들과 달리 독일 표현주의 영화미학을 수용하면서 파우스트 소재를 창의적으로 영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신이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와 타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메피스토펠레스로부터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여기서는 변호사 다니엘 웹스터가 스톤에게서 기독교적인 미국 시민으로서의 가치 회복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악마 스크래치로부터 그의 영혼을 구해낸다.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독일의 감독, 배우,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기로 독일문학을 미국 대중들에게 소개할 만한 여유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크 Douglas Sirk 감독이 독일로 영구 귀국하기 바로 전인 1958년에 레마르크의 소설 『살아야 할 시간, 죽어야 할 시간 Zeit zu leben, Zeit zu sterben』을 영화화하여 <사랑할 시간과 죽어야 할 시간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die>이란 타이틀로 출시한 바 있다.<sup>2)</sup> 이 영화는 1944년 겨울 러시아 전선에

1) 이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독일 DEFA사가 1961년 만든 극영화 <백설공주>를 보면, 왕비의 질투와 비도덕적인 행동, 백설공주의 시련과 행복은 난쟁이들의 우스꽝스런 행동, 경쾌한 음악 등 오락적, 희극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난쟁이들의 오두막은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연상시킨다. 이광복: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의 '영화화', 독어교육 48집(2010), 225쪽 참조.

2) 함부르크 태생으로 본명이 Hans Detlef Sierck인 더글라스 서크 감독은 이 영화를 베를린에서 주로 촬영했으며, 작가 레마르크 등 독일인을 부분적으로 캐스팅하기도 했다.

<http://www.imdb.com/title/tt0052296/companycredits> [2012.10]

투입되었던 독일군 일병 그레버가 휴가차 잠시 고향에 들러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간 어머니를 찾다가 주치의의 딸 엘리자베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짧은 신혼 생활을 보낸 후 러시아 전선으로 복귀한 다음에 임신소식을 전하는 아내의 편지를 읽다가 그가 살려준 러시아 게릴라의 총에 맞는다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할리우드가 수용한 예는 독일 청소년문학에서 나왔다. 즉, 1964년 월트 디즈니사 독일 청소년문학의 대표작가 케스트너의 『에밀과 탐정들』을 바탕으로 동명의 영화 <에밀과 탐정들>(1964)을 선보였다. 그런데 케스트너의 작품은 이미 1931년 람프레히트 Gerhard Lamprecht, 1954년 슈템레 Robert A. Stemmle 감독에 의해 독일에서 영화화된 바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은 탐정소설의 형식을 취하지만 사회비판적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월트 디즈니사가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도 아닌 극영화의 형태로, 그것도 할리우드 범죄영화의 콘텍스트 속에 위치시켰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할리우드 출신이지만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1962년에 카프카의 소설을 영화화한 웰스 Orson Wells의 <심판 Trial>이란 영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sup>3)</sup> 웰스는 1941년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신화 이면에 가려진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형식의 영상기법으로 다룬 <시민 케인 Citizen Kane>을 통해 할리우드에 화려하게 데뷔하였으나, 흥행 실패와 영화제작자들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1948년 유럽으로 건너가 배우로도 활동하면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오델로』 등 고전문학을 자신의 영화미학으로 재해석한 저예산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배우 퍼킨스 Anthony Perkins를 캐스팅하여 파리, 로마, 자그레브 등 유럽에서 촬영한 영화 <심판>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웰스는 이 영화에서 원작의 초현실적 공간 이미지를 탁월하게 형상화함과 동시에 1960년대 유럽의 현실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주인공 K의 죄가 당시의 현실이라는 거울에 비춰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곤 했다. 특히 웰스의 영화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독일 표현주의 양식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생겨난 ‘필름 느와르 film noir’ 양식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sup>4)</sup>

1970년대에 할리우드는 독일문학을 소개하는 데 여전히 인색했다. 독일에서는 ‘뉴 저먼 시네마’ 운동의 영향으로 상업적이고 인습적인 영화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주제와 형식을 도입하면서 ‘문학작품의 영화화’<sup>5)</sup>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할리우드는 기존의 영화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학생운동, 반전운동, 인권운동,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아방가르드, 언더그라운드, 인디펜던트 등의 영화운동이 일어나고 기존 영화 형식을 유지한 채 새로운 주제와 스타일을 실험한 ‘뉴 할리우드’ 영화들이 탄생하긴 했지만, 자아 성찰적 성향이 강한 독일문학은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취향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소개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이다.

1980년대는 스피버그의 <조스>(1975), 루카스의 <스타 워즈>(1977) 등 1970년대 블록버스터 영화를 계승한, 소위 말하는 ‘하이 컨셉트 high concept’ 영화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다. ‘하이 컨셉트’ 영화란 보통 하이테크 기술, 전형적인 플롯, 인습적인 내러티브 구조, 복잡하지 않는 캐릭터에 의존하면서 스펙터클한 영상, 최대의 관객, 최고의 이익을 지향하는 영화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페터슨이 이러한 종류의 영화에 대한 취향을 보여주었다. 그는 ‘뉴 저먼 시네마’의 마지막 대열에 끼여 있었으나 미국의 ‘하이 컨셉트’ 영화에 매료되어 1981년 독일의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특전 U보트 Das Boot>를 제작하였다.<sup>6)</sup> 부흐하임

3) 카프카의 『소송 Der Prozeß』은 1991년 소더버그 Steven Soderburgh 감독의 <카프카>, 1993년 존스 David Hugh Jones의 <심판 The Trial>에서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카프카의 『소송』은 영화의 외연에 해당되는 초현실적인 범죄스토리의 소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문학작품의 영화화’라 말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감독이 문학작품을 충실하게 묘사한 영국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4) Vgl. Michael Braun: Kafka in Film, in: Michael Braun & Werner Kamp (Hrsg.): Kontext Film, Berlin 2006, S. 28ff.

5) 독일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양철북> 외에도 클루게의 <어제와의 이별>, 장-마리 스트로의 <아홉시 반의 당구>, 파스빈더의 <잉골슈타트의 침병>, <폰타네: 에피 브리스트>,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헤어초크의 <보이체크>, 벤더스의 <페넬티키에서 골키퍼의 불안>, <잘못된 이동>, 술렌도르프의 <어린 퇴어레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등이 있다.

6) 진지한 주제와 대중적 오락을 잘 결합할 줄 알았던 페터슨은 <끝없는 이야기>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편의

Lothar-Günther Buchheim의 소설에 기초한 이 영화는 당시 미국에서 개봉된 외국영화 가운데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와 같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페터슨은 1984년에는 워너 브라더스와 합작으로 미하엘 엔데의 판타지 소설을 영화화한 <끝없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미국에서보다 국제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뒀다.<sup>7)</sup> 이러한 결과는 1989년 밀러 George T. Miller 감독의 <끝없는 이야기 II The Neverending Story II>와 1994년 맥도날드 Peter McDonald 감독의 리메이크 영화 <끝없는 이야기 III The Neverending Story III>로 이어졌다. 이 중 할리우드 리메이크에 해당하는 맥도날드의 영화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소비욕구, 팝음악, 자유방임의 학교생활 등에 익숙한 미국 청소년 관객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영화다.

또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는 페터슨 외에 술렌도르프, 벤더스 Wim Wenders, 애틀런 Percy Adlon, 엠머리히 Roland Emmerich 등 독일 출신의 많은 영화감독들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미국과 독일 사이의 국제적 협업을 활성화시킨 시기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문학을 할리우드에 소개한 대표적 감독으로 술렌도르프<sup>8)</sup>를 들 수 있다. 술렌도르프는 독일에 CDU 정권의 등장으로 보수화 경향이 짙어지자 미국에 머물면서 밀러 Arthur Miller의 연극을 바탕으로 한 <세일즈맨의 죽음 Death of a Salesman>(1985)을 발표하는 등 미국적인 주제를 다뤘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관심의 방향을 다시 유럽 쪽으로 돌린다. 1991년 <사랑과 슬픔의 여로>는 이런 변화를 보여준 첫 번째 영화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기계적인 인간의 사랑과 운명 이야기를 다룬, 스위스 작가 프리쉬의 소설 『호모 파버』를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술렌도르프가 ‘뉴 저먼 시네마’ 시대에 내놓았던 영화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영어버전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주인공에 미국배우 셰퍼드 Sam Shepard와 프랑스 출신 여배우 델피 Julie Delpy, 독일 여배우 수코바 Barbara Sukowa를 캐스팅하여 할리우드가 선호하는 멜로드라마적인 성향을 강화시킨 대신에 문학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주인공의 자아 성찰적 측면을 크게 약화시켜 버렸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세기말 시점에서 할리우드가 독일어권 문학의 수용한 예로는 큐브릭 Stanley Kubrick 감독의 <아이즈 와이드 섯 Eyes Wide Shut>(1999)이 독보적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니츨러의 『꿈의 노벨레』(1926)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에서 큐브릭은 당시 실제 부부였던 할리우드 스타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를 캐스팅하고 무대를 세기말 비인에서 20세기 뉴욕으로 옮겨 젊은 부부의 성적 욕망과 갈등이라는 주제에 현실성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악 등 영화매체의 수단으로 서사를 보완하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 요컨대 큐브릭은 미국 할리우드의 현실적인 수용조건에서 유럽문학을 자신의 영화 미학적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영화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한 셈이다.

21세기 할리우드에서는 맨 먼저 펜 Sean Penn 감독이 독일어권 문학작품의 영화화에 착수한다. 그가 2001년 내놓은 <맹세 The Pledge><sup>9)</sup>는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의 소설 『약속 Das Versprechen』(1958)을 영화화한

‘하이 컨셉트’ 영화를 내놓았다. 2000년 <퍼펙트 스톰 The Perfect Storm>, 2004년 <트로이 Troy>, 2006년 <포세이돈 Poseidon> 등이 그것이다.

7) <특전 U보트>보다 2배가 넘는 2,700만 달러를 투자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대략 2,016만 달러를 버는데 그쳤지만, 독일에서 약 2,000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Vgl. Christine Haase: When Heimat meets Hollywood, New York 2007, S. 80.

8) 술렌도르프는 1960년 후반부터 이미 독일문학의 영화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1966년 무질 Robert Musil의 소설 『생도 퇴어레스의 혼돈 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1906)을 영화화한 <젊은 퇴어레스>(1966),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미하엘 콜하스』(1910)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 <미하엘 콜하스 - 번역자>(1969), 브레히트의 첫 번째 희곡 『바알 Baal』(1919)에 바탕을 둔 TV용 영화를 <바알>(1969), 뵐의 소설을 영화화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1975), 그리고 귄터 그라스 Günter Grass의 장편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양철북 Die Blechtrommel>(1979)을 통해 그는 국제적 명성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1982년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뉴 저먼 시네마’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영화 제작 환경이 마련되지 않자 잠시 체류를 목적으로 미국행을 택한다. 그가 할리우드에서 감독한 영화로는 밀러 Arthur Miller의 연극에 바탕을 둔 <세일즈맨의 죽음>과 <핸드메이즈 테일 The Handmaid’s Tale>(1990) 등이 있다.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뉘렌마트가 바이다 Ladislao Vajda 감독의 영화 <사건은 환한 대낮에 일어났다 Es geschah am hellichten Tag>(1958)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바이다 감독의 영화가 범죄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뉘렌마트의 소설은 사건을 쫓는 수사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뉘렌마트는 “범죄소설에 부치는 레퀴엠 Requiem auf den Kriminalroman”이란 부제를 달았다. 펜 감독의 영화 <맹세>는 바이다 감독의 영화보다 뉘렌마트의 소설에 더 가깝다. 그러나 펜 감독은 공간적 배경을 스위스에서 미국 네바다주로 옮기고 범인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결말장면을 제시하여 소설과 차이를 두었다. 어쨌든 뉘렌마트의 색다른 범죄소설이 펜 감독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할리우드 범죄 스릴러 장르의 관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편 드림웍스사가 2001년부터 내놓기 시작한 3D 애니메이션 <슈렉> 시리즈는 그림동화를 패스티쉬, 즉 혼성모방 형식으로 수용하였다. <슈렉> 시리즈는 - 집단의 가치지향이라는 측면에서 -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2010년에 월트 디즈니사는 50번째 작품으로 그림동화 『라퐁젤 Rapunzel』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3D 컴퓨터애니메이션 <라퐁젤>(영어 타이틀: Tangled)를 내놓았다. 동화의 라퐁젤이 탑을 자신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버려진 숲에서도 체념하고 살아가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라면, 애니메이션의 라퐁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폭력도 불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변모한다. 이처럼 <라퐁젤>은 동화의 인물들을 변형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함으로써 미국 현대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와 관객들에게 유머와 오락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더 리더 The Reader>(2008)를 넓은 의미에서 할리우드 수용으로 언급할 수 있다. 달드리 Stephan Daldry 감독이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고, 여주인공 한나의 역을 맡았던 윈슬릿 Kate Winslet도 영국 출신 배우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말해 할리우드 수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할리우드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슐링크의 소설 『책임어주는 남자』(1995)의 서사구조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나 21세기 할리우드 관객의 취향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과거 독일역사에 대한 성찰의 치열함을 약화시킨 대신에 15세 소년과 36세 여인의 로맨스를 부각시키고 있다. 달드리 감독이 영화 <타이타닉>에서 잭(디카프리오 분장)의 여인으로 열연했던 윈슬릿을 캐스팅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9) 우리나라에서는 <서스펙트 Suspect>라는 타이틀로 2004년 말에 개봉되었다.

## 발표 2-1

## 주민참여 도시재생 전주『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례를 바탕으로

길미옥(조선대학교)

## 1. 서론

과거 도시개발이 이뤄지던 시절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도시행정가들과 도시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을 설정 후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행정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의 개념과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새로이 명명되기 시작하면서 서부터 전면적 철거 위주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립을 진행하는 대신 기존의 지역이나 마을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지역을 개선시키는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의 역할’은 과거 도시개발에서의 주민의 역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도시개발에서의 ‘주민’은 수동적이고, 행정의 지시와 관리에 움직이는 행정 맞춤형 주민이었으나, 현재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과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도시개발 당시 주민의 참여수준은 ‘공청회 참여’, ‘설명회 청취’, ‘공람’ 열람 등의 수준에 그쳤으나, 현재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청회’, ‘설명회’, ‘공람’ 등의 수동적 활동은 물론이고, 주민협의체 활동, 교육 참여, 사업 초기의 마을개선 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주민 참여의 활동들이 과거의 도시개발에서의 활동들과는 매우 양상이 달라진 만큼 중요성 또한 매우 크게 인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점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마을인 만큼 내 마을의 주거환경에서부터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주민들 스스로 진단하고, 바꿔 나가며, 서로 의논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도시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에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활동의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먼저,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시민 사회의 주인의식과 기본 지식 등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각기 다른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만큼 서로의 욕구와 가치관도 첨예 하게 다르다. 이러한 각기 다른 주민들을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한 무리로 묶어 둘 수는 없다. 각기 다른 욕구와 가치관의 차이를 ‘주민참여’ 라는 새로운 형태로 활동을 독려하되, 각기 다른 활동분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방법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접하게 되고, 보다 폭넓은 견해와 사고, 지역 주민으로써 새로운 활동에 대한 주체로써의 자격과 행위에 대한 처세술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 처세 등은 도시재생에 필요한 정책 및 기획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2)

1) 한상옥(2007-17)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P18

2) 한상옥(2007-17)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P18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이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인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 활동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참여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 2-1.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전주 원도심에 위치한 행정구역상 풍남동과 중앙동, 노송동 일원 1.43km<sup>2</sup>을 2016년~2020년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총 1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국비91억원, 지방비 91억원),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이 그 비전이다. 3)

쇠퇴지구 거점기능 강화, 원도심 균형재생, 재생과 지속이 핵심 목표이며, 거점시설 정비 및 각 지구(4개의 지구로 분류 배열: 감영지구, 영화의 거리 거점지구, 감영지구, 공공기관 거점지구) 재생활동, 각 지구간 연계 활동 및 성과 확산, 직접적인 주민 참여 지원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각 사업별 목표 및 활동 내용은 <그림1>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1>4)

### 2-2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사례

총 13가지의 큰 틀의 추진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각 지구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거점시설 및 지구재생을 위한 감영지구 재생사업으로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과 고물자 골목 재생사업 활동을 2016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지구간 연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동문 문화형 골목길 조성 사업과 영화의 거리- 감영지구 연계 사업이 있으며, 직접적인 주민 참여 사업으로 역

3)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주

4)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안, 2016 활성화 계획

량강화 사업, 건축주 협정, 자원기록 사업 등이 있다.

이 13가지 마중물 사업 중 주민참여 활동의 경우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민 역량강화 사업과 둘째, 사업의 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활동이며, 마지막으로 마중물 사업의 주민조직 활동 참여 이다. 첫째, 주민 역량강화 사업 참여의 경우,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타이틀 아래 ‘동문 골목길 함께 디자인 학교’ 진행을 통해 원도심의 어매니티를 높이면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축제학교’ 를 운영하여 전주 원도심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추후 직접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청년.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커뮤니티협력 사업」을 추진전략으로 ‘술래모임 공동체<sup>5)</sup> 사업 진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이 진행되었으며, 술래학교를 통해 전통주와 가양주에 대한 이해 및 전통주 빚기(막걸리), 수제 맥주 만들기 등의 실습을 직접 전통주 및 수제 맥주 등을 빚어 시음회를 여러 차례 진행 하였다. 이들은 ‘짠’<sup>6)</sup>이라는 명칭의 스토리 북을 원도심 젊은 청년 요식업 상인들이 직접 제작하여 원도심 식당가, 주점 가에 배포 하였다.

원도심 수공예 작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프 프로젝트’를 통해 수공예 작가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과 수공예 작가들과의 연계 교육을 통한 진로체험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 하였다. 또한, 원도심 작가 공방 을 찾아가 직접 프로그램을 배우는 방문형 문화예술 체험 학습을 통해 초.중 학생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었으며, 각기 다른 주민 참여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른 목적과 다른 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 되었다.

둘째, 이러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쌓게 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파급 효과로 활동 분야 별로 새로운 주민참여 형태의 전시회, 또는 공휴공간을 활용한 공동 작업실 운영 및 주민 교육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 등이 사업의 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활동이다.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대학」의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인 하나인 ‘시민자산화 교육’을 통해 부동산의 시민자산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고, 관련 법안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과 연계되는 고물자 골목, 교육공동체, 영화영상 공동체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공건물의 시민자산화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꿈꿀’이라는 「주민공모사업」에 지원 후 선정되어 활동하는 주민참여 활동의 경우 본인들이 활동 하고자 하는 사업 구상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사업진행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에 참여한 후 직접적인 참여 주체로써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각 분야별 활동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더 넓은 영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거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까지 연계되기도 한다.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주민참여 작가들 중 ‘수달’이라는 공동체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2017년 도시재생 대학」의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수공예 작가들이 그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름인 ‘수달: 수공예의 달인’이라는 뜻의 명칭으로 모여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시회 및 공휴공간에 공동 활동 작업실인 ‘공간 수’<sup>7)</sup> 여는 등 2019년 현재까지 공동체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주민참여 활동의 마지막 형태는 각 사업에 조직 구성에 참여하여 계획, 정책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제안, 논의, 토론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 행위이다.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한 분야인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의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 운영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주민협의체의 경우, 총 25명으로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건물주 5인, 임대상인 5인, 거주민 5인, 인근 거주민 5인, 활동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가의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건물주들의 개인적인 욕심의 목소리

5) 전주 원도심 요식업 상인들의 상인들의 모임으로 원도심 상인 커뮤니티협력 사업인 ‘2017년 술학교’ 수료 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6) 2018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도심 상인 커뮤니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비를 받아 ‘술래모임 공동체’에서 전주 원도심에 위치한 술집을 소개하는 술 스토리북 발간

7) ‘수달’공동체 2018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인 「커뮤니티협력 사업」지원을 받아 마련한 공동 작업 공간

를 자정해주기 위해 선정한 그룹이었으나, 전라감영로의 경우 주민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모든 건물주들은 소위 ‘착한 건물주’들로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의 목적과 전라감영로 인도조성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경관협정 운영회’를 ‘주민협의체’ 산하 하위 주민조직으로 구성하여 ‘전라감영로 경관협정’을 이끌어 냈다.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은 현재 경관심의, 도시림 심의를 완료하고, 원가심의와 실시설계 심의 서류 중에 있다.

주로 주민조직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조직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주민 조직 구성(협의체) 우선 구성이고 또 하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동 참여 후의 조직 구성이다. ‘전라감영로 주민협의체’의 경우 첫 번째 형태로 조직 되었다. 처음 조직 구성을 위해 현장 활동을 시작하였을 당시는 건물주들의 매우 거친 반대가 있었으며,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16 활동 공유회’에 참여가 아닌 향의를 위해 건물주 12인이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활동 공유회를 직접 보고 듣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3년이란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활동과 주민 미팅, 방문을 통해 2018년 3월 주민협의체가 조직 되었으며,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에 대한 디자인 워크숍 6회 진행, ‘경관협정’을 위한 워크숍 4차 진행을 통해 9월9일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완료 하였다. 이 과정에 경관협정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느낌을 받은 임대상인들의 겨우 4인이 주민협의체 활동을 포기하였으며, 2019년 4월 주민협의체의 조직 재정비를 하였으며, 최종 주민협의체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주민 조직 활동의 또 다른 형태인 고물자 골목의 주민활동을 살펴보면 주민 협의체나 조직 구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현장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고물자 골목의 유래는 과거 1950년대 이후 6.25 사변 이후 미군 부대의 구호물자들이 고물자 골목에서 거래 되면서 붙은 명칭이었다. ‘미제골목’에서부터 ‘구호물자 골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구호물자 물건이 불티나게 잘 팔리던 그 시절, 고물자 골목의 또 다른 인기 품목은 ‘한복 삭’ 바느질 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구호물자 물품이 더 이상 구하기 힘든 신기한 물건이 아니라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입 물건들이 되어 버려 더 이상 고물자 골목에서 찾는 이들이 없게 되자, 구호물자 물건의 판매가 사라지고 ‘삭 바느질’ 하던 우리 고유의 한복을 짓는 한복 장인들이 그 자리를 하나, 둘 메워가기 시작했다. 삭 바느질을 하며 고물자 골목을 지키던 장인들의 바느질 솜씨가 입소문이 나 밀려드는 손님들이 많았던 시절, 남부시장 내의 한복집에서 일감을 가져와 매일 밤을 세워가며 약속 일자에 맞추느라 식사를 거르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거기에 바느질 솜씨가 입소문이 나 직접 찾아오는 고객들까지 그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던 고물자 골목이 한동안은 ‘바느질골목’, ‘한복골목’으로도 불렸다. 그런 그 고물자 골목의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60이 넘는다. 이제는 한복 만드는 장인이 겨우 3~4명만 남아 있고 그마저도 문을 드문드문 열고 있다. 이유는 일감도 없지만, 연로해진 한복 바느질 장인들은 하루 종일 점포를 지키고 앉아 있을만큼 체력이 좋지 못하다.

고물자 골목의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인 ‘오꼬시 골목’<sup>8)</sup>은 과거 고물자 골목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 고물자 골목에 한복집 다음으로 많았던 오꼬시집, 이제는 단 한곳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사라지고 있는 품목의 상점들과 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이든 주민들, 노후 된 건물들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단어조차 이해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주민조직화’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일조차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에서 주민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은 제일 먼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분들의 지난 시절의 활동과 지났던 추억, 이야기들, 그분들의 기술과 이야기가 담긴 ‘장인’작품 전시회를 여는 한편, 한옥마을에서 활동을 하던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임대가 상승으로 동지에서 내몰림)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포세가 저렴한 고물자 골목으로 이주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젊은 예술인들의 이야기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시작했다. 나이든 ‘한복장인’ 어르신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 마을주민들과 ‘조각보잔치’<sup>9)</sup>를 열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고물자 골목

8) 오꼬시(또는 오고시) 일본어 오꼬시에서 유래한 말로 밥풀과자 란 뜻, 우리말의 표현으로 ‘강정’이라고도 부름



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림2〉<sup>10)</sup>

이 잔치의 주목적은 주민간의 소통과 네트워크였으며, 평소 폐쇄적인 골목의 분위기에 현장 활동을 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을 잔치의 분위기가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주민 활동들은 2019년 현재 고물자 골목에서의 ‘북아트 페어’라는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 4. 결론

이렇듯 주민참여 활동은 여러 형태로 참여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특색과 주민들의 상황에 맞추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민 참여 활동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으며, 주민참여 활동의 분류를 살펴보면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나눌 수 있고, 주도권에 의한 분류로는 행정주도형 참여와 주민주도 참여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현재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사례의 경우, 제도적 참여이며, 행정주도형 참여와 주민주도형 참여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체로 행정이 이끌어 가되, 그 내용을 인지하여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불합리적인 상황의 목격이나 인지 시, 이를 제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처음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설립 되었던 당시에는 주민 참여에 대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주민참여를 유도하되, 행정이 주민을 리드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준비된 활성화 계획에 주민들이 추후 활동을 위해 합류하는 식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 놓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하고 논쟁이 야기될 시, 주민들끼리 주민협의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며, 현장지원센터나(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의 경우 주민들의 뒤에서 서포트 하는 식의 활동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다.<sup>12)</sup>

이렇듯 최근 2~3년 사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

9) 2017년 10월~12월, 고물자 골목 ‘루비 한복’대표 오정자 장인과 수필가 겸 전라감영로에서 ‘카프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강성훈 대표, 동네 책방인 ‘유월의 서점’ 남은수 작가,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더플라잉팬’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은홍 셰프,한옥마을에서 이사온 ‘바늘소녀 공작소’를 운영하는 윤슬기 대표, 전주 남부시장 기름집을 운영하는 송창엽 대표, 총6인의 문화예술인들이 고물자 골목 주민들과 함께 현장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조각천들을 이어 천막을 만들어 ‘조각보 잔치’라는 이름으로 마을 잔치를 3차례 진행함

10) 2017년 11월10일 2차 조각보 잔치 현장 사진

11) 한상욱(2007-17)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2) 2018년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교육 4차 제주. 호남 교육(광주)

깨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는 지역의 노후 된 환경과 낙후 된 지역의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먼저 도출해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개선 방안을 논의 후 비로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미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음에도, 현장은 아직도 그러하지 못 하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상 주민참여가 도시재생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기란 매우 어렵다.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부터 시작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의견으로 제시 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어 그 지역의 문제들이, 그 지역의 인적자원들과의 네트워크, 공동체간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주민 참여 사례도 마찬가지 이다. 2015년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 활동이 부실하였고, 2016년 8월16일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초기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며, 주민들의 행정과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불신 또한 컸다.

그럼에도 현장지원센터와 전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에라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주민참여 활동에 폭을 넓히고,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시도하여 주민들의 이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의’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2월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종료 되어야하는 만큼 사업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믿음과 신의’를 얻기 위한 주민참여 활동을 이끌어 내느라 사업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나 주민들의 믿음과 신의가 바탕이 되어 2019년과 2020년은 더욱 발 빠르게 활발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사려 된다. 현장 활동가들과 행정 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도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깨닫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에서의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한 뒤, 추후 모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민협의체에 이관하게 될 것이며, 주민협의체는 정관에 의한 관리 규약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활동과 관리를 통해 주민 참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더 이상 방관자적인 ‘객’이 아닌 ‘주인’으로서 내 집과 내 마을은 내가 바꾸고, 가꾸고, 만든다는 사고를 가지고 ‘주민 참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가꾸어 가는 마을이야말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2016.
2.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2017.
3.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결과 보고서, 2017~2018

## 발표 2-2

##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문화콘텐츠(공연예술)를 중심으로

최철(조선대)

### I. 서론

급변하는 정세, 혼란의 시대, 막막하기만 한 한반도 정세는 경제 외교 등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외교전쟁의 중심이요, 그들의 끝없는 이익추구의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그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 그리고 모호함을 통해 이곳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러시아와 중국,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까?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과 번영은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통한 대화일 것이다. 촛불항쟁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성공적인 남북회담<sup>1)</sup>을 통해 화해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북미회담을 만들기 위한 조율 등등 있었으나 최종적 종착지라 볼 수 있는 북미협상을 위한 우리의 가교 역할은 한계점을 보였으며 유엔의 대북제재 아래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와 본격적인 교류가 힘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되며, 이러한 교류의 실질적인 분야는 유엔의 대북제재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적은 사회 문화 분야가 가장 현실적이다. 통일시대, 남북, 북미에 관한 관계성과 대화들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sup>2)</sup>와 열망이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문화교류를 통해 지속적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세기 넘게 분단국가가 되어 참예한 대립 속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실되어가고 있는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동질성 회복에 있다 말할 수 있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문화교류는 우리에게 필수이다. 이러한 예로 우리는 분단국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sup>3)</sup>

1) 제1차-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9분 (한국 시각),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과 소회의실 사이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남.

제2차-2018년 5월 2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구역 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비밀리에 즉석으로 열렸음.

제3차-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렸음 (문재인 정권에서 1차~3차이며 이전 김대중 정권때 1차, 노무현 정권때 2차 정상회담이 있었음)

2) 엘리트 나우앤서베이는 2018년 9월 27부터 10월 4일까지 자체 패널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271명, 여자 229명, 총 50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포인트이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사분의 삼 이상(76.6%)이 '통일을 원한다'라고 대답하였고, 23.4%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7>)

3) 기본조약 체결 후 1973년 11월부터 문화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문화협정이 체결되어 문화분야 교류는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경제교류나 인도적 교류와는 달리 문화교류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서독 측은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민족문화 차원에서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세계평화공존의 시대의 밑거름이 될 문화교류는 남과 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교류에 우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분위기와 신뢰가 조성된 다음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고찰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된다.<sup>4)</sup>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호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문화정책 수립이라 할 수 있다. 본 저자는 이러한 남북문화교류의 처한 상황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남북한의 공동된 문화콘텐츠에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거하려 한다.

## II. 본론

### 1. 남북한 문화교류의 상황

남북한의 문화 교류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한참 이었던 시기 경색기를 거쳐 1990년대 들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가장 활발했으며 그 후 경색된 주변 영향과 지속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이어진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으나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아래서 정상적인 교류는 어렵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당국자간에 협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sup>5)</sup> 본 저서에서는 본격적으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문화 교류협력 상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된 교류협력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 1) 김대중, 노무현 정권(1998. 2~2008. 2)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는 남북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로 북한을 함께 번영을 이루며 나아갈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협력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갔다. 핵개발로 경색된 주변 상황에서도 문화교류사업은 진행되었으며 남북의 긴장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1-대표적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1998.2~2008.2)>

기간	행사명, 개최장소, 내용
1998.5.2.~ 5.12	리틀엔젤스 평양공연-민속무용조곡, 가야금병창, 아리랑, 군밤타령, 휘파람(북한가요)등
1998.5.29.~6.11	남북 공동 사진전(평양, 서울 예술의 전당)
1998.11.3.~11.5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평양)-그네, 사랑가, 광주여 영원히등
1999.12.1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로저클린턴 외 남북 예술인-이별, 사랑의미로, 봉선화 등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동독 측은 서독의 문화침투를 경계하면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화협정 체결 후 문화교류가 대폭 확대되어 연극·연주회·전시회의 교환개최, 학생·학자·예술인의 교환방문, 문학과 서적의 교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의 대출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a%b5%90%eb%a5%98/)

4)정창연(현대사연구소장) 『2018한반도 대 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남북·북미 협상의 지속 위해 다층적 교류협력·신뢰 구축 필요』(민족화해2018년03+04월호, 격월간, 통권91호) pp.19~21

5) 2017년 정부는 문화·예술·학술 등 다양한 문화 교류를 장려하였으며 2017년 광주비엔날레 북한관계자초청, 국악대축제 공연협의, 평창 동계 올림픽기간 남북평화음악제 개최등과 같은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접촉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행사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일부 『2018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8)

기간	행사명, 개최장소, 내용
1999.12.20	제1회 민족통일 음악회(평양)-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백만송이 장미, 아침이슬, 눈물젖은 두만강, 봄맞이 처녀, 손에 손잡고
2000.5.24.~5.3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백두의 발굽소리, 휘양닐리리(음악), 꼭꼭 숨어라(무용), 승전고를 울려라(악기)등
2000.5.29.~6.11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2000.8.18.~8.24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서울)-동무생각, 봉선화
2000.12.11~12.18	금강산가극단공연(서울)-아리랑, 봉선화
2001,2002.4	김연자“4월의봄 예술축전”
2003.8.9.~8.12	KBS 평양노래자랑
2003.8.29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청년 공동문화행사(남한)
2003.9.21.~9.26	청년학생역사유적답사단(방북)
2003.10.6	통일음악회(평양)-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남북예술인들 합동공연)
2003.10.23~10.27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제주도)
2003.11.20~11.22	남북합동 수석 전시회(금강산)
2004.4.9.~6.20	고구려 문화전(서울)
2004.6.14.~6.20	남북공동사진전 “꽃으로 본 내 나라”(평양)
2005. 2월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위원회 결성
2006. 3월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회 출범 4차까지 회의
2005.6.14.~6.17	6.15평양대축전 기간, 조용필 평양공연, 민족작가대회(평양)
2006. 4.30	윤이상 남북 합동 음악회(금강산) <sup>6)</sup>
2006.6월~10월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특별전시회(서울과 대구)
2006.10.30	6.15 민족문학인협회출범(남북문학인)
2007.9.3.~11.9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개성)-2005년 합의

2) 이명박, 박근혜 정권(2008. 2~2017. 3)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원칙을 기반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기존 통일 정책 중 대형 프로젝트는 연계하여 추진하였지만 새로운 교류 협력 사업은 거의 멈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명맥을 이어오던 사업마저도 금강산 피격사건, 핵개발, 천안함, 연평도 피격으로 정치, 사회, 경제 분야 교류와 더불어 경색국면을 당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비정치적, 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분야, 종교분야에서는 선별된 교류를 재개하였다.<sup>7)</sup> 박근혜 정부 5.24 조치의 연장선에서 대북강경정책은 지속 되었으며 북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따른 남북, 북미 관계 경색으로 인한 영향으로 문화교류는 거의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6) 금강산 문화회관서 개최 남측은 현대음악, 북측은 전통음악을 제안, 남측이 먼저 공연하고 이어 북측의 공연이 이어진 후 합동으로 공연하는 형태를 이룬다. (<http://news1.kr/articles/?3218308> /2019.4.11일 검색)

7)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5.24 조치 (한경 경제용어사전)

<표2-남북 주요 문화교류협력(2008.2~2017.3)>

기간	행사명, 개최장소, 내용
2008 ~ 201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3.4차 (개성)-2010년 중단 6.15 민족문학인협회(남북문학인) “통일문학” 2008년까지 2호발간 이후 중단
2011.11.14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긴급복구조사 (개성)
2012. 2. 28~3.3	정명훈 방북, 은하수관현악단 리허설 진행
2012.3.14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합동공연 정명훈 지휘(프랑스 파리)-생상의 협주곡, .닐리리나, 브람스교향곡, 아리랑
2012.3.21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문화제 남북 공동 환수 문제 논의(개성)
2012..6.13~7.22	풍경남북-풍경으로 넘어보는 우리땅 전시회(고양누리)
2012. 10.10~10.12	북한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특별상영
2012.11.8.~11.12	광주국제영화제 평양에서의 약속(원제:아리랑) 특별상영
2012.11.13.~17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방북 생가 확인- 황해도 신천군

3) 문재인 정권(2017. 5~)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기는 남북관계 단절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경색된 분위기는 남북한의 문화교류 협력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어색한 남북분위기에서도 2017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열려진 남북대화의 물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의 유엔제재 아래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닌 문화교류 사업은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표3-남북 주요 문화교류협력(2017.5~ )>

기간	행사명, 개최장소, 내용
2018.2.8	삼지연관현악단(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성공기원 특별 공연)강릉
2018.2.11	삼지연관현악단(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성공기원 특별 공연)서울-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통일,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아리랑, J에게 등가요, O sole mio등 세계민요와 관현악곡
2018. 3.5~3.6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공연(봄이온다) 백두와 한라는, 우리의 소원은, 다시 만납시다 등(남북 예술단 합동공연)
2018.7.18~7.22	제22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북한 작품9편 초청 상영
2018.9.7.~11.11	2018광주비엔날레(북한미술전)
2018.11.8.~11.14	세계한민족미술대축제(북한 유화작품) 서울

2. 남북한 문화교류(공연예술)의 내용

남북문화교류는 상호호혜의 원칙을 기본 근간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 아래서 진행된 상호 교류 공연은 남북 관계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면, 기본합의서 도출, 남북정상 회담의 마중물이 되었다.8)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되는 공연들은 방송매체를 통해 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9) 또한 공연 내용의 구성에 사용되는 콘텐츠 역시 주목의 대상이었다.

8)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p.40> 2013.1 문화체육관광부

9)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2일 정오부터 오늘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강릉/서울) 티켓 응모 접수를 한 결과, 서울 공연에는 총 11만 7123명, 강릉 공연에는 3만 9109명이 참여했다. 총 15만 6232명이 응모해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30명(서울 250, 강릉 280)에게 각자 2매씩 총 1060장의 티켓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종 경쟁률은 서울 468:1, 강릉 140:1이었

남북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이나 단독 공연에서 많이 사용되는 콘텐츠로는 ‘아리랑’,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시 만납시다’, 등 이외에도 우리 민요들과 북의 대중가요 ‘휘파람’, 우리의 ‘눈물 젖은 두만강’, ‘사랑의 미로’, ‘J에게’ 등이 있다<sup>10)</sup>

### 1) 콘텐츠의 특징

남북의 상호 교류 공연에 있어서 특징은 정치적인 문제와 서로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연 된다는 것이다. 남과 북, 모두 공연 전 협의를 거치는데 북한에서 남측 공연단이 연주를 하거나 합동연주를 개최 할 때는 전통음악<sup>11)</sup>이나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내용의 콘텐츠를 선호 한다. 그리고 북한의 남측 공연 때에도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서 공연된다.

남북 문화공연 교류는 공연예술가들을 비롯하여 무대설치와 공연 스태프들까지 이동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많은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또한 공연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에는 다른 이질성<sup>12)</sup>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서로 교감이 있는 콘텐츠를 함께 함으로 해결해 나아갔다.

### 2) 남과 북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콘텐츠

남북 단독, 합동 공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아리랑’<sup>13)</sup>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이 땅에 뿌리를 둔 모든 한민족인들이 구전으로 아니면 교육을 통하여 익히 아는 곡이며 내용에서도 한민족의 얼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많은 민요등 전통음악이 주요 콘텐츠로 사용되었으며 통일과 하나 됨을 노래하는 ‘우리의 소원’, 항일의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봉선화’, 북한의 ‘반갑습니다’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콘텐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사상의 이질성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공통분모 안에 들어있는 소재들과 서로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이라는 방향성에 취합되는 콘텐츠라는 것이다.

### 3)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 ●한계성:

①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상호방문 공연을 보면 주로 똑같은 콘텐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비단 양국의 정치적인 이념의 굴레에 사로잡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모든 것이 정치적인 이벤트로서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1회성의 공연으로 극대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닐까? 사료된다. 매회 같은 내용 비슷한 것이 공연 된다는 편협 됨은 다양함과 진보성을 추구해 나아가는 예술의 속성에 걸맞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공연예술교류가 확대되면 흥미와 대중들에게 미치는 효과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②공연 스타일, 사용되는 악기등의 여러 이질성을 극복함이 필요 하다.<sup>14)</sup>

#### ●해결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문화공연예술만을 전담하여 논의 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15)</sup>

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17742/2019.4.11.검색>)

10) <표 1,2,3> 참고

11) 각주6 참고

12) 남북 합동공연 할 때 관현악단 공연 시 북한은 전통계량악기를 사용, 가수들의 노래하는 스타일과 공연의 방식의 차이에 대한 극복 등이 필요하다.

13) 아리랑은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전통민요

14) 북한은 오케스트라에 다양한 국악기를 개량하여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곡의 편곡과 함께하는 합주 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 공동개발과 그리고 공연 때 발견된 서로의 이질성을 이타성<sup>16)</sup>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서둘러서 과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협상아래서 남북한이 정책기구를 만들고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연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Ⅲ. 결론

지난 1년여 기간 한반도는 격변의 시간을 보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 등이다. 많은 세계인들은 남북 화해 협력 시대, 통일을 꿈꾸었으며 이러한 바람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며 그중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그 상징성을 내포하며 남북한의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sup>17)</sup>

문화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일컫는다. 남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살더라도 일정기간 상호 교류가 없거나 정치적 이념과 다양한 삶의 다른 패턴을 지향해 살아 왔다면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교류 분야를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남북한의 교류가 필요하며 단지 교류를 넘어서 함께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절실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이타적인 관계성 확립이 필요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시성 문화예술의 교류를 뛰어 넘어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은 남북한의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서 통일시대 하나 된 한민족의 비상을 이끌어 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규외 7인.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분야의 방안』(인문사회 연구회/협동연구총서2002-16)  
 이우영외 2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5/통일연구원).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정체와 확대 방안』(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 통일경제 2009 여름호).  
 박영정. 『남북문화교류정책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하정렬. 『상호주의 전략-남북 교류협력을 넘어 평화 통일로』(오래/2012.2.20.) 오기현 『평양걸그룹 모란봉 악단-남북교류의 창』 (지식공감/20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분야별 진단 과제』 (늘품플러스/2015).  
 임강택외 6인. 『2017민화협 정책보고서-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 정부의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늘품플러스/2017).

15) 남북교류사업에서 사회문화교류 분야로 나누어 협상과 정책을 진행해 나아가는 데 사회와 문화의 분리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공연예술분야, 콘텐츠 개발에 관한 미래 지향적으로 세분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6) 자기와 다른 개체의 성질과 존재를 인정 하는 철학의 개념. 이타성과 관용의 차이는 관용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때 한쪽으로 피해줘서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타성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서로 좋은 양쪽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 조화로운 도시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개념.

17) 본 논문 6p 참조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2일차**  
5.4. Sat.

**I 문화교육 분과**

발표 01

**마을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전라남도 무안군 복길리 이야기**

오장근(목포대), 오영훈(인하대)  
조준범(목포대), 이헌수(목포대)

발표 02

**재정착 난민 카렌족의 생애담 탐색적 연구**

박봉수(다아스포라연구소)

발표 03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  
**-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조영철(담방초등학교)



## 발표 01

## 마을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전라남도 무안군 복길리 이야기

오장근(목포대), 이현수(목포대), 조준범(목포대), 오영훈(인하대)



### 1. 서론

마을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마을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생성된 것들이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각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을마다 특수한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곧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샘’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을 연구는 마을이 지닌 특수한 이야기를 통해 원형발굴과 스토리텔링을 설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 콘텐츠의 대상으로서 마을 연구에 있어서 마을만의 민속자료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민속학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에 내재된 삶의 이야기들은 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정리와 가공을 통해 그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을 이야기들이 담긴 문화원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설계 단계가 이뤄진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Story)를 말해주는(Telling) 것으로, 말해주는 중개자에 의해 가공된다. 즉 스토리텔링이란 어떤 원형의 이야기가 매체(Medium)를 통해 다시 말해지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설계의 토대가 되는 것은 어떤 원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 다양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많은 마을의 문화원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도시화로 인해 수많은 우리 마을 이야기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기존 마을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기존 마을의 모습을 보존하고 재생시키려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즉 해당마을의 자연경관, 문화재, 유적, 주민의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지(‘사이버 향토문화관’)가 등장하였다. 이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해당 마을의 기억을 잃은 마을 원주민에게 정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강구되기도 했다. 이런 사이버 향토문화관들은 마을주민이 기록물을 보면서 사라진 고향 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도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지역 문화 콘텐츠는 그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특한 마을문화 자료는 문화원형 또는 문화요소 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축적한 문화적 흔적과 전통적 가치들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현재화한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 콘텐츠화 작업은 지역 문화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소재를 학문적 검증을 통해 정보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창조성의 소재가 된다. 따라서 지역문화 콘텐츠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마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해당 마을을 홍보하기도 한다.

## 2. 마을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설계

### 1)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복길리는 복길1리와 복길2리 텃석골로 구성된 마을이다. 복길2리는 호구총수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자료에서는 기술되지 않았고, 1980년의 자료에야 비로소 복길2리 텃석골로 등장한다. 실제로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구증가로 1970년대에 복길 마을에서 분리되었다. <표 1>은 현지조사 날짜, 조사지역, 연구 참여자,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현지조사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차수	날짜	조사지역	연구 참여자	주요 내용
1	2018.11.16	한진수산	한진수	복길리에서의 장사, 댐에 대한 얘기
2	2018.11.16	복길1리 마을회관	이상운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 이남규 씨에 대한 정보
3	2018.11.16	복길1리 마을회관	이석진	복길리에서의 놀이
4	2018.11.16	복길1리 마을회관	이연화	복길리에서의 생활

5	2018.11.16	복길1리 마을회관	장판임	복길리에서의 생활
6	2019.1.08	복길2리 마을회관	박기현	시어샘 설화와 박기현 씨의 생애사
7	2019.1.09	조인식 할아버님 가택	조인식	복길리 마을지리, 복길2리 집성촌과 집안 인물, 학살 당시 상황, 텃석골 지명 유래, 복길리의 산업
8	2019.1.10	복길교회	문유신	복길교회와 학살 당시 상황
9	2019.1.10	복길항	함영례	복길리의 제례의식

## 2) 조사 내용

복길리에 대한 마을지 조사내용은 크게 설화, 자연지리와 지명유래, 역사, 성씨와 집성촌, 인물, 마을 사람들, 생활, 특별한 장소 등 8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설화는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시어샘, 자연지리는 복길리 여러 곳을 지칭하는 이름과 그 의미를,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던 학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나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성씨와 집성촌은 무안문화원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물과 마을 사람들, 생활, 특별한 장소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녹취록을 전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키워드별 내용을 정리하였다.

## 3. 스토리텔링의 유형

### 4. 마을 조사 내용: 복길리 이야기

#### 1) 그들이 부르는 이름들, 자연지리

##### 복길1리와 복길2리

복길1리는 과거에 사람이 많았던 부자동네였고, 복길2리는 가난하고 사람이 없는 동네였다. 마을에 진입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복길2리가 있고 1.8킬로미터를 더 가면 복길1리가 나온다.

복길1리와 복길2리는 본래 복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마을이었다. 복길1리 사람들은 어장을 운영하며 배까지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많이 거주한 반면, 복길2리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이 맨손으로 바다에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복길2리에 간척지 사업이 들어와 바닷가를 모두 논으로 매우게 되자 그제야 농사를 짓게 되어 예전보다 훨씬 삶이 나아졌다. 복길1리는 당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던 대규모 마을이었고, 복길2리는 1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당시 복길2리에 사람이 적게 거주하였던 이유는 먹고 살거리가 전무했으며, 적은 인구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사건 당시에 복길2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복길1리에서 1.8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길1리 사람들과 복길2리 사람들은 전혀 접촉이 없었다.

#### 아직까지 사용되는 복길리 지명

복길리라는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다.

복길을 뺏길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지명의 유래는 두 가지로 전해 온다. 하나는 '마을의 형국이 서해안을 향해 직선으로 쭉 뻗은 데다가 마을 옆에 토끼섬[兎島]이 있어 마치 한자 '卜' 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卜吉이라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다를 상대로 생업을 이어가다 보니 점술이 많게 되고 점술을 하게 되면 마을이 흥해진다 해서 복길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길리 곳곳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도 있는데, 이들도 아직 까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백창석, 2017.6).

####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복길교회

복길리 마을 주민의 80%가 다니고 있는 복길교회는 과거 복길리의 어린이들이 뛰놀던 놀이터이기도 하며, 역사적 아픔을 고이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이다. 복길교회는 2020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교회이다. 당시 복길교회는 마을 주민의 80%인 100명으로 시작했으며, 복길교회는 목포 양동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있고, 종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다. 복길교회 목사 문유신 씨에 의하면, 무안에서는 무안제일교회 다음으로 오래되었다며, 민족정기와 역사의식이 강한 교회라고 한다.

## 2) 사람들의 생활

복길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복길리에서는 열심히 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하시며, 연구팀들에게도 뭐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과거 복길리에는 풍부한 어종과 많은 농작물들을 바탕으로 재배와 판매를 하며 생활했으며, 할머니들은 주로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시거나 굴이나 바지락을 많이 캐으며, 현재는 농사가 주요 활동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들은 바다에 나가서 민어나 전어, 병어를 잡아 오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업이 주요 활동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들에 의하면, 복길리 생선이 싱싱하고 모두 자연산이라며 연구팀에게 복길리의 횡집의 회들은 전부 그 날 잡은 싱싱한 자연산 생선이라고 한다.

## 3) 가슴 아픈 역사

### 86인의 피해자들

복길리 마을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 마을 주민 86명이 이곳에서 학살당한 사건이었다. 이남옥은 학살을 저질렀던 장본인이 인민군들이 아니고 지방폭도라고 한다. 당시 복길리는 부자동네였고, 이곳에서 초대 도지사가 배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지방폭도들이 무기를 들고 쳐 들어와 복길리 주변을 전부 포위했다고 한다. 문유신은 당시 이승만 정권체제의 도지사인 이남규로 인해 우파세력으로 간주되어 그것을 핑계로 좌파들이 복길리로 내려와 학살을 저질렀다고 한다.

학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행되었다. 총대로 때리거나, 총칼로 찌르거나,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주민 86명을 수장시켰다고 한다. 이상윤은 그때 살아나온 사람이 4명 있다고 했지만,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

복길교회는 도지사 이남규로 인해 우파교회(우익적 교회)로 낙인찍혀 학살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좌익세력들에게는 이러한 교회가 좋은 먹잇감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 사람들을 끌고 바로 앞 선창가 쪽으로 가서 학살을 저질렀다고 문유신은 회고하였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순교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후에 이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위로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복길교회의 오랜 역사와 상징성으로 인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픈 역사와 세월들은 100주년을 기념식을 통해 사라지고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 4) 인물

### 우리 할아버지가 갈암니서 진사를 했어. 조 진사

복길2리에서 살고 계신 조인식 할아버지는 KBS의 다큐멘터리 '코리아 지오그래픽' 연출진이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복길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조인식 할아버지는 복길2리가 원래 조씨 집성촌이라고 한다.

지금의 압해면에 위치한 갈암니는 북한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생소한 지명으로, 복길리 바다 건너에서 조인식 할아버지의 5대 조부인 유학 조오철이 3등으로 진사를 했다고 조인식 할아버지는 말한다. 조인식 할아버지는 이와 관련하여 집에 소장한 고서들을 연구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몇 개는 쥐가 갇아먹었다고 하며 아쉬워했다.

### 주민들을 살린 영웅

학살 사건 당시 이석진은 누나들이 간 바다 방향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의문의 남자가 바닷가 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에 가지 않았고,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생명의 은인이라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람

의 이름과 외모도 모른다고 한다.

## 5) 설화

### 사람을 살리는 샘물 시어샘

옛날에 복길 2리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이 샘물은 마르지도 않고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샘물이었기 때문에 이 샘물을 마시려고 멀리서 사람이 왔으며, 앓은뱅이는 물론 나병환자도 치료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기현은 샘이 매우 깊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던 마을회관의 할머니 중 한 분은 ‘시합하다 빠진다’는 복길리의 옛말을 들어서, 깊은 샘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어렸을 적 부글부글 끓던 샘이 신기해 너무 가까이 갔다가 어머님께 매우 혼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그 샘이 사라진 상태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샘물 옆쪽에 지하수를 파서 물이 섞여서 사라졌다는 것, 두 번째는 소문난 샘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복길2리 사람 중 한 명이 죽은 개를 샘 속에 던져서 샘물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 신비한 가스

박기현은 복길2리의 논밭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스가 신기하여 과거에 국과수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스는 불에도 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라는 결과를 듣고 다소 실망했다고 한다. 가스가 나오는 이유는 석회암 지대인 복길리가 바닷물과 만나 석회암이 부식되기 때문이며, 현재도 그런 장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한다.

## 5. 마을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실제

### 1) 텃석골

먼 옛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에게는 별다른 재주는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그 일대의 모두가 한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훌륭하여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내다 파는 게 그의 업이었다. 어느 날 청년의 어머니가 몸을 못가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다팔 음식조차 만들지 못할 만큼 병이 악화되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간 청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는 의원들은 죄다 집으로 불러들여봤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청년이 살던 마을의 주민들도 하루 빨리 청년의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어 훌륭한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점차 쇠해가는 모습에 아쉬움만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용하다는 의원마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청년의 집을 훌연히 떠나자 청년의 집에는 청년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제 청년은 다른 의료원을 불러들일 재산도 없었으며, 어머니의 얼굴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라있었다.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청년이 생각하고 있던 찰나 집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윽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청년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은 뒤 밖으로 나갔다. 나가보니 어머니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던 한 할아버지가 서있었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요새는 어찌 음식장사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물었고, 청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거라면 혹시 저기 복길리의 시어샘에 한 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아무리 낫지 않은 병이라 해도 그 샘물은 모든 걸 낫게 할 정도로 그 효력이 영험하다던데 말이야.”

청년은 그것이 사실인양 물었고, 무너지는 하늘에서 솟아날 구멍을 겨우 찾은 듯했다.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어머니가 다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뵙겠다고 했다.

집으로 들어온 청년은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하고, 곧 바로 나갈 채비를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때 어머니는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 부들거리는 다리로는 지탱한 채 팔을 떨며 연잎에 싸

인 무언가를 청년에게 건넸다. “복길리까지는 걸어서 꼬박 이틀이지 않느냐. 주먹밥이니 이걸 갖고 가도록 하여라. 부디 몸조심하거라.” 청년은 어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켜 만들어준 주먹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자신있는 목소리로 대답한 뒤 집을 나섰다.

청년은 기력이 회복된 어머니를 상상하며 힘찬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을 켄걸음으로 걷자 다리에 무리가 간 청년은 길가에 자리한 나무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주저앉은 뒤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한 개 꺼내 들었다. 연잎 속에는 총 네 개의 주먹밥이 있어 갈 때 두 개씩, 올 때 두 개씩 먹으면 될 거라고 청년은 생각하였다. 주먹밥을 베어 물자 그때 청년이 쉬던 나무의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기어들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해보았는데, 그곳에는 며칠을 굶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사내가 힘없이 누워있었다. 사내는 청년을 발견했는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배고프다며 연신 소리내기 시작했다, 청년은 집에 있던 비쩍 마른 어머니가 생각나 사내를 도와주자고 마음먹었다. 주먹밥 한 개를 건네자 사내는 두 팔을 뻗어 허겁지겁 해치워버렸고, 청년에게 옆드려 감사를 표했다. 청년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어떻게든 청년을 도와주고 싶다며, 이곳의 지리는 자신이 꿰뚫고 있으니 혹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자신이 안내해주고 싶다고 했다. 청년은 사내의 말에 혹시 복길리로 가는 지름길을 아는지 물었고, 사내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복길리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몽클해진 청년은 그럼 복길리의 약썸, 시어썸에 가야하니 복길리까지 만이라도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의 부탁에 사내는 몸을 일으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청년은 사내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한 밤이 찾아왔다. 계속되는 걸음에 청년은 점점 지쳐갔으나 사내의 썹썹한 모습에 청년은 의아해하며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물었다. 그러나 사내는 곧 있으면 복길리에 도착한다며 오히려 더욱 썹썹하게 걸음을 재촉했다. 청년은 언덕을 오르던 중 도저히 힘이 들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에구구, 다리야. 더는 못가겠소. 보속을 조금만 낮추면 안 되겠소?”

청년의 말에 앞서가던 사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 청년에게 오며 만족한다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지쳤다 이 말이지. 참 오래도 걸었군.”

“그것이 당최 무슨 소리요?”

“먼 소리긴, 자네 모습을 한 번 봐보지 그려.”

사내의 말에 청년은 달빛에 의지해 자신의 두 팔을 쳐다봤더니 좀 전의 사내처럼 앙상하기 그지없었다. 그에 반해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내의 모습은 청년처럼 건강한 모습이였다. 청년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나는 함께 있는 놈의 힘을 취해야 살 수 있지. 그래도 나는 자네 덕분에 힘을 얻었으니 그 대가로 자네를 복길리까지 데려다 줬다네. 그럼 이만 나는 가겠네.”

그 말을 뒤로 한 채 사내는 자취를 감췄고, 남은 것은 비쩍 마른 청년뿐이었다. 청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남은 두 개의 주먹밥 중 한 개를 겨우 꺼내 먹어 잃어가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목청껏 도와달라며 외쳤지만 청년이 있던 곳은 인적이 드물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은 망연자실하여 그저 도와달라고 외쳐댈 뿐이었다.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싶어 어머니의 건강해진 모습을 그리던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청년은 누군가 자신의 근처에 있음을 직감하고 다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거기 누구 있는가?”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을 발견하게 된 마을 주민은 뻘뻘 마른 청년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그를 들쳐 었었다.

“정말 고맙소.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가진 거라곤 주먹밥 한 덩이 뿐이니...” “됐소, 그건 나보다 자네가 필요할 것 같군 그래.”

청년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마을 주민을 보고는 마을 주민의 아내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물었다,

“저 진등재 부근에서 털썩 주저앉아있었는데, 도와달라고 외쳐대 일단 데려왔소.”

청년은 자신이 복길리의 신비의 썸, 시어썸으로 가야한다며 부부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자 부부는 이곳이



복길리이며, 시어샘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있으니 우선 몸부터 챙기라고 하였다.

그날 밤 청년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와 자신이 언덕에서 주저앉아있던 이유 등 자신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부부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하였다. 청년은 감사를 표하며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주먹밥을 건넸고, 부부는 그 훌륭한 맛과 청년의 효심에 감동하였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시어샘으로 가 자신의 마른 몸에 샘물을 끼얹었다. 그러자 몸이 다시 건강했던 때로 금방 되돌아왔고, 건강해진 청년은 샘물을 받아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갔다.

청년이 되돌아간 후 그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훌륭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청년이 떠난 뒤 복길리에서는 청년이 주저앉아있던 언덕을 텃석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 2) 이상한 가스

복길2리에 살고 있는 박 씨는 태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지금까지 농사일이라면 소득을 보지 못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해온 일이기도 하거나와 올해 까지만 해 보고 망하면 정말로 그만둘 일념으로 박 씨는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다.

하루는 논을 갈던 중 박 씨는 반대편 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여 부리나케 그 쪽으로 달려갔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곳에 도착한 박 씨는 화들짝 놀랐는데, 그 연기는 다름 아닌 논밭 속에서 피어올라오는 것이었다. 기이한 일에 박 씨는 논밭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안쪽에는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서 가스가 거품처럼 올라오는 것을 박 씨는 발견하였다. 박 씨는 설마 농사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문득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와 하던 일이나 마저 하자는 생각이 들어 걸음을 옮겼다.

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박 씨는 집에 있던 어머니에게 자신이 오늘 밭에서 본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박 씨의 어머니 역시 박 씨와 마찬가지로 논밭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대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 논밭은 옛날에 큰 샘이 있던 곳인데, 그것이 가스와 관련이 있으려나?”

박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내일 그 연기가 나던 자리를 자신이 기억하니 함께 가보자고 했다.

다음 날 박 씨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스가 피어오르던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어제와 같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가스도 함께 부글부글 거리고 있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니.”

박 씨의 어머니는 박 씨가 말한 대로 논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박 씨는 그 연기가 부글부글 거리는 가스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논밭에서 어찌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날이 지나도 논밭에서 부글거리는 가스가 끊이질 않자 박 씨는 혹여나 자신의 농사가 이번에도 흉작이 될까 싶어 마을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밭으로 부른 뒤 가스에 대해 물었다.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제 논밭에서 이렇게 가스가 부글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뭘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왜 그러는 지 아는 분 있습니까?”

“아니, 논밭에서 웬 가스가 부글거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나도 처음 보는 거요.”

마을사람들이 모두 그 가스의 정체를 모른 채 쑥덕이기만 하자 박 씨는 말했다.

“그럼 이 가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박 씨의 말에 사람들은 그저 놔두라고 했지만 한 마을 주민은 정 신경이 쓰이면 가스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두 모인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각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 한 명이 박 씨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가스는 어떻게 되었소?”

그 질문에 마을사람들의 이목이 박 씨에게 집중되었다. 박 씨는 털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가스는 별 게 아니었소. 가스에는 아무런 유해성분도 없지만 불도 안 붙어 어디 쓸데도 없다고 하더군 그래. 가스가 나는 이유는 여기 마을이 석회암 대지인데, 여기 대지 밑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석회암이 부식되어 가스가 발생된다더구먼. 내 농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번에는 꼭 풍년일 게야, 허허”

박 씨는 이후 가스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해 박 씨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작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3) 신비의 샘

일로면(현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에 사는 홍 씨는 여느 무안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밭을 갈던 홍 씨는 벌레에 밭을 물리고 말았는데, 날이 갈수록 상처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점점 농사를 짓기에도 버거워질 정도로 밭에 통증이 심해진 홍 씨는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면 순식간에 낫는다는 약은 몽땅 발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씨의 밭은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매일매일 수많은 벌들이 침을 쏘는 듯한 고통에 농사는 고사하고 홍 씨는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흉하게 부풀어 오른 밭 탓에 마을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야말로 홍 씨에게는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나날들뿐이었다.

홍 씨는 이 지독한 벌레물림을 낫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포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인의산에서 나는 진귀한 약초를 먹어도 별 효험이 없었으며, 월암리에 있는 달바위에 기도를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벌레물림에 좋다는 약이 시장에 새로 나왔다는 마을 아낙네들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홍 씨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시장에 가보았다. 마침 5일장이 열린 시장에는 마을사람들과 옆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시끌벅적하게 붐비고 있었다. 홍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벌레물린데 좋은 약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사람들은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홍 씨는 아낙네들의 헛소문에 잔뜩 실망한 채 집에 돌아가고자 했다. 그때 시장에 모인 떠돌이 각설이패들이 실없이 떠드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니 글썽 복길리라고 알지? 그 인심 좋은 마을 말이야. 거기 성적골 너머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거나 그 샘물로 씻으면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가 낫고, 나병환자는 나병이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래, 정말이고말고. 어찌나 샘이 용한지 귀하신 분들도 찾아갈 정도라네.”

“그것 참 신묘하군 그래. 내 집사람도 요새 고골 때문에 어찌나 골골대는지, 이 기회에 한 번 데려가야겠어. 고맙네.”

홍 씨는 각설이패들의 대화를 듣고는 또 헛소문이 아닐까 먼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홍 씨는 자신의 밭이 낫지 않으면 정말 모든 걸 잃게 생긴 터라 각설이패들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홍 씨는 다소 먼 거리지만 목발을 챙기고서 신비의 샘이 있다는 복길리로 향했다. 감돈리와 지장리 사이의 끝없이 펼쳐진 논길을 지나 월선리, 남성리를 넘어 홍 씨는 마침내 복길리에 도착하였다. 한적하기 이를 데 없이 고요한 복길리는 해가 이미 저문 채였고, 개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퍼질 뿐이었다. 홍 씨는 달빛에 의존하여 걸음을 옮기며 신비의 샘이 있던 장소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의 초입에서 좌측을 보자 달빛에 윤슬이 은은하게 이는 것을 본 홍 씨는 그곳이 신비의 샘인 시어샘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샘의 찬란한 모습에 언제 피곤했느냐는 듯 기운을 차린 홍 씨는 걸음을 재촉하여 샘으로 향했다. 샘에 점점 가까워지자 홍 씨는 자신이 건강했던 과거가 떠올랐고,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샘 앞에 도착한 흥 씨는 목발을 버리고는 자신의 몸을 샘을 향해 내던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흥 씨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샘에 맡겼다. 그리고는 숨이 차오를 때쯤 흥 씨는 수면 위로 올라가고자 헤엄을 쳤다. 그때 흥 씨는 자신의 양발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 자신을 수면 위로 올려다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면 위로 올라온 흥 씨는 샘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굴이 한껏 젖은 채였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는 목발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흥 씨의 마법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병도 고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복길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복길리 마을사람들은 갑작스레 기나긴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 잃어버린 고요함에 진절머리를 느꼈고, 특히나 샘의 영역을 소유하고 있던 땅주인은 자기 땅의 샘물을 마시려고 모여든 병자들이 너무나 우글거려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다. 땅주인은 그들의 사정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욕심에 화가 나 집에 있는 개를 단숨에 잡아 모가지를 비튼 후 샘에 던져 넣어버렸다. 그러자 샘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고 탁해지더니 사람들은 비려진 물맛과 함께 시어샘의 신묘한 약효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어샘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샘물은 농사를 지을 때 보에 물을 대기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 6. 맺음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기는 문화의 시대를 넘어 문화를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인 문화산업의 성장은 결국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문화 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원형의 발굴이 수행되어 왔다. 문화 콘텐츠의 창작소재로 문화원형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 문화자원이 문화 콘텐츠의 소재이자 형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역이나 마을의 역사적 이야기에 드라마적 요소를 덧씌우는 스토리텔링이 부각되었고, 신화나 설화 등이 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스토리텔링은 바로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간주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지역 문화인 마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마을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마을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간, 장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마을에서 일어난 다양한 기억들이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기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길리 지역의 지명 유래, 전설과 설화, 민속 등의 문헌조사와 민속학적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복길리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 [참고문헌]

- 김영순, 오장근 외(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김영순(2018), 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검단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북코리아  
 백창석(2017), 청계면 마을 소개, 무안문화원



## 발표 02

## 재정착 난민 카렌족의 생애담 탐색적 연구

박봉수(디아스포라연구소)

## 1. 들어가기

지난 2018년 5월, 예멘인 484명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으로 신청하였다. 이를 두고 무슬림 난민·이민자 문제가 화두에 올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9월 14일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12월 14일 예멘 난민자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 철회 혹은 직권종료 14명으로 발표하였다(외국인청, 2018.12.14.). 이를 놓고 난민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견해와 인도적 체류 결정을 철회하고 예멘인 전원을 추방하라는 견해가 각을 세웠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일컫는다(오경석, 2018).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sup>1)</sup>

이러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 계기로 1993년에 난민관련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정금심, 2018).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기 전 1975년 월남에 거주하던 교민과 베트남 피난민을 구출한 후 구 부산여고를 난민 수용소로 개조하여 이들을 보호하였다가 1993년까지 재정착을 위해 제3국인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으로 송출시킨 경험이 있다(노영순, 2013; 정인섭, 2009).

우리나라는 2012년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오승진, 2012).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북한이탈주민 제외)는 2010년까지 한 해 300~400명이었는데 세계적인 난민 급증의 여파로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에 이르게 되었다.<sup>2)</sup> 이처럼 늘어나는 난민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주거를 돕기 위해 영종도에 난민 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손주희, 2018).

특히 재정착 난민의 경우에는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1)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난민법 제2조 제1호.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 7.)

가입, 취업활동, 초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은 자녀의 출생등록 어려움, 트라우마, 외부의 편견 등으로 수용국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 교육 접근 기회 박탈 등을 겪는다(박진숙·전혜정, 2009). 난민아동들 중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혈통주의로 인해 국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서정애, 2017). 게다가 난민지원금뿐만 아니라 난민무상의료, 난민무상교육, 난민기초수급비지원, 난민무료번호소송 등은 자국민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아라뉴스, 2018.09.04. 검색). 특히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변 이웃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빈·김정원, 2017).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는 국내 난민에 대한 연구는 난민의 정책 및 제도(김현미 외, 2010; 오승진, 2012; 옥혜영, 2015), 난민 인정과 신청, 재판 절차(안성경·윤이숙, 2013; 이호택 외, 2009; 이해영·표현덕, 2016),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장복희, 2009; 서정애, 2017), 난민 수용에 관한 연구(오승진, 2018); 국내 체류 난민의 적응(손주희, 2018)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분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본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은 출입국관리법에 흠어져 있던 난민 관련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난민 법제를 갖추어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등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것은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현 시점에서 난민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정착 난민에 관한 논의는 극히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렌족 재정착난민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카렌족 삶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영향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생애담을 밝힐 것이다.

## 2.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 카렌족의 민족운동

재정착난민이란 외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그 국가의 난민수용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난민 자격으로 제3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난민이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예컨대 특정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제3국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이주시키고, 수용국에서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귀화 가능성까지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옥영혜, 2015). 이러한 제도는 국가로부터의 박해 등을 이유로 생존이라는 자연적 가치를 침해당한 사람을 돕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첨예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에 의거하여 2015년~2017년에 거쳐 카렌족 86명이 입국하였다. 2015년 12월에 태국 난민캠프에 있던 카렌족 난민 4가족 22명(성인 11명, 아동 11명)이 처음으로 입국한 데 이어 2016년 7가족(34명), 2017년 5가족(30명)의 미얀마 재정착난민이 입국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취업 교육 등 초기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 멘토링 지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정금심, 2018).

카렌족은 카인 주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남부와 남동부인 애야워디강 델타유역과 싯따웅강, 땅르잉강 유역 및 미얀마와 타이 접경지역인 산지에 걸쳐 사는 민족 집단이다(박장식, 1995). 카렌족은 미얀마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 정도이다. 많은 카렌족이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 살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의 연방제를 요구하며 중앙 정부에 의해 조장되는 집단 폭력에 대해 스스로 무장했다. 카렌인들은 1881년 '카렌족민족연합'(Karen National Association, KNA)을 창립하였다(이상국, 2009). 이것은 기독교 스고카렌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카렌족 내부의 종교, 지역 차이를 뛰어넘어 ‘범카렌 민족’을 구성하고자한 최초의 시도였다. KNA는 카렌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버마족 약탈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모든 카렌인들이 연합할 것을 호소하였다. KNA의 초기 목표는 카렌족 정체성, 리더십, 교육 등을 증진시키고, KNA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때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서구문명의 유입은 카렌인들의 생활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민족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카렌어로 번역된 성경은 구전된 전통이 보존된 기록물로 여겨지고, 카렌 신 유아는 기독교의 신이 되고, 카렌 윤리는 기독교의 윤리가 되었다. 특히 카렌 마을들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서로 교류가 없었던 카렌족으로 하여금 일개 마을단위를 넘어 ‘우리’ 카렌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이정운, 2016).

그러나 1920년대 버마족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 활동을 개시하자 이들에 맞서 정치적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감으로 인해 갈등은 고조되었고 많은 카렌족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이정운, 2016). 특히 카렌족 주요 군사 기지가 함락되자 그곳에 거주하던 카렌족 수만 명이 태국의 난민촌으로 이주하였다(이상국, 2009).

### 3.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카렌족이다. 하지만 미얀마 군과 카렌 군이 전쟁을 하자 위협을 느끼고 태국에 있는 UN난민촌으로 입소하였다가 한국으로 재이주한 재정착난민이다. 다음 <표 1>은 연구 참여자 정보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체류	본국	캠프	민족	학력	이주 전 직업	가족	거주 기간	한국어 수준
참여자1	남	46세	F2	미얀마	맬라	까렌	무	농업	부부/자녀 5명	35개월	4단계
참여자2	남	29세	F2	미얀마	누포	까렌	초2학년	농업	부부/자녀 2명	35개월	5단계 이수
참여자3	여	26세	F2	태국	맬라	까렌	고1학년	농업	부부/자녀 2명	22개월	5단계 이수
참여자4	남	34세	F2	미얀마	누포	까렌	고졸	홈비지트	부부/자녀 3명	35개월	5단계
참여자5	여	31세	F2	태국	맬라	까렌	고졸	지리 교사	부부/자녀 4명	14개월	1단계

연구참여자의 공통점은 카렌족과 미얀마군의 전쟁을 피해 태국 난민촌에서 거주하다가 재정착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온 카렌족이다. 이들은 미얀마에서 정치적 압박과 종족적 갈등으로 태국의 난민촌에 거주하다가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에 의하여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카렌족 재정착 난민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한국어가 서툰 연구 참여자를 위해 한국어가 능숙한 통역의 도움을 받으며 인터뷰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

자의 편의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의 자택에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 참여자 1인이 다음 연구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으면 면접 날짜와 시간 등을 카톡 또는 메시지로 소통하며 확인하였다. 심층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동의한 자에 한하여 기초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1회-2회 진행하였으며, 매 회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심층 면접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메시지로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 과정에서 경험 의미와 내면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이야기의 총체적인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였다.

#### 4. 문화적응 생애담 요약

연구 참여자1은 미얀마 파시에서 1971년에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농사를 지었다.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주어진 인생이라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게다가 카렌국과 미얀마 군은 날마다 싸웠다. 연구 참여자1도 낮에는 논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청년들과 같이 카렌 군을 도와 싸웠다. 그러다가 미얀마 군에 잡혀 교도소에 가서 1주일 정도 갇혀 있다가 다시 돕고, 또 잡혀가기를 반복하였지만 카렌 군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카렌의 독립을 위해서 국민이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독립군의 삶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들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 참여자1은 한국에서도 카렌족의 삶을 대변하고 권리를 찾는 족장의 임무로 어깨가 무겁다.

연구 참여자2는 올해 29살로 5살 된 아들과 4개월 된 딸이 있다. 그는 2남 1녀 중 둘째로 미얀마에서 태어났다. 그가 5살 때 부친이 사망하여 그는 8살 때 절로 들어가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미얀마 군과 카렌 군이 전쟁하여 위험해지자 14살 때 태국의 난민촌을 들어갔다. 난민촌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는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꿈은 큰 딸이 건강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여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반지 만드는 기공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자녀의 꿈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성실한 가정이다.

연구 참여자3은 2016년 11월에 재정착난민 2기로 입국하였다. 올해 26살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4개월 된 아들이 있다. 그녀는 1남 4녀 중 둘째로 태국의 난민 캠프촌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미얀마와 까렌족이 전쟁을 할 때 위험을 느끼자 태국의 난민촌으로 갔다. 그녀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새아버지는 술을 마지고 걸핏하면 손까지 대는 것이 싫어서 미얀마의 까렌 군부대에 들어가서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얀마 군부대에서 같은 학년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녀의 희망은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딸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돈을 벌어 태국의 난민촌에 있는 어머니와 미얀마에 있는 시부모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4는 올해 34세로 3형제를 둔 가장이다. 연구 참여자4는 미얀마 군과 카렌족이 전쟁을 하자 아버지의 권유로 16살 때 태국의 난민캠프로 갔다. 태국의 난민촌에서 아저씨 집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만난 동창생과 20살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농사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사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UN캠프 안에 있는 병원에서 흠비지트로 일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난민을 신청하고 2015년 12월에 입국하였다. 그는 현재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부부의 꿈은 카렌이 전쟁에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에서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5는 31세로 1남 3년 중 장녀로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학교 다닐 때 지리가 가장 재미있었고, 멜라 캠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리 교사로 재직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난 동창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낳았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일을 갔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화학약품이 눈으로 들어간 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난민 신청을 결심하고 2017년 7월에 한국행 비행기에 탔다. 난민 센터에서의 6개월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현재 치료를 꾸준히 하여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지금은 공장에서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주말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부한다. 그녀는 외롭고 힘들 때면 가난에 찌든 태국의 난민 캠프가 그리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카렌 음식이 그리워 눈물을 자주 흘린다. 그녀의 꿈은 남편의 눈이 완전히 치료가 되고, 자녀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미·이호택·최원근·박준규·류유선,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과천: 법무부(2010).
- 노영순,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 한국에 들어온 2차베트남<b>난민</b>(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2호(2013), pp.75-108.
- 박장식, “미얀마 까렌족의 분리주의 운동” 『동남아연구』 제4집(1995), pp.255-282.
- 박진숙·전혜정, “난민 가정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1호 (2009), pp.1-31.
- 법무부,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2013.
- 성정애, “한국 거주 난민 아동의 권리 - 아동 교육권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41권(2017), pp.79-101.
- 손주희,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18).
- 안성경·윤이숙,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13권(2013), pp.127-150.
- 안영빈·김정원, “국내 난민아동의 생활실태 분석과 교육 방안 모색”, 『다문화교육연구』, 제10권 제1호(2017), pp.171-200.
- 오경석,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제4권 제2호(2011), pp.71-102.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집』, 제57권 제2호(2012), pp.91-112.
- 오승진,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2018), pp.389-414.
-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5), pp.187-195.
- 이상국, “백인 구원자와 카렌족: 현실이 된 카렌족 신화”, 『한국문화인류학』, 제43권 제1호(2009), pp.217-261.
- 이상국,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2016), pp.101-143.



## 발표 03

##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 -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

조영철(인천담방초등학교)

### I. 서론

교통통신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의 양적·질적 간극을 좁혀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그간의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흐름을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의 흐름으로 전환시켜 놓았다<sup>1)</sup>. 이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글로컬 다문화 생활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컬 다문화 생활세계의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글로컬 다문화 생활세계 형성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의 만남과 접촉을 유발하여 인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지섭(2008)은 세계화로 인한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는 인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병존하는 다문화적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신형중(2001)은 세계화는 인간의 삶을 전 지구적으로 상호의존 관계 혹은 상호연결성을 강화시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017년 법무부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거주 외국인(2,049,441명)과 불법 체류 외국인(208,971명), 그리고 2014년~2016년 사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27,771명)을 모두 포함하면 총 2,286,18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총 인구 수인 51,696,216 명 대비 4%가 넘는 수치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초국적 이주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타이 등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글로컬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로컬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집단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질적 한국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이며, 동시에 성적 약자로서 복합적 소외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질 수 있는 집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모국의 제도와 사회에서 축적해 온 사회적자본의 활용과 동원이 새로이 진입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간에 경계 긋기'와 같은 주류사회와의 유대 단절(Silver, 1994)'은 보다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경제, 심리, 문화 등 여러 차원 내에서 참여기회가 박탈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박병현, 최선미, 2001). 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주여

1) 세계화는 기존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 일컬어지던 서구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의 의미를 넘어 글로컬 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서의 세계화로 변모하고 있다. Cohen & Kennedy(2007)는 글로컬리제이션의 개념을 전 지구적 압력들과 수요들의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추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곧, 글로컬리제이션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수용자들은 전 지구적 가능성들로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변형시켜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에서 민주적이며 창조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성의 사례들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다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도시지역의 기업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 일반에 대한 실태 및 정책 연구와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형성과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따른 지위변화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부분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이주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생활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해가는 과정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사회구조 및 인종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내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행위자로서의 전략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써 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양상을 직업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료관계, 지역 공동체, 작업장 등의 가정외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활세계'를 관찰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사회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수도권 도시에 위치해 있는 'A' 기업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경제활동을 부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미래의 전망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양상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결혼과 이주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 경제활동에 참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조와 연결된 행위자성 복원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정외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게 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

#### 1) 문화 적응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영역에 고루 적응해야 한다(이혜림, 2018). Alba & Nee(2009)는 적응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문화적 경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변화의 과정이다. 곧, 결혼이주여성의 적응도 그들이 소유한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Redfield, Linton, & Herskovits(1936)는 문화 적응을 사회의 문화적 관행, 제도, 구조 등의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문화 간 접촉을 통해 사람들은 문화 적응의 과정을 경험하며, 이 속에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의 경험을 갖게 된다(Sam & Berry, 2010; Ward et al., 2001). Sam & Berry(2010)는 문화 적응의 경험은 이주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 분노, 우울 등의 감정으로 표출된다. Berry(2005)는 이주자의 문화 적응의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Berry(2005)와 Sam & Berry(2010)에 따르면, 통합은 이주자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들이 정주하는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둘째, Berry(2005)는 동화를 이주자가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 문화에 흡수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Sam & Berry(2010)는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 유지에만 집중하는 이주자의 유형을 분리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주류 사회의 차별의 영향으로 이주자가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 Berry(2005)는 주류 사회의 통합이나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모두에 관심이 없는 주변화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

함으로써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과 혼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Bourhis et al., 1997; Sam & Berry, 2010: 476). 김연수(2013), 송지현·이태영(2014), Berry(2005), Berry & Sabatier(2010)는 위의 네 가지 문화 적응의 유형 중 통합의 유형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올바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발정인 동화주의적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통합의 문화 적응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 2) 경제적 적응

Gordon(1964)은 이주자는 사회적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통해 주류 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해림(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주자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특별한 자본금 없이 이주를 결정한다.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경제적 안정성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주자의 경우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평가절하 되어 실제 능력에 비해 낮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Basilio, Bauer, & Kramer, 2017; Borjas, 2006; Chiswick, 1978; Chiswick, Lee, & Miller, 2006). 이는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Borjas(2006)에 의하면 이러한 이주자들의 불공평한 대우는 이주자의 자녀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주자 중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적응은 한국 사회 적응과 관계가 깊다(설동훈 외, 2005; 박능후·선남이, 2010). 설동훈(2005)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적응의 지표로 그들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 수준을 들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적응의 수준은 그들의 안정적인 한국 내 생활세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박능후·선남이(2010)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의 수준이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곧,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적응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 Ⅲ. 연구 설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정체성의 변화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에 내재된 의미를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들 중 하나이다.

<표 1> 내러티브 탐구 절차 (Creswell, 2013: 73-75)

절차	내용
① 연구방법 결정	연구문제와 방법이 내러티브 연구에 적합한 지 판단
②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의 경험과 이야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
③ 자료 수집 방법 고려	녹음 등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고려
④ 이야기 맥락에 관한 정보 수집	이야기의 맥락에 관한 정보 수집
⑤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의미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냄
⑥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로 재구성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로 재구성

<표 1>과 같이 이 연구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의 여섯 가지 절차-① 연구 방법 결정하기, ②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③ 자료 수집하기, ④ 이야기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⑥ 연구 참여자를 연구 과정에 참여시키기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산출된 연구 텍스트들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연구자들의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 (Creswell, 2013: 74)한 것이다. 다만 내러티브 해석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녹음을 전사한 자료와 현장 노트를 반복하여 비교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이 글의 초고 및 수정 원고를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확인하는 과정(총 3회)을 거쳤다(6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출신국	나이	이주시기	결혼 전 만남 횟수(기간)	남편과의 나이 차이	자녀 수	남편 직업	학력	이주 전 직업	A 기업 근무기간	기타
A	베트남	30	2012	1(6개월)	15	1	회사원	초졸	없음	3년	
B	베트남	24		1(6개월)	17	2	회사원	중졸	없음	3년	
C	베트남	29	2009	1(3개월)	18	2	회사원	고졸	회사 통역	3년	
D	베트남	29	2011	2(3개월)	13	2	회사원	고졸	회사 통역	3년	
E	베트남	35	2012	2(4개월)	15	1	사업	고졸	부모님 식당	2년	
F	베트남	29	2006	2(6개월)	21	2	회사원	고졸	공장제조	해당 없음	
G	필리핀	32	2015	1(3개월)	13	0	공무원	고졸	공장제조	해당 없음	암투병
H	필리핀	28	2012	2(3개월)	12	1	공무원	고졸	회사 경리	해당 없음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직업은 5명은 부업에 종사, 3명은 가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6년 이상으로 결혼이주로 인하여 다양한 결혼 생활 경험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극복의 경험, 경제적 지위 변화의 경험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구성은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문화 적응의 경험과 경제활동 참여의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생활세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 인천 지역의 포장업체인 'A'에서 근무하는 5인의 결혼이주여성 및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3인의 결혼이주여성을 심층면접 하였다. 'A' 기업은 마스크 포장업체로 한국인 사업주와 직원 2명 외에 모든 근로자가 부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정규직원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규직원을 줄이고 대부분의 직원을 부업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업주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총괄감독을 하는 종업원 이외에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부업으로 일하고 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및 개인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8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인 자활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을 맞추었다. 심층면담은 이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 당비실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개인당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 6명은 한국어가 능통하여 통역 없이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2명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친구들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함께 면담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면담 직후 바로 전사하고 줄 단위 코딩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면담에서 자료의 공백을 보충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문화 적응 및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방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반응과

대답에 따라서 개방질문을 병행하였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자세한 연구과정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부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면담 시작과 동시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나면 바로 전사하여 음성자료를 문서화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6명은 기업 'A'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으며, 2인은 가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모두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무환경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 부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이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의 동기부터 이주 이후의 적응과정 그리고 부업을 하기까지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볼 수 있었다.

#### IV.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세계 형성 경험

##### 1. 이주의 결심부터 직업활동 경험까지

###### 1) 국제결혼 결심과 한국으로의 이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에서 후반의 나이에 국제결혼을 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 사회 여성의 결혼 평균연령에 비해 이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타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의 결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모두가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꼽았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처음에는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막상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타국으로 가는 딸에 대한 걱정, 한국 방송에서 비추어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결혼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말리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엄마가 빨리 결혼하라고 막... 아버지는 말리기도 했고...어쨌든 한국에 가서 더 잘 살면 되지. 처음엔 엄마, 아버지 모두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치만 비행기 티켓이 나오고 한국에 가는데 결정되니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한국 TV에서 조선족 여자가 무시 당하고, 월급도 못 받고 하는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걱정하더라구요. 정말 잘 살 수 있니?. 저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처럼 다른 결혼이주여성 모두 막상 결혼을 결심했지만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소위 엘리트 여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모두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그래도 새로운 나라잖아요. 내가 살던 곳보다 훨씬 잘 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대학교 나왔어도 (우리 나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도 갖고싶고, 멋진 결혼도 하고싶고...그 때 한국에서 풀하우스란 드라마가 했던 거 같아요. 왕자님이 나왔어요. 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죠.” (연구 참여자 C)

한국 드라마의 허구적 스토리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이주를 결심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드라마에 나온 여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전문 직업인으로 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가장 큰 요인이다.

“뭐 처음엔 다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 꿈도 그렇고. 하지만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지금(결혼 전)보다. 또,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한국에 오면 직업을 무조건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직업을 갖고 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연구 참여자 D)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모국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국이라고 여긴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문 직업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이주를 결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가정 내 지위 향상에 따른 생활세계의 변화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전문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주 후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 문 밖 출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사회 적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당연히 정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나은 삶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를 선택하였지만, 이주 처음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좌초되었다.

“한국에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해야 했어요.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정말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됐어요.” (연구 참여자A)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이주한 후 바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한국에서의 현실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언어로 인한 장벽,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들 모두 한국으로 이주한지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전 한 4년 된 거 같아요. 직업 가진게. 이것도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가능했죠. 처음엔 다문화 관련된 센터에서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치만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C)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한국으로의 이주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모국에서는 벌기 어려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보니 뜻대로 직업은 구해지지 않았고, 주위에 교류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다. 또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한국에서 손에 쥌 수 있는 돈의 전부이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한국에 오면 무슨 일을 해도 돈도 더 많이 벌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몇 년 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모든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냥 남편이랑 얘기만 봤어요. 재미없었죠.” (연구 참여자 D)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남편을 사랑해서, 또 전문 직업 여성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등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이주해왔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다 틀렸어요(달랐어요).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처음엔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근데 너무 틀렸어요. 직업은 말도



할 것 없고,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외롭고, 힘들고, 음식도 어렵게 있고, 다 힘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3)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이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국 사회와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부업이긴 하지만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일을 갖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험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다시 품게 되었다.

“아 정말 그땐...정말 기뻐요. 첫 월급 타던 날...부업이라 적은 월급이지만 정말 좋았어요. 내가 뭐 된 거 같고. 그 때 그 돈으로 아이 장난감이랑 남편 티셔츠를 샀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들은 첫 직장은 기대한 만큼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한국 이주 후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다는 데 대해 만족했고, 사회인으로서 자기 몫을 하게 되었다는 데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움츠러들어 있다가 다시금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며 가정생활에 금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위상을 달라지게 하였으며 남편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게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부업을 하기 시작하며 가족 내에서의 지위 상승의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이주해 온 이후 줄곧 이방인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한국인으로 정체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 3) 문화 적응에 따른 생활세계의 변화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 적응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 문화가 낯선 데다 자신을 향한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처음부터 문화 충격을 경험하였다.

“뭐가 이렇게 다른지. 남편이 밥 먹을 때부터 틀렸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난 그냥 밥그릇 들고 먹었을 뿐인데. 자기는 맞고 난 틀리고.” (연구 참여자 G)

결혼이주여성이 이주했던 2000년대 중반 한국은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에 대해 갖는 차별과 편견은 심각했다. 한국 사회는 그들에 대해 못 살고, 못 배운 여성이라 가르칠 게 많다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그들의 모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심지어 한 연구 참여자는 이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하고 다시 모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 연구의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 나름 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월급을 받는 당당한 직장인이었지만, 한국 이주 후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문화적 편견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강한 의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에 이주한 지 6년이 넘은 지금은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쉬운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고향, 우리 나라 문화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인이죠 뭐. 아직 회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거부하진 않아요.” (연구 참여자 H)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Berry(2005)가 이야기한 문화 적응의 단계 중 동화의 단계를 거쳐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만연한 한국 사회의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 인식에 기인한다.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

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 하는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버리고 그들 고유의 정체성이 아닌, 한국 문화에 따르는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결혼 전후의 경제적 상황과 역할, 지위 등의 변화 과정, 한국 문화 적응 과정, 경제적 적응과 문화 적응의 상호관계와 생활세계 형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볼 때, 그들은 첫째, 한국의 주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진입의 정도에 따라 다른 문화 적응의 양상을 보였고, 둘째, 이러한 문화 적응의 수준은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셋째, 그들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적응과 문화 적응에 있어서 가족( 남편 등)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의 인식 수준과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의 한국 주류 사회경제 진입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구조적 모순은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 적응과 문화 적응을 통해 생활세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을 돕기 위한 경제적 적응과 문화 적응의 중요성과 그 관계를 밝히고 다문화 생활세계 형성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강운주·정희선.(2013). 결혼이주여성 전통식문화 인식 및 교육방안.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8(3): 246-260.
-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 구학」, 35(2): 185-208.
- 김민석.(2016).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국내 다문화 정책 - 캄보디아 출신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93-401.
- 김윤정.(2014). 한국, 중국, 일본 며느리의 한국에서의 부양 경험.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501-513.
- 김태원(2012). 글로벌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사회. 다문화와 인간. 1(1), 63-89.
- 박능후·선남이(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취업이한국사회적응에미치는영향. 민족연구. 41, 120-144.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혜경,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이혜림(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참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두(2012). 초국적 이주자의 권리와 환대.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1), 1-16.
- Adriaanse, C. C. M. (2007). Measur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scale (RES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2(3): 287-304.
- Alba, Richard & Nee, Victor.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826-874.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문화교류**

**2일차**  
5.4. Sat.

**I 문화교류 2분과**

발표 0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승은(인하대)

발표 0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방현희(강원대)

발표 03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정지현(인하대)



## 발표 01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승은(인하대학교)

### 1. 서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결혼이주에 따른 가족 구성의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나타듯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조건상 필연적으로 기존의 한국사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사적 가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정착형 이주자로서 수용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에 결혼이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서 이들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도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다문화가족들조차 이렇게 불리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만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짙게 배어 있다. 이처럼 다문화담론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용어의 무분별한 오남용(한건수, 2012)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가족 내에서 재생산과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면서 개별 결혼이주여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우고 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한국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고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김정선, 2011).

초기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국가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의 결혼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이주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와 실태 조사(최호림, 2015; 위선주, 2013; 박순호, 2012; 송유진, 2008; 김현재, 2007), 부부갈등(박형식 2006; 최미화 2006),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레향바오쩜, 2018; 부티짱, 2017; 이경숙, 2015) 등 점차 다방면의 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의 고유한 문화나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나 존중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의 자주적 실천과 적극적인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목적국의 사회적 담론과 차별, 부정적인 시각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항 또는 경합하는 양상이나 해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최미경, 2014; 최종렬, 2009).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가진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며, 정작 이들 가족이 다문화가족 내에서 겪게 되는 구별된 경험들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미미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어느 한쪽이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가능성을 위해 상호문화성 개념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결혼을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내 이주민 중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윤리적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 2.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의 한 갈래로, 이주의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는 현상이며(Castle & Miller, 2003)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동반 이주자로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 기획을 통해 생계부양자로 이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혜경 외 2006: 259).

아시아의 선진국 내에서 발견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선진국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재생산 영역의 공백을 채워주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결혼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해진 '신부'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의 입장에서 이 둘을 서로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 둘의 관계를 상호연관된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이혜경, 2005).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역설적인 양태와 그 속에서 발휘되는 주체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주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젠더관계,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과 특정 국가와 지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의 역동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경미, 2018). 특히 베트남의 경우,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는 베트남인들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외부세계에 대한 우호적이면서 개방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하였다. 또한 1992년 베트남과 한국 간 국교가 재개되면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투자가 증가하였고, 베트남인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함께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남성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과대하게 포장된 한국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부유한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이끄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조현미, 2013, 503). 특히 베트남 최대의 농촌지역인 남부의 메콩델타는 실업률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도 낮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강화된 대만남성과의 혼인규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급증하였는데,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70%가 남부의 메콩델타 출신이다. 베트남 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과 기대를 안고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는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성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은 노동이주보다 훨씬 접근이 가능한 이주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민경, 2012). 최근 베트남에서는 결혼중개소의 알선보다 친척이나 지인이 개인적으로 한국인을 소개해주는 방식에서의 결혼이주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2)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이란 개념은 20세기 초, 타자·이방인·이주민의 긍정성과 사회적 필연성을 설파한 독일의 유대계 사회학자 Simmel에 의해 철학적으로 완성되었다. Simmel(1992: 764)에 의하면 이방인이란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방랑자가 아닌,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자'이다. 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주흐름을 직시하면서, 이방인의 유입은 일시적·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철학적·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문제는 결국 '사이'의 문제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불어 존

제한다. “인간의 다른 이름은 관계”이며(Buber, 1962: 281), 인간은 서로가 “연결되어있다”(Buber, 1964: 22). Buber(1964)는 나와 타자는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교육적 관계는 온전히 대화적 관계라고 하였다. 대화적 관계는 대화의 순수성 속에서 드러나지만, 대화에서 대화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침묵함이 대화이기도 하거니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대화의 논의는 지속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을 위한 다른 한 사람의 항상적·잠재적 현재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교제로서 가능하다. 즉, 모든 대화는 포용의 요소들과 관련될 때에만 그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Buber(1964: 45-46)는 대화적 관계에서 추상적이지만 상호적인 포용 경험과 구체적이지만 일방적인 포용 경험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포용 경험을 진정한 대화적 관계라고 하였다. 즉, 대화적 관계는 “중립성이 아니라 연대성이고, 서로 위해서 있음이며, 살아있는 상호성이자 생생한 상호작용”인 것이다. 그리고 연결체들 사이의 경계를 지워 버리는 것이 아닌, 공동의 실재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책임에 대한 공동의 과제이다.

또한 인간의 자기 상실과 원자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객체화될 수 없는 주체이며, 인격으로서 공존하는 ‘나’와 ‘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참된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상호관계에 들어서는 일에서 시작된다(Buber, 1979: 61). 즉, 우리가 발견 또는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영역이다. 문화와 문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오늘날의 위기 상황은 인간성의 상실, 즉 인격의 상실에서 온다. 인격의 만남 속에 존재해야 하는 삶이 비인격화로 전락하는 것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

‘상호문화성’에 대한 개념 정의의 공통적인 맥락은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는 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보편성과 개별성, 그리고 상이성과 동질성이 혼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 안의 개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항상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즉, 상호문화성은 특정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다른 문화를 지배하여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관용적 태도와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동시에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최승은, 2015: 14).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은 문화 간 경계를 허물고, ‘다문화’에 대한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대안으로 가능하다.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의 전환이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문화와 문화 간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관계에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호문화성은 상이한 문화들의 현존과 이들 사이의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공유 가능한 문화적인 표현의 형식들을 창출할 가능성과 연관된다”(UNESCO, 2007). 상호문화성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상호문화성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상호문화성에 대한 핵심을 세 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성의 핵심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문화적 공감대로 상호작용하는 사이(inter)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은 타자를 향한 윤리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내러티브 연구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주 경험과 가족에 관한 내러티브에 초점으로 둔다. 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과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경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연구자는 여구 참여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 중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내러티브는 본 연구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내러티브(narrative)란 이야기를 뜻한다. 하지만 내러티브는 짧은 형태의 이야기(story)가 아닌 비교적 긴 개인의 경험이나 역사성이 담긴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러티브에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사람의 견해, 내러티브 속 주인공의 다양한 경험,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사회의 문화와 역사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속에는 인간 삶의 복잡성이 통합적으로 그려져 있다(Webster & Mertova, 2007). 즉, 내러티브 연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한 장소 혹은 일련의 장소들에서, 그리고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시간에 따라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다. 삶(living)과 말하기(telling)의 한 가운데서 내러티브를 정리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모두를 구성하는 경험을 이야기로서 재현한다. 즉, 내러티브 연구는 살아 왔고 말해진 이야기들이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의 결혼과 가족과 관련한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이야기가 된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5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성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첫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고, 이어서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결혼 경로	이주년도	한국의 가족	모국의 가족	직업
A	36세	친척(고모) 소개	2010년	남편(46), 아들(8), 딸(7), 시아버지	부모님, 언니 1명, 오빠 3명	미싱 공장에서 근무/ 현재 가정주부
B	25세	이웃 소개	2013년	남편(47), 아들(5), 딸(2)	부모님, 남동생 1명	공장에서 부업
C	30세	친척(사촌언니) 소개	2009년	남편(39), 딸(9), 아들(7)	부모님, 언니 2명, 남동생 2명	공장에서 부업
D	30세	친구 소개	2011년	남편(55), 아들(7)	부모님, 남동생 2명	공장에서 부업
E	29세	친구 소개	2012년	남편(40), 딸(4)	부모님, 오빠 3명	가정주부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2018년 10월~12월에 걸쳐 진행된 심층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주거지 근처 카페, 근무지 휴게실,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문화성의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하였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특징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 자료를 전체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각각의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전해 준 그들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4).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는 단순히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의 연구과정이다. 내러티브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녹음한 내용들은 모두 전사



(transcription)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들을 반복해서 듣고 재(再)읽기 작업을 한 후, 의미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연구자는 전사 자료로부터 경험의 시기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를 통해 의미 단위를 생성할 수 있는 단어와 어구를 추출하고,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문화 다양성’, ‘동등한 관계’, 그리고 ‘공감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요 핵심주제로 분석하였다.

#### 4.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세계는 개인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족 구성원인 남편, 자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에 나타난 상호문화성을 분석하였다. 가족 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상호문화성은 다음과 같다.

##### 1. 다양성의 인정 vs. 다름에 대한 거부

###### 1) 외국인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 : 시어머니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이주라는 이중의 낮선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족 구성원도 낮선 세계에 함께 동참하는 경험을 한다.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에 따라 정주민인 한국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예전에 신랑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하고 기억이 안 좋아요. 그 때 울었어요. 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 말 안 통하니까. (...) 시어머니 예전에 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사람 착하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예뻐요. 결혼 하고 나니까 잘 해주시고. 애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난리 났어. 시어머니 너무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D)

결혼이주여성들의 시어머니 중에는 결혼을 듣고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A처럼 다름에 대한 지속된 거부로 시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도 하다.

“시어머니는 자주 막말해요. 제사나 명절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무언가 하면 마구 뭐라고 하세요. 저한테 베트남에서 온 주제에 그러다고... 솔직히 자기 아들도 한국 여자 못 만나서 저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같이 안 살아서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중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부정적이었던 연구참여자 A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시가족들과의 관계는 좋다고 이야기했던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이 울기도 하여 인터뷰를 여러 차례 중단하기도 했다. 며느리를 거부하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과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발언은 연구참여자 A의 남편을 ‘한국 여자 못 만난’, 능력 없는 남편으로 비하하게 되고, 그러한 남편이 자신과 결혼했다는 결론으로 인하여 그녀 자신도 비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 2) 베트남어에 대한 이중적 태도 : 남편과 자녀

문화의 다양성에서 언어의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 중에는 아내의 언어인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남편도 있다.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모습이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남편이 베트남어 공부 많이 했는데, 애기 나온 후에는 바빠서 못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공부 베트남 공부 하고 있어요. 베트남어 공부하는 저희 남편 너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CD도 사고, 여기 책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의 남편은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남편은 주장하지만, 연구참여자 B는 자녀들과 베트남어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아이들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거 반대해요. 근데 전 아이들에게 베트남어 조금씩 해요. 아이들이 베트남어랑 한국어 하면 좋아요.” (연구참여자 B)

남편이 베트남어 사용을 반대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베트남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거나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베트남어를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부정적이긴 경우도 있다. 한국어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베트남어에 일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걱정 많죠. 다른 또래보다는 말을 조금 늦게 트였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읽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예요. (...) 제가 아이한테 베트남어는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어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밥 먹을 때에는 베트남어로 어떻게 얘기 하나 그 정도 가르쳐 줬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베트남어 너무 많이 하면 아들이 한국말을 그냥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베트남어 안 가르쳐요. 베트남어랑 한국말 계속 하면 또 혹시 헛갈릴까요.”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C의 아들은 어머니의 언어인 베트남어를 싫어한다고 한다. 딸이 베트남어에 대해애정이 있어서 아들에게 베트남어를 독려하고 있지만, 아들이 베트남어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언어적 감각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결혼이주성들의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균형 잡힌 언어 환경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고은, 2006). 언어 형성기의 아동은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중언어 구사자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환경의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 동등한 관계 vs. 기울어진 관계

### 1) 한국어와 베트남어 : 남편

연구참여자들의 남편들은 베트남어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은 드물었다. 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주민보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Berry, 1990). 이를 반영하듯 문화적응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에 적극적인 반면, 남편들은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우리 남편도 베트남어 책도 사고 CD도 사고 공부했어요. 근데 한 두 개만 공부하다가 ‘어, 머리 너무 아파 나 못해.’ 그러고 포기해.” (연구참여자 C)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수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있다. 남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베트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2) 살림과 직장생활 : 남편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간단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정주부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직장생활로 바쁜 남편이 살림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문제는 남편이에요. 예전에 애기 낳았을 때 (...) 애기 키우는 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아요. 애기 안고 떨어트릴까 봐 무서워서 애기 잘 안지도 않아요. 집안 일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일을 많이 해요. 3교대 일하느라 힘들어요. 제가 다해요.” (연구참여자 B)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아내인 연구참여자들이 집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길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저는 ‘오빠(남편) 나 이거 공부하고 싶다,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그럼 ‘기다려. 애들 크면 해, 애들 크면 해. 나중에’ 그럼 나중에 돼서 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무슨 사람 되고 싶은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연구자: 선생님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역 일을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저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베트남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연구참여자 B)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 회사원이나 교사 등 자신의 꿈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단지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로서 한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이주여성을 ‘글로벌 인재’라는 프레임 하에 개인을 수단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3. 공감의 상호작용 vs. 일방통행

### 1) 사랑과 전쟁 : 남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도 일반적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양상이 드러났다. 애뜻한 ‘사랑’도, 참혹한 ‘전쟁’도 모두 결혼 생활의 일부이다. 심층 인터뷰에서 보이듯 한국의 일반적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베트남 출신 아내를 둔 남편들의 독특한 점도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둔 남편들은 아내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남편 칭찬해요. 모든 거 다 잘해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스물 다섯? 그래서 신랑 항상 저를 애기처럼 너무 잘 챙겨줘서. 남편 좋아요. (...) 남편이 술만 조금 줄이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지금 나이도 많이 있으니까. 건강 걱정되니까.” (연구참여자 D)

남편이 자신에게 공감할 때 남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지만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준다.

“남자는 여자 안 도와주잖아요. 또 도와줘도 마음 안 들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 원래 남자는 거의 답답하고. 앞으로 남편한테 얘기할 거 더 없을 거 같아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의 경우, 부부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답답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언어를 통한 행복과 좌절 : 자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언어교육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내는데, 베트남어 교육에 대한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언어는 개인과 문화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저하고 있을 때도 한국말만 했어요. 일부러요. 제가 베트남어 하면 아이가 한국말이 못 할까 봐요. 한국말 모르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거 같고.. 그래서 그 땐 베트남어 한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다문화센터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이 베트남어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는 가르쳐요.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배우고 같이 하니깐 제일 좋아요. 친정 엄마랑 통화할 때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베트남어로 인사해요 (웃음). 애들이 베트남어 말하기 시작하고.. 베트남어 할 때 저도 진짜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A)

한국어를 우선순위로 여겼던 연구참여자 A는 베트남어 사용에 있어서 엄격하게 스스로를 규제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어 대한 긍정적 조언으로 자녀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계속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 할 줄 모르겠는거예요. 아들이 ‘엄마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주세요.’ 내가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엄마 때문에 나 답답해.’ 이러면 나 마음 아파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연구참여자 C)

그러나 베트남어와 한국어, 이 두 개의 이중언어를 균형 있게 아이에게 노출시켜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좌절도 많았다. 자녀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할 때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국어(mother tongue)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언어이다. 어머니의 언어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지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자녀와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 더욱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환대 :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가족

앞서 고부갈등의 사례도 소개했었지만,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고 다른 시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에서 온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한 정주민 가족의 ‘환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관계 형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처음 한국 왔을 때 옷이 없었어요. 옷을 가지고 왔는데, 베트남 옷은 한국에서 추워서 못 입잖아요. 그 때 남편 누나하고, 시어머니가 가게 가서 옷을 많이 사줬어요. 너무 잘 해 줬어요(눈물).” (연구참여자 B)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음 봤는데 막 안아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고마워!’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잘 해줬어요. 정말 잘 챙겨 줬어요.” (연구참여자 D)

타자와 더불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레비나스(Levinas, 1979)는 타자를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를 환대함으로써 구체적인 윤리성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타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윤리적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자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타자인 이 세계에서 이러한 환대는 타자를 향한 윤리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민경 (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과 수용, 파주, 파주: 이담복스
- 김태원 (2012).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사회, 92, 205-246.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지연 (2018)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종민족사회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31.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이화도 (2011).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비교교육연구, 21(5), 171-193.
- 정기섭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133-149.
- 조현미 (2013).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94-513.
- 최미화 (2006).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한국사회연구』 14: 21-38.
- 최승은 (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발표 02

##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방현희(강원대학교)

## I. 서론

국경을 추월하는 국제이주가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도 국제적인 정치경제의 지위 상승에 힘입어 국제이동자<sup>1)</sup>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제이동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제순이동자수<sup>2)</sup>가 약 8만2천명으로 순이동률이 1.6%에 달한다(통계청, 2017). 그리고 2017년에 1,583,099명이었던 장기체류자의 수가 2018년에는 1,687,733명으로 6.6%가 증가하였다. 이들 장기체류자 중의 약 9.4%인 159,206명이 결혼이주자로 나타났다(법무부, 2018).

초기 결혼이주자들의 유입은 경제적·종교적 이유로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재중동포(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중하층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1990년 전후로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의 입국이 이어졌고, 이들 중에는 일본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계 여성들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를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한국 정부가 여성의 농촌 이탈 문제로 야기된 미혼남성 증가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시행, 한국농촌남성과 동남아시아여성 간의 혼인을 장려하였다(방현희, 2013).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국으로 이주한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결혼을 택한 이 여성들은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고 남편과의 연령차가 크다(강동관 외, 2010).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주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면서, 2010년 이후 결혼중개업체에 제재가 가해지고 한국 이주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입국 조건이 강화되었다. 그 여파로 2013년 이후 결혼이주자의 증가세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입국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을 택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한국인들은 매매혼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의 시선을 갖게 되었고, 동남아시아계의 결혼이주자들에 대해 서구 유럽 출신 백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하게 경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이란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신의 출신국보다 잘 사는 나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 상주개념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

2) 국제순이동(International net migration) : 입국자수와 출국자수의 차이를 의미

3) 결혼이주자의 체류 현황(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원	150,865명	150,994명	151,608명	152,374명	155,457명	159,206명
전년대비 증감률	1.6%	0.1%	0.2%	0.5%	2.0%	2.4%

이와 같은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언어나 생활문화적응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정서적 차원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사회 적응만이 아니라 행복 추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송미경(2008)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진아(2013)는 상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변증법적인 상호관계의 성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상담적 개입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하며, 이들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스스로가 주체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지닐 수 있도록 심리상담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학계의 관심은 부부관계 또는 고부관계 등 가족관계나 가정 폭력, 청소년의 학교 적응 등에 치우쳐 있었다. 부부관계 또는 고부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공은숙, 2011; 조운주·최연실, 2013; 광정임·서미아, 2015 등)가 많았으며, 그 외에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강경미, 2011; 문정화, 2017 등)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권순희, 2007; 김광수·정태희, 2010 등)가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서영석·안창일, 2003; 이아진·최연실, 2011 등), 다문화화상담 전문가들의 효능감이나 역량 등에 관하여 연구(박한울·김선아, 2017; 김현아, 2013; 선국진, 2013 등)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주 당사자들의 자존감 또는 효능감과 같은 심리·상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이주 후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대응 행동을 확인하여 그들을 위한 상담 지원의 실질적인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베트남 출신으로 한정된 이유는 결혼이주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다면 베트남이 가장 많다. 아울러 이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마련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심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둘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이 겪은 심리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이주의 여성화

이주는 현대 사회의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 국제 이주자의 수를 약 2억 3천 2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인구의 3%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5). 한국의 경우에는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13년에 이미 한국 전체인구의 3%를 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약 190만 명으로 3.69%, 2018년에는 약 237만 명, 4.59%로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의 변화 현황이다.

<표 1>에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이주민의 특징에는 양적인 증가 외에 질적으로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는 ‘이주의 여성화’가 있다. ‘이주의 여성화’란 국가 간 이주에 있어 여성 이주 비율이 50%를 넘어 남성보다 여성의 이주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며, 이들의 이주가 남성과의 동반이주가 아닌 여성들의 주체적인 이주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주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지



영, 2013). 따라서 여성의 취업이주는 선진국 여성들의 탈가정으로 발생하는 가정 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인력의 필요에 인한 경우가 많다. 이혜경 외(2006)는 여성이주의 질적 원인으로 여성의 취업 이주의 증가를 꼽는다. 세계적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위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허선미, 2017), 유흥이나 성매매 등 성노동자들의 국제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김현미, 2010).

<표 1>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1000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체류외국인	1,395	1,445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전체 인구	50,734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8	51,607
비율	2.75%	2.84%	3.08%	3.50%	3.69%	3.96%	4.21%	4.59%

출처 :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 거주 이주자들의 이주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2018년 12월 기준 취업 목적의 체류 외국인의 약 92%가 단순기능인력으로 이들의 유입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3D 업종의 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남성이 비율이 높다.<sup>4)</sup>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경우, 2018년의 159,206명 중에 남성은 26,815명(16.8%)이고 여성이 132,391명(83.2%)으로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들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으며, 이주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글로벌 상향혼

2000년대 이후의 경제적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이주의 경우, 이주자의 송출국은 빈곤한 저개발국이고 유입국은 부유한 선진국의 형태로, ‘글로벌 상향혼(hypergamy)’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상향혼’이란 국제결혼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상향혼’은 대체적으로 세계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미주·유럽으로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허선미, 2017). 그러나 ‘글로벌 상향혼’은 국가 간 지위 격차에 따른 상향의 표현으로, 오히려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나이 차이도 많고, 자신보다 낮은 학력이나 거주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위한 이주가 거주국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상향’의 의미는 퇴색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1. 연구 방법

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자	594,991	46,851	548,140

5) 결혼이주자의 성비(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 원	159,206명	26,815명	132,391명
비 율	100%	16.8%	83.2%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한국 사회에 융합 가능하도록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 거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이나 개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심층인터뷰에서 개방형 질문지의 활용은 인터뷰 시 상황에 따라 변화된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의 내면을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에 유용하다.

연구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문헌을 조사하고, 문헌조사 결과에 따라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 작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와 1:1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심층인터뷰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1~2회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설명서를 작성하고 연구의 내용과 과정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리고 연구참여동의서에 확인을 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허락된 연구에만 사용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권익에 관해 의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 연구자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연락처를 연구참여동의서에 명기하여 연구참여설명서와 함께 연구참여자에게 드렸다.

## 2. 연구 내용

이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를 허락한 5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또는 연구참여자의 가정이나 근처 카페,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사용한 개방형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

구분	주제	내용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	고향, 현재 나이, 결혼 당시 나이, 한국 거주 기간, 결혼 과정, 남편과의 나이 차이, 학력
	한국 내에서 소통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단체: 자조모임, 지원 센터, 관공서 등 개인: 위의 단체에서 만난 사람과의 개인적 소통이나 이웃 한국인과의 교류
심리적 특성	자신에 대한 자각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체성, 자아효능감, 자아존중, 행복, 외로움, 상실 등
	이주 후 심리적 경험	가장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사건 또는 경험(한국, 또는 본국에서)
		가장 우울하거나 힘들었던 사건 또는 경험(한국, 또는 본국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개인적 상담 또는 위로 : 힘들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 격려해 주는 사람)
상담 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상담 경험이 있다면 : 왜?, 어떤 경로로?, 느낌의 변화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없다면? : 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 3.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5인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이고,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1년까지로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표 3>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생년 (현재나이)	결혼년도 (당시나이)	한국 거주 기간	남편과 나이 차이	결혼 과정	학력	인터뷰 일자	비고
연구참여자 1	1985 (33)	2009(24)	10년	11년	이모 소개 (한국결혼이주)	고졸 (12학년)	20181004 20181031	
연구참여자 2	1991 (27)	2012(21)	7년	19년	언니 소개 (한국결혼이주)	중졸	20181010 20181107	
연구참여자 3	1995 (23)	2013(18)	6년	19년	중개업체	고졸	20181109	친정부모와 친척 다수 한국거주
연구참여자 4	1994 (24)	2014(20)	5년	23년	베트남에서 지인 소개	대학중퇴 (3학기)	20181109	2015년 입국 (9개월 모국거주)
연구참여자 5	1989 (29)	2008(19)	11년	15년	동네친구소개 (한국결혼이주)	고졸 (12학년)	20181004 20181114	

위의 표를 <표 3>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18세 ~ 24세에 혼인을 하였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1년 ~ 23년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3의 경우만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였고 다른 4명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 V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심층인터뷰에는 이주 후 심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결과, 이주 후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은 크게 개인적 측면의 어려움,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였고,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가족과 친지와와의 대화, 활동하기, 전문가의 상담으로 나누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결과의 의미 분류

범주	중심 주제	의미	비고
이주 후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	개인적 측면	외로움, 서운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가족관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족	
	사회적 관계	친구가 필요해, 편견의 경험, 차별받는 우리 아이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가족·친지와의 대화	친정가족, 남편, 시가족, 친구, 다문화센터 선생님, 도움 주는 한국인, 직장 동료	
	활동하기	배우기, 아르바이트, 바쁘게 지내기	
	전문가 상담	부부 상담, 자녀 상담	

### 1. 개인적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

개인적 측면의 어려움으로는 외로움, 서운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등이 있었으며, 특히 이주 초기에 겪는 '외로움'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모국에 있는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많이

했으나,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 것이 싫어서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1) 외로움

연구참여자 3도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와 자주 통화하고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2는 연구참여자 2는 자녀 셋 중에 두 명에게 발달장애가 있다. 남편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렵고, 혼자 자녀 양육에 지치고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다.

연구참여자 3은 친구와 만나거나 친정엄마와 통화를 한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외로움을 잊고자 한다. 입국 초기에 느끼던 '외로움'의 감정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약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며 외로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서운함

연구참여자 1은 당신의 아들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가 서운했다. 연구참여자 5는 바쁜 남편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것을 다그치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친정엄마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전문상담사와의 상담 경험이 있었다. 남편이 부부 상담을 신청했다고 한다. 전문가 상담은 심리적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 상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3)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연구참여자 5는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졌던 신혼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전해 주었다. 플라스틱 그릇 두 개를 아직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단다. 그래도 남편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은 정말 다행이다.

연구참여자 5의 이야기는 참으로 막막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혹시 몰라서 많이 가지고 온 라면만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이주 준비를 하는 시기에 입국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다문화센터와 연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는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족 등이 나타났으며, 남편이나 시가족과의 관계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 1)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연구참여자 2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이 서운하다. 주위의 다른 시가족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보다 그들과 같이 자신을 어렵게 하는 남편이 더 힘들다. 연구참여자 1은 자녀의 유치원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어 선생님과 대화로 도움을 받았으나, 연구참여자1은 생각은 했지만 괜히 미안해서 연락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스스로 해결했다고 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남편에 대한 감정은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이처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리적 문제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하다.

## 2) 이해 할 수 없는 남편

연구참여자 4는 결혼 전과 다른 남편의 행동을 애해 할 수 없다고 한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못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난 분에게 푸념을 하면서 엄마처럼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남편의 택배 배달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을 오해하고 마음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남편과 동행하면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4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엄마처럼 여기는 분이 곁에 있어 다행이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과의 동행과 대화로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외국인이나 언어적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3)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족

연구참여자 1은 육아에 지쳐있는 자신에게 이른 아침 밥상을 차려 달라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차려드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다. 연구참여자 2의 시가족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모여 살고 있었고, 시가족과의 모임이 자주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열린다. 어린 자녀가 3명인데,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 것이 버겁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는 서로 간의 불편함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갈등을 키워가고 있었다. 고부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2의 친척은 사이가 좋기는 하지만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남편과 대화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친구가 필요해, 편견의 경험, 차별받는 우리 아이 등이 도출되었다.

### 1) 친구가 필요해

연구참여자 1은 아기를 키우면서 갑자기 외로움을 느껴서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주 초기에 친구도 없이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이들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우울 증세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친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센터에서 친구를 찾았고,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요리교실과 한국어교실 등을 신청해서 아내가 외출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친구는 남편이나 가족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 2) 편견의 경험

연구참여자 5는 편견을 경험하고도 자신이 편견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후, 동네 할머니들의 속덕거림이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다문화강사가 되어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 3) 차별받는 우리 아이

연구참여자 1은 유치원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자신의 자녀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5는 아이가 친구로부터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차별적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이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알려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센터의 선생님께서부터 조언을 듣고서야 유치원선생님과의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자신이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위축되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 5 역시 소극적이고 자기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하겠다.

##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심리상담 지원의 방향을 알아보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좀 더 용이하게 전문가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회피 또는 인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킬 확률이 높다. 물론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문상담을 위한 다문화센터 상담사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문화센터에 상담 신청을 했으나 상담사가 부족하여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모국에서 이주 준비를 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다문화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면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한 여성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고 자존감과 효능감이 낮아져 있었다. 이들을 위한 다문화센터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뿐더러,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경미 (2011).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17.
- 강동관 · 오정은 · 이창원 · 최영미 · 최서리 (2040). 『한국의 이주동향』. 2014. IOM이민정책연구원.
- 강진아 (2013). “결혼 이주여성의 텍스트에 기초한 다문화 가족 상담 - 폴리코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21, 7-33.
- 공은숙 (2011). “다문화가족의 시어머니 상담사례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1(1).
- 곽정임 ·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상담 적용연구”. 『다문화 콘텐츠연구』 18(-).
- 권순희 (2007).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교회적용: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國語教育學研究』 .29(-).
- 김광수 · 정태희 (2010). “다문화가정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상담의 방향과 과제”. 『한국초등교육』 20(2).
- 김현미 (2010).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 평화』 5.
- 김현아 (2013).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 다문화상담자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 발표 03

##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정지현(인하대학교)<sup>1)</sup>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은 IT산업을 비롯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K-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만혼 여성의 증가 및 저출산 문제, 여성의 농촌 기피 현상에 따른 농촌 만혼 남성의 결혼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현상(feminization of immigration)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의 흐름을 살펴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여성과 미군 남성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농촌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 1990년대 중국 수교 이후 한국 남성과 중국동포 여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에는 총 혼인 비율 중 국제결혼이 13.6%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72%에 달하면서 국제결혼건수가 정점에 이르렀다.

최근 2017년 총 혼인 비율 중에서 국제결혼 비율은 7.9%(20,800건)였고, 그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71.4%(14,900건)였다(통계청, 2018). 2008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결혼비자 심사 강화로 인하여 국제결혼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나타난 국제결혼 비율이 보여주듯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인구학적 변화는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 이미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단일민족의 슬로건 아래 유지해왔던 수많은 가치들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선주민들은 다양한 이주 배경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의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결혼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기저에 결혼이주민과의 공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한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결혼이주민의 연구,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 2. 결혼이주여성과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집단이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Habermas)는 사회통합을 국가나 경제와 같은 체계 영역과는 다른

1) 인하대학교, oxy59j@inha.ac.kr

인간 삶의 통합이며, 이 과정에는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소수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쌍방향적인 소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문형표, 1994). 즉 사회통합은 모든 인간이 존중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 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성장해온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정주국에서 낮은 문화와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현실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체계를 유지해온 문화가 새로운 사회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참여해야만 하는 문화적응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가정적,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사회통합에도 저해가 된다. 사회통합은 가정 내 통합을 바탕으로 사회 내 통합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체계나 사회구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공존에 달려 있다. 이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경향과 쟁점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3. 결혼이주여성 연구의 경향과 쟁점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3월 논문 검색사이트 RISS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키워드로 200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학술지 논문(KCI등재/후보)과 박사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국내학술지 논문(KCI등재/후보) 718편과 박사논문 84편, 총 802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하나로 산정하였고, 요약문을 통해 실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성이 적은 논문을 제외하고 모두 606편을 선별하였다. 이 논문들을 영역간의 인접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모두 8개의 범주, 즉 문화적응 영역, 가정 영역, 사회 영역, 교육 및 언어 영역, 경제 영역, 건강 영역, 정책 영역, 미디어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유형 분류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논문들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동향

범주	주제 영역	논문 편수(편)	비율(%)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138	22.77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부부, 자녀)	116	19.14
3	초국적 이주 사회 및 정체성	94	15.51
4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및 언어	67	11.06
5	경제, 일, 직업 및 여가	66	10.89
6	건강 및 상담 치료	46	7.59
7	법, 정책 및 지원제도	41	6.77
8	문학 및 미디어 재현	38	6.27
	계	606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22.77%)이었고, 그 뒤를 이어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관계 및 자녀 양육(19.14%), 초국적 이주 사회 및 정체성(15.51%),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및 언어(11.06%), 경제, 일, 직업 및 여가(10.89%), 건강 및 상담 치료(7.59%), 법, 정책 및 지원제도(6.77%), 문학 및 미디어 재현(6.27%)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는 문화적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영역에 주목하여 세부 주제 및 세부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lt;표 2&gt; 문화적응 영역에 관한 연구동향

구분	세부 주제	세부 내용
1	문화적응의 양상과 경험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과정 -문화적응 경험
2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문화 갈등 및 어려움 -문화 부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3	문화적응과 삶의 질	-문화적응과 임파워먼트 -문화적응과 여성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문화적응 양상과 경험에 관한 연구가 66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42편, 문화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30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양상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이해림(2018), 김혜원, 김민화, 김지명(2018), 히로세 준코(2018), 용티탄프영, 김영순(2018), 김정희(2018), 이해림, 박재완(2018), 최미혜(2018), 이미선(2017), 임영언(2017), 김철진(2017), 김철희, 조남예(2017), 두문영, 조진경(2017), 이정숙(2017), 김철희(2017), 김영순(2017), 황해영, 김영순(2017), 형도윤(2016), 웬티 탕란(2016), 김승주(2016), 아지조바피루자, 정지현, 오영섭(2016), 이동은(2016), 김정현(2015), 현재승(2015), 김현미, 한경수(2015), 정선옥, 양숙자(2015), 김민정, 김윤정, 정진아(2015), 이지연, 그레이스 정, 유조안(2014), 박정하(2014), 이애련(2014), 이은주, 전미경(2014), 이상노, 이현심(2014), 황미혜(2014), 이상노(2013), 이용승, 이용재(2013), 권복순, 임보름(2013), 박덕승(2013), 이돌녀, 심미영(2013), 이정희(2012), 이정숙(2012), 장인실, 서덕희, 이지현(2012), 전현영(2012), 박순용, 오덕렬(2012), 박철민(2012), 채옥희(2012), 흥달아기, 채옥희, 한은진, 송복희(2012), 김영순, 이미정(2011), 이미정, 강현민(2011), 안옥희, 전미순, 황윤영(2011), 나동석(2011), 김기홍(2011), 김우석, 한광령(2010), 강유미, 신혜종(2010), 여중철(2010), 이윤경(2010), 이애련(2010), 정명희(2009), 김한근(2009), 최혜지(2009), 한정애, 천성문, 김은정(2008), 정기선(2008), 염미경, 김규리(2008), 박주희, 정진경(2007), 최운선(2007), 구차순(2007), 구차순(2007) 등 총 66편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의 양상과 경험에 관한 위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과정, 문화적응 경험 등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었다. 먼저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최근 연구는 김정희(2018)와 이미선(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정희(2018)는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보고 의미화 방식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미선(2017)은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과 변화를 고찰한 이해림, 박재완(2018)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로 황해영, 김영순(201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다각적이고도 치열한 인정투쟁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공감대 형성 및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총 42편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김소희, 노윤구(2018), 이미경, 안상근(2018), 한석우, 김지운(2018), 이창운(2017), 임재란, 한양금, 김한홍(2017), 문상정(2017), 한수연, 설염추, 성춘향, 박용한(2017), 이종호, 노연희(2017), 서선숙, 백진아(2017), 김인아(2017), 김희정, 조영아(2017), 이현주, 여영훈(2017), 김은심, 김동희(2015), 김인아(2015),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2015), 조혜련(2014), 이순자(2014), 이순자, 박용순, 송진영(2014), 주소희, 이경은(2014), 김태원(2013), 변성원(2012), 이경순, 연영란(2012), 지은진, 최지명, 김교현, 권선중, 박은진, 이민규(2012), 김현실

(2012), 노소영, 김은영(2012), 김현실(2012), 대한케어복지학회(2012), 손의성(2012), 한아름, 김여진(2012), 조인주, 현안나(2012), 현경자, 김연수(2012), 김민정(2011), 안준희, 조정희(2011), 정명희(2011), 안준희, 조정희(2011), 구정화(2010),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2010), 이진숙(2010), 권명희(2010),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2009), 나임순(2008) 등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상기의 연구들은 문화 갈등 및 어려움, 문화 부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문화 갈등 및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김희정, 조영아(2017)와 김태원(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희정, 조영아(2017)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차별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혀내어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갖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김태원(2013)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치갈등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그리고 문화 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김경태(2014)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김경태(2014)는 한국 사회 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적응의 요인을 살펴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이종호, 노연희(2017)와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2015)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이종호, 노연희(2017)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2015)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하여 메타분석한 후 그 의미를 시사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전리상, 조홍중(2019), 천영희(2019), 임명희, 서재복(2019), 김철수(2018), 문군체(2018), 박이분, 계봉오(2018), 유정균(2018), 이창운(2017), 정명희(2017), 조진숙, 황재원(2017), 박재덕(2016), 서재복, 권인탁, 임명희(2016), 김민수(2015), 엄미선, 조용주(2015), 김미정, 염동문(2015), 장덕희, 장재원, 염동문(2015), 이은주, 전미경(2014), 김경태(2014), 이명화, 이윤정(2014), 박현우, 김유영, 남현우(2013), 이해경, 전해인(2013), 박선태(2012), 허철행, 임경숙(2012),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2012), 박은희, 조인주(2012), 함진옥, 조인주(2012), 김현실, 정영미(2011), 김철수(2011), 박순희(2011), 김영란(2006) 등 총 30편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위의 연구들은 문화적응과 임파워먼트, 문화적응과 여성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 등의 연구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응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윤택탄프영(2018)과 김민수(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윤택탄프영(2018)과 김민수(2015)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임파워먼트를 향상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과 여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임명희, 서재복(2019)과 김철수(2018)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임명희, 서재복(2019)은 문화적응과 사회적 참여, 사회적지지 등 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고찰하였고, 김철수(2018)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여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이창운, 정명희(2017)과 조진숙, 황재원(2017)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부적응을 줄이고 행복한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4. 마무리

**[참고문헌]**

- 강유미, 신혜종(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3-1410.
- 구정화(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 : 경인교대 이종언어교수요원 강좌 수 강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30(2), 93-108.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권명희(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10). 2174-2197.





## I 포스터 발표

-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지조바 피루자(인하대학교)
-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에 관한 연구  
어경준(인하대학교)
-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남혜경(인하대학교)
-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장연연(인하대학교)
-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 속담 탐색  
채은희(인하대학교)
-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이춘양(인하대학교)
-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윙티 탄프엉(인하대학교)
-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유성(인하대학교)
- Development plan a Korean(KSL) reading textbook  
이명엽(인하대학교)
-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수민(인하대학교)
-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방법 연구  
김은희(인하대학교)
-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주용(인하대학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이현주(인하대학교)
-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전략  
김도형 서유림 이세련(목포대학교)



## 포스터 01

##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지조바 피루자(인하대학교)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승인하고 1992년 1월 29일부터 양국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인적과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1992년 무역협정에 따라 양국 간에 최대 장려제가 만들어졌다. 양 나라 간의 직항이 열리면서 한국 자동차, 상품, 식품 등이 많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아태국 협력국가 중에서 제1의 무역 국가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총 대외 무역량의 5%를 차지하고 있다(주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2018). 한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큰 관심, 한류의 열풍과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제품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보급된 것도 한국 이주를 재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으로 첫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기업문화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빨리 빨리 하는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느린 우즈베키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둘째, 언어적 측면에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어를 못하는 한국인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현지인들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관계적인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현지인들로부터 편견을 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우즈베키스탄, 한국인, 우즈베키 문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포스터 02

##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에 관한 연구

어경준(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 한국사회로 유입된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현황과 난민정책 및 난민 수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사회적 보장 등을 인정투쟁 이론을 통하여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난민의 신분에서 난민인정 국적취득과정까지의 어떠한 인정과정의 어려움을 거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투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시점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주요 개념들인 난민의 초국적 이주, 인정이론과 난민정책, 난민의 초국적 사회적응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활용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고찰하여 연구절차,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먼저 한국사회 속에서 난민의 국적취득이라는 시선에서 인정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삶의 과정과 상호관계를 통시적인 시점으로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그 사례를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 국적취득 난민으로서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 의미를 보면 첫째, 난민 이전 삶의 관계 및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들 모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귀한 자녀, 부모, 선생 등 다양 한 이웃 등의 중요 인적자원이었다. 가정, 학교, 기타 영역에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둘째, 난민으로서의 가능한 권리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용되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그들의 인정투쟁 양상을 찾아 보았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다양한 인정형태에 따라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었으며, 난민으로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정당성 있게 밝히면서 인정획득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국적취득자는 주류사회에 포함하려는 초국적 사회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으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었다. 난민 인정과 영주권을 획득한 연구참여자들도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주류 사회구성원과 동일한 권리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넷째, 소수의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연대를 구성하여 자조모임, 다문화 지원센터, 주류 인권사회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난민과도 관계망을 형성하여 소수의 정체성도 가지려 하고 있었다

국적취득자들의 생애 경험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경험에 근거하여, 주류사회 국민들과의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국적취득 한 사람들과 받으려는 동료 난민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내고, 한국 내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난민, 국적취득, 인정이론, 인정투쟁, 초국적



##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남혜경(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여성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들의 선택과 선택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간 호사로 이주한 후 정착하고 거주국의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동안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경험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처했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생애동안의 다양한 경험 자료들은 참여자별로 분석하였으며 먼저 생애역사를 시간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후에는 삶에서의 특정한 사건과 그에 담긴 연구참여자의 선택과 대처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의 생애사 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삶을 3가지(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은 가족, 경제적 빈곤, 교육, 결혼, 이주 등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삶의 영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정된 자원에서의 경쟁, 갈등,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 교육이라는 삶의 영역은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 전환점으로는 못 받은 상장과 졸업장, 어머니의 재봉틀, 선배언니의 외재 전축, 신부님을 만남, 가족보다 친구 등과 같은 각자의 삶에 나타난 전환점들이 있었다. 적응요소는 삶의 영역과 전환점에서 학습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들의 삶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면서 터득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것은 자립에 대한 의지, 다른 사람의 모범을 자신에게 적용함(성찰), 봉사, 자유로움을 추구함 등이 있었다. 이들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주변의 상황과 현실에 의한 선택도 있었고 또한 삶의 여정에서 학습된 결과로 행한 선택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각자가 가진 특성으로 그들의 삶을 독특하게 구성하여 왔다. 이주한 여성들이 거주국에서 그들만의 특성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삶은 보다 다차원적으로 연구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다양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국제결혼, 생애사, 적응, 한인 국제결혼여성, 이주민

포스터 04

##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장연연(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교양과 교양교육의 의의에 비추어 대학교육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중국 대학 교양교육과 세계시민역량 함양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중국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진리탐구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유용성을 중시하고 있고 도덕적 가치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등 대학 본연의 소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주체적인 자아형성과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기초한 도구적 기능적 요구에 압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인의 지향이 대학교육 특히 대학 교양교육의 출발이었고, 바로 이러한 주체적 인격을 지닌 자유인의 모습은 세계화된 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이상적인 시민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람직한 시민역량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과 상식을 지닌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대학교육이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면, 그 방향은 자유로운 지성을 지닌 비판적 세계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주제어 : 세계시민역량, 중국 대학교, 교양교육, 교육과정

##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 속담 탐색

채은희(인하대학교)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으로 그 안에는 시대성, 사회성, 문화성, 간결성, 풍자성, 비유성, 민족성, 비속성, 운율성, 변화성 등 많은 특성을 지닌다. 이에 우리의 속담 안에서 '다문화성'을 내포한 속담을 탐색함은 현재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상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범주화된 속담 사전 2편과 범주화되지 않은 속담 1편을 선별하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내포한 속담 29건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속담 내용 중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동료 검증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25건의 속담이 다문화성을 품은 한국 속담으로 도출되어 나타났다. 25건의 속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 '눈 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는 다 각각.',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 '잠자리는 같은데 꿈은 다르다.', '오목장이 아무리 분주해도 제 불장만 본다.', '검은 고기 맛이 있다.', '까마귀가 검기로 살도 검을까.', '눈이면 다 제석 눈인가.', '산중 높은 도끼질, 야기 높은 팽이질.', '겉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 '소 힘은 소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다.', '목수는 쇠를 깎지 못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속 각각 말 각각.', '염주도 뭇뭇이요 쇠뿔도 각각이다.', '합덕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났듯.', '이밥이면 다 젓밥인가.', '태산도 새털이다.', '작년이 옛날이다.', '향기가 있는 꽃은 가시 돋친 나무에서 핀다.', '태산이 평지 된다.', '항우도 낙상할 적이 있고 소진도 망발할 적이 있다.',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한국 속담 안에는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과 동료 검증과정에서 속담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양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로 도출된 속담 25건은 이주자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도구로, 정주자에게는 우리 속담에 담긴 과거 조상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선형적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특히, 다양성을 지닌 속담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만큼 한국인 정주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단일민족주의적 의식을 다문화적 시선으로 돌릴 수 있는 세계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자료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주제어 : 다문화성, 다문화주의, 다문화감수성, 한국 속담, 속담의 특성.

## 포스터 06

##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이춘양(인하대학교)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12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약 157,41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성은 약 26,676명이며, 여성은 약 130,742명으로, 외국인 집단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및 사회·문화 이해능력이 부족하면, 개인에게는 자신감 위축, 삶의 만족도 저하, 사회·문화 부적응, 가족 불화 및 부부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2세인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발달 및 의사소통 어려움, 학습부진, 또래 관계 문제 등 학교 및 사회생활 등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이라는 사실은 여러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체류 중의 결혼이주여성은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48%)하고, 5년 미만의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16%)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연구는 여전히 초기 입국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체류 기간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초기 입국자가 아닌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및 가족역량강화기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목록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헌고찰,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학습·정보획득 측면, 인간관계·생활태도 측면, 문화이해·사회적응 측면, 자녀 양육·학습지도 측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자성어에 대한 지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130개를 4단계 과정을 걸쳐 교육용 목록을 선정 및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연구 및 교재 개발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자성어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방안 개발'을 추후 연구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한자성어, 다문화사회

##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윤티탄프엉(인하대학교)

화행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칭찬, 감사, 사과, 거절, 요청 등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무수히 수행해야 하는 보편적 화행들이다. 특히 여러 화행 중에서 거절 화행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체면 위협이 크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화행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거절 화행 실현 시 어떠한 화용 전략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두 집단의 거절 전략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교수-학습 설계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화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담화 완성형 텍스트 (DCT, Discourse Completion Test)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설문 대상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KNS, Korean Native Speaker)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VNS, Vietnamese Native Speaker)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절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수행하게 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거절 전략 양상을 분석·비교함으로써 두 집단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거절 전략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 집단의 거절 화행 수행 양상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의 원인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화행, 거절화행, 베트남어, 한국어, 비교문화, 화용론

##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유성(인하대학교)

스위스의 소도시이자 휴양지인 다보스(Davos)에서는 매년 1월 말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개최된다. 지난 2016년 1월 말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을 비롯한 세계의 석학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으로 인해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 후 같은 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바둑대결을 벌이면서 4차 산업혁명은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인류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혁명의 목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이며 모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성태제, 2017).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지식, 산업, 문화의 융합과 초연계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인간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긴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의 경시와 인간성의 상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피폐화와 인간 소외로 인류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으로 바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역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이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정의, 평등, 희생, 배려, 관용, 이해 등의 덕목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변화로 기술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주장하고,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교육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을 길러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됨으로써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성 상실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인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세계시민교육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역량,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역량

---

## Development plan a Korean(KSL) reading textbook<sup>1)</sup> – For multicultural pre-school students for middle school entrance

Myeongyeop Lee(Inha University)

---

This study is to develop a Korean reading textbook for multicultural pre-school students for middle school entra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textbook composed of various materials to be used by learners with complex variables such as age, stay period, learning ability, and time of advancement of multicultural pre-school students. Learners with these variables are learning at the same time in one classroom,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textbook that can form a multi-faceted class considering the burnout. To this end, we analyzed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to select themes, functions, and cultures, and surveyed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multicultural pre-school students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The development materials adopted the genre, theme, and activity mixing instructional items, which are the reading function-oriented detachable textbooks that can be used with two standard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consists of 8 units, each unit, and consists of 16 themes, consisting of reading 1 and reading 2 considering the number and difficulty. Reading 1 selects widely known contents as an hour class, and Reading 2 consists of a text with difficulty for 2 hours class. In order to improve the reading understanding ability of multicultural pre-school students, various activities were organized, and practice problems were organized so that vocabulary meaning could be learned in context. Culture was selected mainly for school life related to theme. The development textbooks are designed to be suitable for individual customized classes by constituting various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ease of multi-dimensional composition of classes for learners with complex variables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prepared a reading-oriented separate textbook development plan considering the Korean level.

**Keywords:** Korean reading materials, Mixed teaching materials, Complex variables, Level and Function, Functional-oriented detachable textbooks.

---

1) This book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the author's master's degree portfolio in August 2017.

## 포스터 10

##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수민(인하대학교)

한국의 다문화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본국에서 이민 온 결혼이주여성, 본국에서 나와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부류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다문화를 위한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도구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무의식으로부터 그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준다. 한국의 다문화 상담에 관한 연구는 2009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 미술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상이다. 본 연구는 논문들을 근거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미술치료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임상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문헌 연구를 하였다. 그 논문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출간된 논문들이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인 Riss와 DPpia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학위논문들은 학술지 논문과 비교했을 때, 검증받지 않은 논문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혼합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논문들의 양이 부족하다. 미술치료는 심리학의 하위학문으로써, 미술치료 관련 많은 논문들에서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논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들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론만을 사용하였을 때 연구를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집단의 역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장점을 이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둘째, 연구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새터민, 유학생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새터민에 대한 연구는 2005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유학생에 대한 199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그 대상들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가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새터민, 유학생 그리고 난민과 같은 소수의 대상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셋째, 한국 다문화 미술치료를 연구한 논문들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다양하였다. 연령대는 만 2세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연령대에 제한 없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련한 연구들을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인구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은 유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변화가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인구의 심리적 어려움을 기반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주제어: 다문화 내담자, 미술치료, 심리적 어려움, 탐색적 연구



##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방법 연구

김은희(인하대학교)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2010년을 전후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국내의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언어적 상황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오기 전에 거의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 후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서 사용해야 하는 생활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습득을 해 왔다. 이러한 과정이나 방법에 대하여 한국어의 교수·학습의 관점에서는 통계학적 분석의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들 개개인이 겪어내야만 했던 당사자들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및 습득 과정을 추적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주체로서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의 배경, 환경, 조력자, 학습 방법 등을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결혼이민자들의 제2언어 학습의 효율적 학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한국어 학습의 난관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인터뷰는 2단계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3년 이상 한국 거주 결혼이민자 중 수도권 지역의 I시와 P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의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 유형을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인터뷰 대상자 중 8명을 선발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단계의 심층 인터뷰는 2회에 걸쳐 시행을 하였으며 이들의 인터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 방법에는 기관 개설 한국어 강좌 참여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좌 참여 여부의 어려움으로 가족 구성원의 반대, 육아 병행의 어려움, 자신의 의지 부족 등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사를 통한 학습을 들었다. 방문교사는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이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밖에 자학자습형의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 및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하여 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초기 학습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중급 과정에 들어서는 학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쓰기 학습의 경우에는 피드백의 부재로 인하여 오류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한국어 강좌의 개설 및 접근성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 육아 및 취업으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의 결손 및 단절의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규모 화상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주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되 시행 장소로는 구 단위별에서 동 단위의 행정 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 간의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학습자들 간의 자율적인 스터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수도권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의 관점에서 직접 그들의 고충과 전략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 내러티브, 한국어 학습 전략, 자율적 학습

## 포스터 12

##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주용(인하대학교)

고등교육은 대학생들이 성상을 도와주는 준비교육이다. 대학이라는 곳이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만 아니라 그들이 청소년부터 성인으로, 학생부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같은 사회적 기능을 배우야 한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 중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기능을 배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유학생들이 문제가 더 쉬게 생긴다. Berry(1991)는 유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 사회문화적인 문제, 심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학생은 역사적인 이유로 중국 학생과 비슷한 유교문화권에 속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보다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王繼紅, 2015). 지금 중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70,000명 이상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중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동아리 활동이 어떤 의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탐구(relational inquiry)이다. 즉, 내러티브는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사람의 관계, 사람과 특정 사건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Bruner, 1991). 그래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만 있는 동아리에서 또는 중국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있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지식을 배우고 싶다. 둘째, 운동하고 싶다. 셋째, 취미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한국인 유학생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중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 선배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중 한국유학생, 내러티브, 문화적응, 동아리 활동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이현주(인하대학교)

오늘날 인적 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역량 제고의 핵심 변인이자 다문화사회로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동인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부와 법무부의 정책의 흐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개선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국 유학 홍보 및 정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업 및 생활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진로 및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양적으로 늘어가는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연구동향, 고등교육, 국제화 역량

## 포스터 14

##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전략

오장근, 김도형, 서유림, 이세련(목포대)

2019학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삼미일'이 수행할 과제는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팀은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선택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전단계로 저희 팀은 먼저 '한국 소비자의 메가트렌드 파악'과 '타겟 소비자 행동 분석',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이미지 분석' 등을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저희 팀 '삼미일'은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스터 광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삼미일' 팀이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브랜드는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입니다. 엔제리너스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고, 이들 중 특히 2019년 1월에 무려 11개의 매장이 폐점되면서, 롯데 제휴 서비스에서도 제외되는 등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엔제리너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과제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대형 매장의 커피전문점, 획일화된 디자인, 똑같은 음료와 디저트의 제공 등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동일한 '엔제리너스' 브랜드라 할지라도, 각 매장별로 고유의 실내 디자인과 커피 레시피를 소유하거나, 레시피에 맞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손님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홈 카페'와 같은 차별화된 방법을 구상하여 '엔제리너스'의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는 매장의 형태를 각 지역별 특징에 맞춰 바꾸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테마에 맞춰 공간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등을 취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전주점과 같이 한옥을 이용한 카페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홍보와도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엔제리너스의 경우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공식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위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상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더욱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또한 발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공식 계정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마케팅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어: 커피, 전문브랜드, 엔제리너스 브랜드이미지, 홍보전략